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마음도둑

(Thief of Hearts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康宗彥

2015年 2月

# 마음도둑

(Thief of Hearts 翻譯論文)

指導教授 김 원 보

康 宗 ㄱ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康宗ㄱ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4年 12月

## 작가의 말

삼십 년 전, 나는 삼영촌의 영 씨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서 난 미국과 황금 산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백오십년에 걸친 지속적인 애정을 기록하려 했다. 최초로 황금 산으로 왔던 영 가족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미국행을 택했다(뱀의 아이들과 마운튼 라이트). 하지만, 영 가족의 아이들은 그들이 겪은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산이 자신들의 운명임을 깨닫는다(용의 문). 그리고 그들의 삼세들은 그들의 뿌리를 찢어받기려는 미국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뿌리를 미국 땅에 심으며 황금 산에 자리 잡았다(배반자들). 영 가족과 친구들은, 한때는 서부를 뒤덮었던 시골의 차이나타운들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의 사회가 샌 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에서 작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로 축소되고 있을 때조차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을 미국식 사고방식과 기술에 젖어들게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용의날개). 무엇보다도, 영 가족과 친구들은 적응이 뛰어나서,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을 적으로 둔 프로 농구팀을 만들어 전국 순회 게임을 하기 도 했다(붉은 전사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지나치게 미국화 되어서 잃어버린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야 하기 도 했다(올빼미의 자식).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백년이 넘는 고난과 위협을 이겨, 자신들을 살아남게 해준 사고방식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 번 달라져야만 했다(바다유리). 결국, 절반만이 중국인인 지금 세대들은 중국계 미국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마음도둑).

일곱 세대에 걸친 영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황금 산을 변화시키고 또한 스스로 변화 왔는가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 책들은 중국계 미국인의 눈물과 웃음,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희망과 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여준다.

## 1장

“이런, 학교에 식은 돼지갈비를 가지고 가려는 건 아니지?” 엄마가 총알보다 더 빠르게 냉장고로 다가갔다.

내손에는 증조할머니인 타이포우 할머니가 만든 맛있는 돼지갈비가 들어있는 타파웨어 통이 들려 있었다. “교사휴게실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앤더슨 선생님이 거기서 돼지갈비를 데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겠지.” 내가 들고 있던 통을 휙 잡아챈 엄마는 그것을 냉장고에 도로 집어넣었다. “내가 네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한테 금문교라도 한번 팔아보렴. 셀러드나 가지고 가. 네 아빠가 너 줄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아빠가 만든 도시락은 생야채란 말이에요. 너무 딱딱하다고요. 전번에는 당근 때문에 이빨에 해 놓았던 심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나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점심을 먹을 만 한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 편히 문 쪽으로 돌아섰다.

엄마들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가 보지도 않은 채로 뒤에 서 있는 나의 행동을 눈치 챘다. “피자나 콜라는 좋은 음식이 아니야.”

“아이스크림도 그래요.” 내가 꼬집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폭식하시잖아요.”

논쟁에서 이기지 못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엄마는 얼른 화제를 바꿨다. 또 다른 타파웨어 통을 꺼내서 거기에 야채들을 채우고는, 플라스틱 포크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알겠지? 우리 가족은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좀 더 자주 가져야만 해. 아빠한테도 가족끼리 같이 식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어.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밥은 네가 하도록 해.”

물론 사소한 집안일이지만, 그게 원칙이었다. 그래도 중요한 일들을 위해 나는 자유가 필요했다. “할머니가 하면 안돼요?”

내가 자주 듣고 했던 날 서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았다. 할머니가 식사 준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언제나 친근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중국어 케이블 방송을 보며 지낸다.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약속했다. “알았어요, 밥 해 놓을게요.”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면 늘 그랬듯이, 자신의 팔찌에 달린 장식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길을 따라, 팔찌에 달린 작은 옥 부엉이가 춤추듯 움직였다. “솔직히 가끔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적다고 불평한건 너였잖아.”

심리학자인 엄마가 왜 그걸 모르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어쨌든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같이 식사하는 건 괜찮은 일이었다. 각자 모두 너무 바빠서, 가족으로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죄송해요.” 거의 매일 엄마에게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것 같았다.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건 아니야.” 엄마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말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해.”

나는 무조건 행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엄마 말에 동의하고, 사과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제가 잘못하는 거네요.”

엄마가 자전거를 가지러 차고로 가는 나를 불러 세웠다. “미안하구나, 스테이시.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내가 보일 듯 말 듯 투덜거렸다. “엄마에겐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그랬듯이, 부산스럽게 내 옷을 갈라내 매만졌다. 그때는 그런 관심이 좋았지만, 커가면서 엄마의 그런 행동이 또 다른 형태의 꾸지람인걸 알게 되었다.

“내년이면 너는 고등학생이 될 거야. 그리고 또 금방 대학생이 되겠지. 좀 더 너 자신에게 신중해야해. 우리가 언제까지나 네 뒤치다꺼리를 할 수는 없어.”

내가 뒤로 물러섰다. “제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단지 저의 방식대로 할 뿐 이에요.”

엄마는 내 옷깃 대신, 다시 자신의 팔찌에 달린 작은 부엉이 장식을 만지작거렸다. “넌 아직 네 생각만큼 다 자란 게 아니야.”

엄마와 즐겁고 편안한 대화를 나눈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밥, 해 놓겠습니다.” 내가 말하면서, 군인들처럼 경례를 했다.

엄마가 현관문 쪽으로 나를 돌려세웠다. “오늘은 자전거 안타도 돼.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 주실 거야. 그리고 집으로 올 때, 홍춘이랑 같이 버스타고 와.”

아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 적이 없었다. 오늘은 확실히 부모님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다. “홍춘이 누구데요?”

엄마는 서둘러 테이블로 가, 시험지들을 서류가방에 쑤셔 넣었다. “아빠랑 같이 일하는 왕 아저씨, 기억하지?”

반듯한 자세와 긴장된 웃음의 삼십대 후반 중국 남자가 기억이 났다. “아, 그 중국어가 잘 통하지 않는 중국인 아저씨요.”

엄마가 서둘러 탁자위에 있는 종이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어딘가에 강의 노트가 있을 텐데.” 노트를 찾는 동안에 엄마는 계속 얘기했다. “왕 아저씨는 북경어로 사용하셔. 북경어는 중국 북쪽 지방의 언어야, 우리는 광둥어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이 쓰는 말이겠지. “여하튼, 아저씨가 중국에서 부인과 딸을 데리고 왔어. 우리 생각에는 오늘 아저씨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나는, 엄마가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중국인을 알게 될 것이다. 아빠의 말처럼, 차이나타운에서 여자를 하나 데려올 수는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서 차이나타운을 뺏을 수는 없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남쪽으로 오십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는 옛날 이웃들에 대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누군가 차이나타운에서 알마덴으로 이사를 오면, 엄마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아내어, 차이나타운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끌어들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이기만 하면 어디 출신이건 엄마의 넓어진 초대명단에 포함되었다.

엄마와 아빠는 결국, 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고맙네요, 아주 많아요.”

“그렇게 부루통해 하지 마.” 엄마가 야단쳤다. “홍춘이는 열세 살이야.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반에서 공부하게 될 거야. 네가 개를 잘 대해 줄 거라고 믿는다.” 엄마가 경고했다.

테이블 옆에서 셀쪽해하며 내가 물었다. “개, 영어나 할 줄 알아요?”

엄마는 의기양양하게 종이 봉투이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들고,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아저씨 말로는, 할 줄 안대.” 타이포우 할머니가 자동차열쇠를 집어 들고 차로 향하려는 엄마를 불렀다. “애야, 스웨터를 잊었구나.”

아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할머니의 머리가 거의 흰색으로 변했다. 옛날 사진에서, 난 한때는 살집이 좀 있었던 할머니를 발견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엉덩이뼈가 부러진 후 오랜 회복 기간 동안 살이 빠진 탓에, 지금은 앙상했다. 검버섯들이 할머니의 볼과 손에 큰 주근깨마냥 점점이 퍼져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두 눈은 여느 때처럼 생동감이 넘쳤다.

따뜻한 아침이었음에도, 할머니는 추위에 맞선 무장을 하고 있었다. 팔과 손목까지 감싸는 긴팔 스웨터를 입고는,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하얀 털스웨터를 들고, 슬리퍼를 신은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골절된 할머니의 엉덩이뼈는 계속되는 치료에도,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했다. “여기 있다.”

“고마워요.”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스웨터를 건네받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았다. 전문대학에서 정신과 학부 전체를 관리하며, 세계 곳곳에 논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대기업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이지만, 할머니 앞에서만은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의 볼에 키스를 하려고 다가갔다. 할머니를 좋아하긴 하지만, 언제나 할머니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요즘은 많이 자 본 적이 없단다. 그래서 밖에 나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

“손님에게 인사하신다구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내 친구들이 집에 올 때면, 할머니는 너무도 조용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간은 많아요.” 엄마가 머리로부터 스웨터를 뒤집어쓰며 말했다. 할머니는 사랑스러운 손길로, 스웨터 속으로 들어가 있는 엄마의 머리를 칼라 밖으로 빼냈다. “그 사람들의 처지가 누굴 생각나게 해서....., 지금 아마도 많이 외로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심지어 나는 할머니가 외로울 거라는 생각까지도 끊임없이 했었다. “홍춘이란 아이 때문에, 처음 여기 왔을 때가 떠오르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대답하며, 커다란 인형을 만지듯, 엄마가 입은 스웨터와 소매의 주름을 폈다. “네 엄마 말이다. 처음 차이나타운에 정착했을 때.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가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었잖니.”

“그래서 그곳에 적응해야만 했지.” 그것은 나에게 생소한 얘기였다. 나는 엄마에 관해서도 역시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네 엄마에게 적응해야만 했지.” 할머니가 엄마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네 남편에게도, 너 차이나타운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을 때가 생각나니?”

“옛날 일이에요.” 엄마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일을 잊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다.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를 재촉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천천히 쭈그려 앉아, 엄마의 서류가방을 집어 들었다. “네 엄마와 아빠가 그 곳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웨이터가 주문을 받지 않았지, 결국 매니저가 다른 사람을 보내 주문을 받게 해야 했어.”

“왜요?” 나의 부모님이 그 웨이터에게 맞설 때, 어떻게 했을까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말은……, 부모님은 좀 지루한 사람들이었다.

엄마가 서둘러 할머니에게서 서류가방을 받아들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의 있게 표현하자면, 동양인과 서양인 커플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웨이터와 매니저의 실수를 바로잡았단다.”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 다음 주에 거기서 공짜로 성대한 식사를 했지.”

“내가 그걸 봤어야 했는데…….” 내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할머니가 그 레스토랑으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상상이 됐다.

스웨터 때문에 벌써 너무 더운 듯, 엄마가 목을 긁어댔다. “어떻게 그 일을 알아 내셨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저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엄마의 손등을 토닥이며 긁는 걸 멈추게 했다. “뭘, 인제는 얘기해도 상관 없겠지. 제씨가 그 레스토랑에서 접시닻이를 하고 있었거든. 밖에서 들리는 소동에 살짝 주방문을 열고 훑쳐봤더니, 너희가 있었다는구나.”

“제씨 아저씨요?” 놀라서 물으며, 엄마는 머릿속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분명히…….”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엄마의 모습을 점검했다. “아주 늙었지. 올해 막 은퇴했어. 새

로 온 사장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고마워요.” 엄마는 얘기하면서 재빨리 할머니를 안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저 대신 싸우시면 안돼요.”

할머니도 엄마를 마주 안았다. “너는 일을 너무 많이 해. 네 윗사람과 다시 얘기 해 봐야겠어.”

“제 생각에는, 딘 스탠디쉬씨가 전에 할머니와 나눈 대화에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일하는 곳을 보여드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할머니와 부모님 모두 나에게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준 적이 없었다.

“다음번에 뭘 깨트릴 때는, 좀 짠 걸로 집으세요.” 차 경적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그 쪽으로 목을 길게 뻗었다. “네 아빠일거야. 어서 나가자.”

“기다려, 애야. 내 목에 스카프를 좀 둘러다오.” 할머니가 바지 주머니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카프를 꺼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시 도지신 거예요?” 엄마가 애처로운 듯이 물었다.

“비가 올러나 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서류가방을 겨드랑이 밑에 끼고, 할머니의 턱 아래에 스카프를 둘러다. 엄마가 필 삼촌의 손아귀에서 구해드렸던 몇 년 전의 그날 그대로, 할머니는 피부는 여전히 하얗다. 할머니는 샌프란시스코 위쪽에서 삼촌과 같이 살았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상황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집이 차이나타운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기꺼이 우리 집으로 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부가 타서 까맣게 되면, 친구들이 자신을 농장 노동자처럼 볼 거라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면서, 부축하려는 우리의 손길을 뿌리쳤다. “나를 늙은이 취급하는 게냐?”

엄마가 미소 지었다. “제가 좀 기대려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넘어지면 잡을 수 있도록, 엄마는 할머니 옆에서 보조를 맞췄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아빠는, 깨끗한 하얀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지만, 항상 그렇듯이 머리 빗는 것을 잊어버린 듯, 금발 머리가 한 다발씩 서 있었다. 엄마가 번쩍이는 번개라면, 아빠는 커다랗고 활발한 테디베어 같았다.

아빠가 할머니를 보고는 얼른 차에서 내렸다. 어떤 의미에서, 엄마보다는 아빠가 오

히려 할머니의 기분을 더 잘 맞췄다. “할머니, 밖에는 왜 나오신 거예요?”

“그래, 그래” 할머니도 마주 인사하며, 차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왕 아저씨가 삼십대 후반의 여성과 뒷좌석에 앉아있었다. 아저씨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두 사람 옆의 여자애는 내 또래였는데, 머리는 양 갈래로 땀고, 새하얀 블라우스에 까만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쪽은 로우 여사님. 정식으로는 제 처 할머니이시지만, 제 양할머니나 마찬가지로요.” 아빠가 왕 아저씨에게 말했다.

왕 아저씨와 그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나는 그 여자애의 머리가 스누피 머리핀으로 장식되어 있는 걸 보았다. 내가 킁킁거리며 웃기 시작하자, 엄마가 경고의 눈길을 보냈고, 나는 얼른 무심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마저 소개했다. “왕 선생은 본적이 있으시죠, 여기는 부인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따님이신 홍춘양 이고요.”

엄마가 세심하게 옆을 지키고 있는 동안, 할머니가 양 팔을 벌렸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 아저씨가 미소 지었다. 어떻게든 말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영어 음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아저씨의 발음은, 마치 입속에 구슬들이 들어 있는 듯 했다.

아빠가 엄마를 가리켰다. “그리고 제 아내, 케이시 기억하시죠? 이쪽은 제 딸인 스테이시고요.” 엄마가 차로 다가가 손을 흔들었다.

왕 아저씨의 부인은 그때까지 우아하게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배우들이 뽐뽐거리며 누비는 무대를 쳐다보는 관객 같았다. 그때 홍춘의 눈이 나를 향해 움직였는데, 무심함을 가장하고 있기는 해도, 나는 그 애의 눈에서 나를 보고 놀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중국인 손님들은 처음 나를 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곤 했다.

아빠와 같은 금발에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내 눈매는 엄마처럼 동양적이었다. 아빠가 몽고주름이라고 부르는 눈꼬리 쪽에 있는 근육이 눈을 끌어당겨, 아시아 사람들 같은 길쭉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가 물러서자, 홍춘이 나를, 마치 쇼에 나온 전시물을 구경하듯 응시했다. 홍춘이 뭔가 중국어로 말하며, 내 머리카락과 눈을 훑었다.

그 애의 성조가 엄마의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단조로웠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나에게 중국어로 뭔가 얘기하려고 애쓸 때면 그랬듯이, 나는 예의바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미안, 난 영어하고 스페인어 밖에 못해.” 내가 말했다.

“어차피 넌 홍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왕 아저씨가 재빨리 얘기했다. “우리는 북경어만 쓰거든. 그리고 너희 엄마는 광둥어를 쓰시고…….” 광둥어는 중국의 남쪽에서 쓰는 언어이고, 북경어는 북쪽지방의 언어였다.

마치 방금 전에 도끼로 누군가를 살해했다고 고백한 사람을 쳐다보듯, 홍춘은 공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최소한 광둥어라도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나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술에 힘을 주어 얽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중국인 친구들이 자주 같은 질문을 하곤 했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일이, 나에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중국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나는 영어를 중국에서 배웠어. 중국어는……, 중국어는 아름답고 고귀한 언어야.” 홍춘은 내 말에 반박하고는, 자신의 뜻을 영어로 표현하려 애쓰며 잠시 멈췄다. “그래야 네가 진정한 중국인이 되는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환 프로그램이 제법 활발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많이 만났었고, 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애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홍춘의 관점으로 생각하려 애쓰고 있었다. 만일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도 홍춘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난 중국인이 아니고…….” 내가 설명하려 했다. “미국인이야.”

홍춘의 입이 불만스럽게 움직였다. 그 애가 영어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접착제가 발린 길 위를 달리는 사람과 같이 힘들게 보였다. “하지만 넌 너무 큰 것을 잃어버렸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란다.” 아빠가 어깨 너머로 얘기했다. “이곳에, 매주 작은 중국어 학교를 열고 있는 단체가 있어.”

왕 아저씨가 적극적으로 내편을 들었다. “아냐, 스테이시 말이 맞아. 미국에 있으니 미국인이 되어야지.”

“왜 네가 둘 다 될 수 없는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제안했다. 아빠의 생각은 어느 한쪽도 희생시키지 않는 타협안이었다.

홍춘이 혐오스럽게 나를 응시했다. “너는 그 학교에 가서 중국어를 배워야만 해.”

나는 스스로에게, 홍춘이 이제 막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려 애쓰며, 그 애와의 논쟁을 끝내려 했다. “언젠가는 갈 거야.”

하지만 나의 시도는 별 효과가 없었다. 홍춘이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내일 당장 가야해.”

서로 잘못됐다고 상대를 긁어대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미국인의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꺼이 듣고 배우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만났던 교환학생들 중에, 홍춘과 같은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내게 명령하지 마, 알겠어?”

몇 번이나 홍춘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애의 영어 수준이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홍춘은 과장되게 말함으로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 사람들은, 모두 엉망이야.”

홍춘이 어디서 미국인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잘난 척이야?” 내가 따졌다. “너는 여기서 모든 걸 낭비하고 있어.” 홍춘이 경멸하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내가 막 그 애에게, 그렇다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려고 할 때, 왕 아저씨가 날카로운 중국어로 홍춘을 꾸짖었다. 그러자 홍춘은, 또 다시 머리를 흔드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말다툼은 미적지근하게 끝이 났다.

“홍춘이는 학교에 가게 돼서 몹시 흥분하고 있단다.” 왕 아저씨가 침묵을 깨려고 말을 꺼냈다.

내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아빠가 입을 열었다. “물론 그럴 거예요.”

“중국에서는 아주 착한 학생이었던단다.” 왕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홍춘을 힐끔 쳐다보고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자신이 배운 영어가, 여기서 공부하는데 충분하기를 바라고 있지.”

내가 뭔가 얘기 해주기를 기다리던 아빠가 내 대신 아저씨에게 말했다. “여기 올 때 들어보니까, 아주 잘 하던데요.”

“제 딸아이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왕 아저씨가 다시 홍춘을 대신해 말했다.

“스태이시도 입학 첫날에는 긴장하고 있었단다, 그렇지 않아?” 아빠가 내 대답을 재촉했지만, 내가 아무 대답도 안하자 스스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 후로 몇 분 동안, 나와 홍춘의 대화는 아빠와 왕 아저씨라는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건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

“중국에 가족이 남아있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몇 분요…….” 왕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할머니가 남아 계세요.” 홍춘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 아빠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 할머니는 영어 억양도 좋으세요.”

“어머니는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왕 아저씨가 서둘러 보냈다.

“아…….” 할머니는 슬프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는 할머니 볼에 키스를 했다. “갈게요. 할머니 나중에 봐요.”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 마치 중국에 혼자 남아있을 나이든 여자 분을 생각 하는 듯이 공허하게 말했다. “오늘도 학교에서 잘 지내 거라.” 나에게 말을 남기고, 할머니가 발을 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백 팩을 들고, 나는 차를 빙 돌아 운전석 옆자리로 가 탔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우리 옆집 문이 벌컥 하고 열리면서, 카렌이 밖으로 튀어 나왔다. 카렌은 작은 체격에 럭비셔츠를 즐겨 입는 통통한 금발머리 소녀였다. 우리는 일학년 때부터 친구였다. 게임을 할 때면, 언제나 카렌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먼저 고를 수 있게 양보해 주었고, 나는 무슨 말이든 그 애에게는 할 수 있었다. 아빠는 카렌을 나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요즘 들어서 카렌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졌다.

“아빠, 잠깐만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후진을 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애야. 더 이상 탈 자리가 없구나.”

창문을 통해, 나는 카렌을 향해 미안하다는 입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카렌은 한 손에 재킷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책가방을 들고 황당한 듯 멈춰 섰다.

## 2장

아빠가 차도로 나가서 모퉁이를 돌고는, 규격화된 주택가를 지나면서 차의 속도를 높였다. 할머니가 나에게 이런 집들을 보고, 마치 파란 잔디밭에 흩뿌려 놓은 케이크 같다고 한 적이 있었다. 홍춘은 몸을 돌려, 스쳐 지나가는 길쭉한 단층집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애의 얼굴에서, 예전 어느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을 때 보았던 멍한 눈길을 느꼈다. 나는 홍춘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집이 몹시 그림자?”

홍춘은 마치 나의 연민이 자신에게 모욕이나 되는 듯이, 나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중국에서, 우리 가족은 왕자가 살던 궁 안에서 살았었어. 진짜 과수원도 있었고, 우리 집의 정원이 여기보다 열배나 컸어.”

그렇게 웅장한 곳에서 살다가, 작은 뒷마당만 있는 이 곳, 알마텐으로 내려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이곳의 모든 것이 네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거야.” 나는 그 애를 측은하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정말 이상한 곳이야.” 홍춘이 너무나 솔직하게 동의했다.

왕 아저씨가 홍춘의 불이 별개질 때까지 화를 냈고, 홍춘은 그 후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서 차라리 그게 나왔다. 그리고 아빠의 차가 머큐리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내 생각에는 홍춘과 나, 둘 다 기뻐했던 것 같다.

“이 곳 알마텐의 머큐리 광산에서 중국인들이 일했던 사실을 아세요?” 아빠가 물었다. “그래서 이곳 농구팀 이름이 광부들이랍니다.”

“아뇨, 몰랐어요. 재미있지 않니, 홍춘아?” 왕 아저씨가 물었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중학교는 넓은 대지위에, 벽돌이 아주 밝은 색으로 칠해진 길고 낮은 건물들이 넓게 펼쳐진 곳이었다. 자전거들이 홍수처럼 교정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한편, 자동차의 물결은 야외주차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지름길을 찾아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는 몇몇 아이들에게, 정원사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언제나 책을 붙들고 사는 모범생 같은 아이들도 보였고,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무리들도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며, 왕 아저씨 가족은 눈이 휘둥그레 졌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아빠가 차를 세우자마자, 나는 간절히 탈출을 꿈꾸며 차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다. “애야, 홍춘에게 사무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렴.” 아빠가 말했다.

홍춘의 부모님이 그 애에게 북경어로 무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차에서 내려 기다렸다. 홍춘이 통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광하고 차문을 닫았다.

“헤이, 스테이스!” 제프가 핑크색 볼링 편이 그려져 있는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고서 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덜그럭 거리며 지나갔다. 제프는 흔들거리는 백 팩을 등에 메고 긴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까맣게 물들인 단발머리와 거의 뱀파이어처럼 보이는 창백한 메이크업을 한, 실비아의 옆을 간신히 스쳐 지났다.

“조심해, 이 미친놈아!” 실비아가 쏘아붙였다.

제프가 스케이트보드에서 뛰어 내리고는, 발로 보드의 뒷부분을 잡아채어 공중으로 튕겨 올린 후, 깔끔하게 손으로 잡았다. “왜 축 처져 있는 거야? 나는 그저 기운을 북돋아 줄려고 그런 건데.” 제프가 의기양양하게 웃고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주먹 속에 뭔가를 잡고 꺼내 들었다. “신디가 사준 건데, 좀 봐봐. 우린 앞으로 이걸 바로 우씨 라고 부를 거야.” 바로우는 바로 교감선생님의 이름이다.

제프가 보도위에다 내려놓고 손을 치우자, 작은 분홍색 캥거루가 나타났다. “바로우 선생님 닮은 것 같지 않니?”

실비아가 몸을 앞으로 숙여, 그 장난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래, 코가 닮았네.”

제프가 장난감의 태엽을 감고는 내려놓았다. 그러자 바로 캥거루 인형이 짹짹 뛰고, 꼬리를 흔들며, 동시에 심벌즈를 쳐댔다. “바로우 선생님도 저렇게 춤을 추시지.” 실비아가 깔깔 거리기 시작하자, 제프가 활짝 웃었다. “나를 모든 애들에게 기쁨을 주는 닥터 선 샤인 이라고 불러줘.”

실비아가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스테이스. 제발, 제발, 제



발 어젯밤에 수학 숙제 했다고 말해줘.” 실비아가 애원했다.

“너,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구나.” 제프가 자기 장난감을 챙겨 넣으며 말했다.

“그래, 낙제하기는 싫으니까.” 실비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3번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 가방을 내리고 바인더에서 숙제를 꺼내며, 내가 실비아에게 경고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실비아가 다리위에 내 숙제를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면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우리 뒤에서 아빠가 나를 일깨우기 위해 부드럽게 누르는 경적소리를 들었다. “여기는 흥춘이야.” 내가 흥춘을 가리키며 말했다.

“반가워.” 실비아가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저녁에 보자.” 아빠가 차 속에서 말했다.

“네, 아빠.” 나는 몸을 살짝 굽히고는, 가시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다. 아빠가 겨우 알아차리고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오늘도 잘 지내 거라.” 아빠가 소리쳤다. 차가 출구 쪽을 향해 모퉁이를 도는 동안에도, 왕 아저씨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실비아가 서둘러 답을 적어 내려가면서 물었다. “근데 스테이스, 어제 저녁에 그 영화 봤어? 끝내주던데.”

“몇 번 채널이었는데?” 내가 또 다른 두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물었다.

“몰라.” 실비아가 으쓱했다. “케이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태어날 때 헤어진 쌍둥이에 관한 영화였어. 정말 무섭더라. 쌍둥이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나쁜 놈. 근데 그 이상한 쪽이, 둘 중에 유일한 존재로 남길 원해서 다른 좋은 쪽을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누가 나왔는데?” 내가 물었다.

실비아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 애는 절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 해본 적이 없었다.

“어디 보자, 네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귀여운 남자.”

내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너는 어떻게 영어 과목 성적은 그렇게 좋으면서, 다른 중요한 일들에는 그렇게 얼렁뚱땅 이니?”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역사시험 공부는 너랑 같이 할 생각이야.” 무시무시한 시험이 금요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실비아의 목소리가 장난스럽게 말할 때처럼 한 톤 높게 올라갔다. “물론이지. 하지만 시험을 잘 보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실비아는 자신의 부적을 믿고 있었다. “정말로 그 토끼발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실비아에게 물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그랬어.” 실비아가 자신의 토끼 발에 요란스러운 키스를 했다. “그렇지, 아가?” 그리고 나서 실비아가 토끼 발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실비아의 토끼 발을 만졌다. “아마도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 토끼 발에 키스하게 해서, 더 많은 감기 균을 퍼트리고 있을 거야.”

“금요일 아침이 오면 너도 역시 내 토끼 발에 키스하게 해 달라고 빌게 될 거야.” 실비아가 나에게 숙제를 돌려주고 나서 벌떡 일어섰다. “기다리겠어.”

“교실에서 보자.” 실비아의 뒤통수에 대고 말했다. 내가 홍춘을 학교 사무실에 데려다주어야 그 애와의 용무가 끝난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학교의 교감 선생님인 바로우씨는 금테 안경에 머리가 벗겨진 분이였다. 선생님은 덜 완성된 그림과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선생님의 차림새에는 언제나 뭔가 어수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셔츠 자락이 늘어졌다든가, 신발 끈이 풀어졌다든가 하는.

“그래, 네 성적이 가장 인상적이구나.” 선생님이 파일을 살펴보며 홍춘에게 말했다. “몇 가지 평가 시험을 봐야 하겠지만, 그 동안에는 이 곳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테이시와 함께 수업을 들으렴.”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제가 듣고 있는 수업 중 몇 가지는 우등생 반 인데요. 전학생에게는 꽤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따라갈 수 있어요.” 홍춘이 주장했다.

선생님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스테이시를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걸 안단다. 번호자물쇠는 들고 왔니, 홍춘아?”

홍춘이 머리를 흔들자, 선생님이 파일을 덮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홍춘의 몸이 경직됐다. “물론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아무 철물점에서나 하나 살 수 있을 거야. 그 동안에는, 아마 스테이시가 사물함을 같이 쓰게 해 줄 거야.”

홍춘이 원래 서있던 자리에 그대로 멈추었다. 그 애도 나 만큼 바로우 선생님의 의견에 예민했다. “저는 괜찮아요.”

“말도 안 돼.” 선생님이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래도 되지, 스테이지?”

“그럴 필요 없어요.” 홍춘이 거듭 말했다.

어깨를 으쓱하며,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홍춘에게 내밀었다. “어쨌든 여기 내가 수업을 들어야하는 교실들이 적혀 있단다. 스테이지를 따라 가거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홍춘을 힐끔 보더니, 그 다음에 나를 보았다.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니?”

“도움은 필요 없어요.” 홍춘이 말하고 나서, 나를 노려보았다. 사실상, 그 애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너에게 잘 하라고 하셨어.” 홍춘이 대답했다.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아주 고맙다.” 내가 비꼬며 얘기했다.

하지만 홍춘은 내 말투속의 비꼬기를 알아채지 못했다.

“너희 아빠, 우리 가족에게 아주 좋은 친구야.” 홍춘의 찌푸린 얼굴을 보니, 그 애도 자신이 나를 잘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았다.

“나한테 잘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쏘아 붙였다.

홍춘이 모욕이라도 당한 듯이 굳어졌다. “너는 내 우정을 원하지 않는구나? 모든 중국인들은 서로 뭉치게 돼 있어.”

“차에서 내가 나를 몰아세운 것을, 우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홍춘이 아무 뜻 없이 한 말 일게다.” 바로우 선생님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저희는 맞지 않아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오늘 홍춘이를 도와 줄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가 이 일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야.”

나는 손으로 목 밑에 있는 피부를 눌렀다.

“왜요?”

만일 선생님이, 내가 왜 전학생을 위해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아마 난 선생님께 설득 되었을 것이다. 그 대신 선생님은, 양손의 손가락들을 한데모아 힘주며 말했다. “어쨌든 홍춘이는 중국인이 아니니.”

“그런데요?” 내가 물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봤어요. 재를 잘 모른다고요.”

“너흰 둘 다 중국인이야 .” 선생님이 우리 엄마만큼이나 고집이 센가 보다. “내말

은……,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가 중국인이라고.” 선생님은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의 남쪽지역이요.” 내가 바로잡았다. “그리고 홍춘은 북쪽에서 왔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선생님과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가진 공통점만큼이나 적어요.”

“난 나이지리아를 세 번이나 다녀왔단다.” 선생님이 벽에 걸린 사진 몇 장을 가리켰다. “나는 아프리카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자랑스러워.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스테이시.”

나는 평생,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 같다고 생각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를 저애와 같이 묶는 건 불공평해요, 선생님.”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저를 고르신 이유가 저의 생김새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어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 생김새로 선생님께 무언가 하길 요구하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너를 고른 것은, 네가 이일에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엄하게 얘기했다.

나는 구석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좌절감이 느껴졌다. “왜죠?” 작전상, 그 질문은 실수였다.

“우리 할머니는 선생님이셨어.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선생님이셨지. 난 자동차 영업사원이 되려 했었다.” 선생님이 양복 주머니에서, 잉크를 채워 넣는 방식의,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너는 틀림없이 내가 언제나 이 펜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너무 가난해서 새 펜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거야.”

나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 늘어놓곤 하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도 반복할 기회를 찾은 선생님 때문에 눈을 멀뚱거렸다.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펜을 사랑스럽게 만졌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처음 말은 반 학생들에게서 받은 것이었지.” 다시 펜을 내려놓는 선생님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유산보다는 나의 소명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연설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선생님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네, 선생님.”

사무실 밖에서, 홍춘은 내 쪽으로 빙글 돌았다. “나 역시도 ‘통총’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싫어.”

그건 내가 얼마나 할머니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애의 말투에서, 그 말 속에 모욕하는 뜻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너 역시도 귀머거리인거야.”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로부터 성큼성큼 멀어지며, 홍춘은 다시 그 단어를 사용했다.

그 때, 나는 누군가 가볍게 내 어깨를 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학교까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카렌을 향해 돌아섰다. “우리 부모님이, 저기 홍춘이라는 새로운 전학생이랑 같이 학교에 가라고 하셨어. 미리 말씀 해주지 않으셔서 너한테 말할 시간이 없었어. 미안해.”

“괜찮아.” 카렌이 어깨를 으쓱 했다. “숙제 같이 할래?” 카렌이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예전처럼?” 내가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카렌이 덧붙였다. “우리 집에 안 온지 한참 됐잖아.”

“항상 가잖아,”

카렌이 고개를 저었다. “전에는 그랬었지.”

나는 마지막으로 밤 시간에 카렌의 집에 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내려고 했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타이포우 할머니에게 그랬듯이, 아마도 나는 카렌의 존재도 역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카렌이 좀 이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애의 부모님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카렌이 나에게서 너무나 친절하고 늘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내일 어때?” 내가 제안했다.

“오늘은 어때?”

“부모님과 함께 홍춘네 가족들을 접대해야만 해.” 내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카렌은 실망한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 내가 약속했다.

“그래,” 카렌이 확신하지 못하며 말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업을 맡으신 아놀드 선생님이, 카렌에게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나는 카렌을 흘깃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래, 아마

도 우리는 얘기도 좀 하고 킁킁거리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무슨 범죄라도 되나?

“여러분이 새로 온 친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아놀드 선생님이 말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섰다. “홍춘이는 중국에서 막 왔다는 구나. 바로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북경에서 온 거래.” 선생님이 쳐다보자, 홍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홍춘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선생님은 교실의 앞쪽으로 향했다. “스테이시, 홍춘이와 교과서를 같이 보겠니?”

홍춘의 얼굴에 떠오른 불쾌한 표정을 보니, 나와 함께 교과서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나보다도 더 싫은 것 같았다.

카렌은 이미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 일어나고 있었다.

“홍춘이와 즐겁게 보내.” 카렌이 투덜거렸다.

“그렇지 못할 거야.”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가 말했다. 갑자기 나는 마치 내가 실비아가 말한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원치 않는 쌍둥이 형제를 죽이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충동이 이해될 것 같았다.



### 3장

그날 오전, 다음 수업의 암스트롱 선생님 역시 나에게 홍춘의 옆에 앉아 그 애와 같이 교과서를 보고, 그 애가 수업에 적응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 그 상황은 나로 하여금, 마치 내가 나머지 오전 시간 내내 저주에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다.

다음 교실로 가는 도중에, 제프가 내 어깨를 손으로 쳤다. “친구, 왜 그렇게 침울한 거야?”

“선생님들이 계속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어.”

“스테이시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우리의 뒤편에서 카렌이 말했다.

제프는, 대부분의 머큐리 아이들이 그렇듯이 카렌의 말을 무시했다. 사실 그 애들 중 대부분은, 내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카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건 마치 카렌이 ‘보이지 않는 애’ 인 것과 같았다.

나는 일부러 카렌을 향해 미소 지었다. “네 말이 맞아.”

제프는 겨우 카렌을 한 번 슬쩍 쳐다본 후, 자신 있게 씩 웃으며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었다. “햇빛 선생님이 구해 드리지.” 하지만 잠시 후, 제프의 그 웃음은 자신의 가방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우거지상으로 변했다. 마침내 제프는 가방의 덮개를 열고 책들과 노트들 그리고 뜨개질바늘 같은 우스꽝스러운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 장난감이 없어졌어.”

실비아가 손가락으로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을 빗어 올렸다. “힘내, 어디선가 튀어나올 거야.”

제프가 콘크리트 길 위에서 비어있는 자신의 가방을 침울하게 흔들었다.

그리고는 찾기를 포기한 듯이 가방을 내팽겨 쳤다. “그걸 보고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장난감이 생각이 났어.” 제프가 제 이마를 쳤다. “가게 윈도우에서 보았을 때 신디에게 그 애길 했고, 개가 나에게 사 주었어. 그 애가 알면 나를 죽이려고 들 거야.”

“대신에 똑 같은 걸로 사면 되.” 내가 동정심을 느끼며 제안했다.

제프가 자신의 주머니를 툭툭 쳤다. “가진 돈이 없어.”

제프가 하는 모든 괴상한 장난은,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불현 듯 제프도 카렌만큼이나 오래된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제프의 존재 또한 당연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은 내가 빌려줄게.”

“네가?” 제프가 놀라며 물었다.

나는 지갑으로 손을 뻗었다. “얼마야?”

제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흐트러진 물건들을 자기의 가방 안으로 도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여자 친구가 사준 선물을 사기위해, 다른 여자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신디가 알면 네 무덤까지 쫓아갈 걸.” 실비아가 덧붙였다.

제프가 걱정스러운 듯 벌떡 일어났다. “신디한테 얘기할 거 아니지?”

“그게 얼마나 하는데?” 다음 교실로 가면서 실비아가 물었다.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잖아.” 제프가 항의했다.

“좋아, 나중에 노동으로 갚으면 돼.” 실비아가 갚는 방법들을 손으로 꼽기 시작했다. “우리 집 잔디를 벤다든가…….”

실비아가 나열해가자, 제프가 낮게 신음소리를 냈다. “이건 강탈이야.”

“아니, 강탈은 내가 너에게, 만일 우리 집 잔디를 깎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으박지르는 거야.” 실비아가 제프를 놀려대며 눈을 깜빡거렸다.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행동의 정확한 단어는 협박이야.”

그러나 행정수업 시간이 되어, 심스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시험을 본다고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실비아가 공황상태가 되었다.

그 때까지도 나는, 아직 흥춘과 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비아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다. 갑자기 내 뒤에서, 계속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실비아가 자신의 가방을 뒤집고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과 펜들 그리고 립스틱이 책상에서 교실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내 토끼 발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었잖아.” 내가 말했다.

실비아는 쪼그려 앉아, 손가락을 짝 펴고 교실바닥을 쓸었다. “분명히 여기 있어야 하는데. 같이 좀 찾아줘.”

심스 선생님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업 끝나고 다른 걸로 사면되잖아.” 내가 말했다. 실비아가 우는 소리를 내며 물건들을 치웠다. “하지만 시험은 바로 지금이란 말이야.”

제프가 실비아의 어깨를 만졌다. “빨리 네 자리로 돌아가.”

실비아가 벌떡 일어나 제프의 조끼를 부여잡았다. “만약 네가 훔쳤다면, 제프…….”

제프가 실비아를 밀쳐냈다. “그 정도로 절실하지는 않아.”

심스 선생님이 실비아에게로 다가왔다. “그 쓰레기들 집어넣고 시험 준비 하도록 해라!”

나는 내 자리에서 빠져나가, 고마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실비아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프를 믿을 수 있어? 분명히 지금 얼버무리고 있어.”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실비아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실비아는 아마도 다른 주머니에서 행운의 부적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프의 태엽 캔거루는 그 자신의 가방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실비아가 애처롭게 바닥을 쳤다. “요즘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문제를 풀고 난 답안지를 앞으로 전달한 후에, 나는 뒤에 앉은 실비아를 돌아보았다.

실비아는 조용히 머리를 흔들고는, 책상위에 팔꿈치를 올려 두 팔에 얼굴을 묻었다. 사람들은 매일 별거 아닌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처음에 나는, 이 분실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다.

“장난은 장난일 뿐이지.” 이렇게 말한 바로우 선생님은, 장난일지도 모르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치고는 몹시 화가 난 듯 했다. “하지만 혼자이든, 여럿이든 내 펜을 훔쳐간 사람은 그 것을 나에게 돌려주지 않겠니? 그 펜은 돈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내 감정상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만일 그 펜을 내 서랍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어떠한 것도 묻지 않겠다.”

모두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 한번쯤은, 그 펜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우 선생님은 중력의 법칙을 제외하고는, 모

든 일에 설교를 늘어놓을 때면 그 펜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덧붙인 몇 마디에, 우리 모두는 정신이 확 들었다. “만일 이 예의 바른 요청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나는 좀 더 강압적인 방법을 쓰겠다.”

그 즉시 사람들이 돌아서서 제프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제프는 항상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으니까. 제프가 무력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었다. “내가 한 거 아냐. 이번 한번만은, 나는 결백해.”

실비아가 자기의 책상에서 머리를 들어 쳐다보았다. “아마 내 토끼 발도 잃어버리게 아니고, 누군가 훔쳐 갔나 봐.”

“그리고 내 태엽 장난감도.” 제프가 말했다.

“네가…….” 실비아가 험악하게 말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도둑맞은 척 하는 것만 아니라면.”

“제프는 이렇게 비열한 장난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실비아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번 도둑질은 정말 악의적이야.”

제프가 끄덕였다. “도둑맞은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인들에게는 중요한 것들이야.”

“또 누가 그 장난감에 대해 알아?” 실비아가 물었다.

“오전 시간의 대부분을 그걸 가지고 놀았는데.” 제프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서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실비아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 토끼 발에 대해서도 모두가 알고 있어.”

“너도?” 다른 여자애 하나가 물었다. “내 피아노 귀걸이 한쪽을 잃어버렸어.” 그 애는 자신의 싸구려 플라스틱 귀걸이를 가리켰다. “이건 내가 리버레이스 기념관에 갔을 때 샀던 거야.”

바로우 선생님의 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분실물과 비교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모두 별거 아닌 물건들 이었다. 예를 들면 리본, 바인더에 붙였던 스티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들…….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5달러도 되지 않는, 하지만 감정적인 가치는 가격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만일 제프도 자신의 장난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면, 그 애가 범인인 것 같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프도 실비아만큼 화가 나있다. 나는 제프가 가여웠다. 물론 실비아나 그들의 보물들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동정이 갔다. 심지어는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우 선생님과도 분실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선생님이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가격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인데.”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다. “스테이시,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말은 듣잖니.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해주렴. 만일 이게 장난이라면 조금도 재미있지 않다고, 난 그저 내 펜을 돌려받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요.” 약속을 하긴 했지만, 선생님의 말을 전하는 것은 내일 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홍춘을 돌보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 결과로, 온 학교가 분실물들에 대해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나는 홍춘과 함께 점심을 하는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종이 울리자, 카렌이 언제나처럼 물었다. “그래서,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야?”

우리의 점심에 홍춘을 포함시켜야 했다. “어디서 먹고 싶니?” 내가 홍춘에게 물었다.

같이 점심을 먹자는 말에, 홍춘은 놀란 듯 했다.

홍춘이 수줍게 대답했다. “아무데나, 잔디가 있는 곳에서.”

“참나무 밑에 앉아서 먹자.” 내가 제안했다. “그들이 있으니까.”

학교 앞 잔디밭에는, 머큐리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거대한 뿌리에, 나뭇가지들은 내 허리만큼 두꺼웠다.

점심 도시락 가방에서, 홍춘은 파배기 모양의 짜디짠 중국식 도넛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두툼하고 땅딸막한 작은 플라스틱 보온병을 들고 있었는데, 홍춘이 자신의 도넛을 거기에 담았다가 한 입 베어 물 때까지, 나는 그 안에 차가 들어 있는 줄 알았다.

보온병 안을 힐끗거렸을 때, 거기에 집에서 만든 쌀죽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죽 먹고 있는 거야?” 내가 말을 붙여 보려고 물었다.

“우리는 쌀죽을 초라고 불러.” 홍춘이 내 말을 바로 잡았다.

“어쨌든, 우리는 죽이라고 불러.” 내가 설명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지방 사투리가 홍춘만큼 능숙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에서 살았었어.” 홍춘이 도넛으로 죽을 휘휘 저었다. “나무가 보고 싶으면 공원으로 가곤 했어. 등산을 좋아했거든.”

“예전에는 이곳이 모두 나무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 어렸을 때는 다람쥐처럼 나무를 잘 탔지.” 나는 홍춘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홍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에 잠겨 나를 쳐다보는 게 마치 무언가 다른 말을 찾아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홍춘과 내가 조금은 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점심을 조금 맛 본 홍춘은, 우리 아빠가 토끼풀 점심을 만들어 주었다는 내 생각에 동의했다. 점심을 먹는 내내, 카렌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먹고만 있었다. 카렌이 두 번째의 열량 높은 샌드위치를 집어 들자, 홍춘의 두 눈이 커졌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홍춘이 나무랐다. “건강에 좋지 않아.”

카렌이 보란 듯이, 반 남은 샌드위치를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좀 예의 있게 가르쳐주지 그래.”

나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홍춘이는 다른 습관을 가진, 다른 문화권에서 왔어.”

카렌이 상처받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지금은 미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식 매너를 배워야지. 예를 들자면, 애들이나 하는 머리끈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지.”

홍춘의 한 쪽 손이 자신의 스누피 머리끈으로 올려졌다. “이게 뭐가 어때서.”

평소라면 누가 상처 주지 않는 한, 카렌은 아주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한다. “그건 다섯 살짜리 어린애나 하는 거야.”

“무례하게 굴지 마.” 내가 카렌에게 말했다. “홍춘이가 우리의 유행을 모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놀리면 안 돼.” 나는 마치 우리 엄마처럼 말을 했다.

카렌이 화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일어섰다. “어쨌든 애가 먼저 시작한 거야.”

“화난 채로 가지 마.” 내가 달랬다.

“난, 지금 너랑 같이 있는 사람이 싫어.” 카렌이 어깨 너머로 얘기하고는 가버렸다.

홍춘이 한쪽 손을 자신의 뺨은 머리에 갖다 대었다. “미리 얘기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나중에 말 하려고 했었어.” 상추 한 입을 더 씹으며 내가 말했다. “나한테 쓸 만한 머리 고무줄이 좀 있어.”

홍춘이 머뭇거리다가 손을 내렸다. “아니야, 오늘은 그냥 이걸로 하고 있을래.” 홍춘이 위엄 있게 말했다.

내가 도시락 통의 뚜껑을 닫았다. “내 말 들어봐. 같이 휴게실로 가자. 그리고 머리 다시 하는 걸 도와줄게.”

홍춘의 한쪽 손이 뺨은 머리 한 쪽을 계속 잡고 있었다. “아마 여기서, 머리 장식

같은 건 굉장히 싼 물건이겠지. 하지만 이건 우리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야. 할머니는 이게 여기 미국 여자 애들이 하는 거라고 들으셨어. 우리가 아직 중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이것 구하셨어.”

“너희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구하신 거야?” 내가 다정하게 물었다.

“그건 모르겠어.” 홍춘이 말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홍콩으로부터 들어와서, 북경까지 다시 오는 거야.”

홍춘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그 애가 그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우월감을 느꼈던 것에 대해 조금 부끄러웠다. “미안해.”

“타이포우 할머니가 있어서, 너는 참 좋겠다.” 홍춘이 아쉬운 듯이 말하고는 덧붙였다. “나도 미안해.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는 달라. 나쁘게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태도만 약간 굽히면, 홍춘이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다. “배우게 될 거야.”

홍춘이 눈길을 돌렸다. “어떤 때는 너무 혼란스러워. 아빠는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자신이 바뀌고 나면 더 혼란스러워 질 거 같아.”

“분명 무서울 거 같아.” 내가 동의했다.

홍춘이 머리를 조금 떨구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너를 만났지. 너는 내가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 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그리고 나는, 우월한 듯 행동한 것은 바로 그 애였다고 생각했었다. 아마도 우리 둘 다 그러했을 것이다. 사물함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서, 카렌을 포함해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내가 카렌을 부르려고 했을 때, 그 애는 그저 나를 노려보기만 했다. 카렌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다.

한숨을 내쉬며, 나는 사물함 앞에 쪼그려 앉아 문을 열었다. “내거 좀 빼도 돼?” 홍춘이 묻고는, 내가 비켜주자 자신의 조그만 가방을 사물함에서 꺼냈다. 그 애가 가방을 들어 올릴 때 무언가가 바닥으로 쨍그랑하고 떨어졌다.

“너 뭔가 떨어뜨렸어.” 카렌이 재빨리 상체를 굽혀 그 물건을 주워들었다.

“잠깐만.” 내가 카렌에게서 그걸 받아들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나는 홍춘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홍춘이 자기 백 팩을 내려다보고는, 어리둥절해 했다. “몰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물건을 들어 올렸다. 그것은 바로우 선생님의

만년필이었다. “내가 훔친 거 아냐.” 홍춘이 분명히 말했다. “내가 훔친 게 아니라고.”

우리 바로 옆 사물함을 쓰고 있는 실비아가 홍춘의 가방을 껍 잡아챘다. “내 가방이야!” 홍춘이 울부짖었다.

홍춘이 저지하기도 전에, 실비아가 가방 안으로 손을 찔러 넣고는 태엽 캔거루를 끄 집어냈다.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제프가 모여 있는 사람들을 뚫고 다가왔다. “야, 이걸 내 장난감이잖아!”

실비아가 다시 백 팩에서 토끼 발을 꺼냈다. “왜 내 행운의 부적이 여기 있지?”

다른 애들이 백 팩을 뒤지기 시작하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홍춘이 뒷걸음을 치다가 사물함에 부딪혔다.

나는 급히 홍춘에게로 다가갔다. “어떻게 이 물건들을 네 가방에 넣은 거야?”

홍춘은 몸을 웅크려, 어깨는 올리고 양쪽 팔꿈치를 자신의 몸 쪽으로 꼭 붙였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누군가 그것들을 내 가방에 넣은 게 분명해.”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홍춘이 분개하며 경직 되었다. “너 지금 내가 그것들을 훔쳤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누가 그랬겠어?” 실비아가 홍춘의 대답을 요구했다. “네 가방이잖아.”

“아냐, 내가 아냐. 제발! 내 말을 믿어 줘.” 홍춘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난 도둑이 아니야!” 홍춘이 너무나 흥분하자, 말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애는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카렌이 자신의 주먹을 엉덩이 위에 얹었다. “스테이시 네 새 친구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거야?”

“난 도둑이 아니야.” 홍춘이 복도를 달려 내려가며 말했다. 우리는 홍춘이 재빨리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았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홍춘이가 눈치는 없을지 모르지만, 도둑은 아니야.”

“결백하다면 왜 도망간 건데?” 실비아가 자신의 토끼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었다.

“어쨌든 훔친 물건들이 개 가방에 있었잖아.” 제프가 지적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래도 난, 우리가 그 애를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반박했다. “윤리 과목에서도, 유죄가 입증 될 때까지는 결백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했잖아.” 격분한 실비아가 두 팔을 벌렸다. “너는 절대 그 애를 변호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만일 그 애가 훔친 게 아니라면, 범인은 네가 돼야 하니까. 훔친 물건들이 네 사물함에 있었잖아.”

“난 네 토끼 발이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그렇지.” 실비아가 인정했다. “네가 왜 그 애의 편이 되어야만 하는 지 알거 같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당혹해 하며 물었다.

실비아가 자신의 토끼 발로 나를 가리켰다. “난 한 번도 너를……, 중국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지금까지는.”

“그게 이 일이란 무슨 상관이야?”

“왜 하필 그 애를 변호하고 있는 거야?” 실비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난 네가 내 친구라고 생각했어. 만일 그 애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너도 개가 훔쳤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지금 나에게 맞서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편을 들고 있어. 단지 그 애가 너처럼 중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래서 안됐다. 그건 중국이 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다르게 불리는 게 싫기 때문이었다. “나는 너랑 같아.” 내가 주장했다.

토끼 발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비아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너는 단지,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했을 뿐이야. 아니면 누가 네 친구인지 그리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야만 해.”

나는 실비아와 같이 자랐고, 이학년 때부터 그 애를 알았다. 언제나 나는, 그 애가 나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실비아가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것이, 내게는 충격이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미국에서는, 네가 누구이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한 남자 애가 내 뒤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툭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봤어? 재는 진짜 혼혈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도둑을 도우려고 노력할 리가 없어.”

다른 때라면 아마, 그 모욕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비아의 비난이 이미 나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지금은 너무 화가 치밀어 핵 뒤돌아보았다. “누가 말했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남자애가 두 손을 들었다. “나 아냐.”

“누구든, 바보 같은 놈이 한 얘기야.” 제프가 말했다. “신경 쓰지 마.”

그렇지만 말은 이미 내 뺨에 닿았고, 상처를 준 그 말은 결코 도로 거두어지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애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꽤 많은 아이들과는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다. 지금은 생소해진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로는 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진짜 나의 친구가 있기는 할까?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어디 가니, 스테이시?” 카렌이 슬프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교실은 다른 방향이야.”

“다른 걸 먼저 찾아야 해.”

나는 만년필을 주먹 안에 꼭 쥐고 걸었다. 보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빨라졌다. 카렌이 나를 따라 잡았다.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 나와 보폭을 맞추기 위해 헐떡거리며, 카렌이 말했다.

나는 감사의 뜻으로 카렌에게 미소 지었다. 오랜 친구인 카렌만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청소부들의 사물함이 있는 곳을 향해 가면서, 나는 마치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세계의 경계로 발을 옮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 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 된 것들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 장면을 돌리고 돌렸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부끄러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학교를 가로질러 가는 내내, 나는 기괴한 쇼에서 도망가는 있는 나에게 아이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는 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생각 됐다. 그런 의혹들 때문에 금방 미칠 것 같았다.

청소부들은 아직 그들의 사물함 옆에 있었다. 나는 바로 빅터 리에게로 걸어갔다. “통총이 무슨 뜻 이예요?” 흥춘이 나에게 썼던 단어를 반복했다.

“뭐라고?” 빅터가 의아해 하며 물었다.

내가 다시 얘기 했을 때, 빅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통총’ 말이구나.” 그가 성조를 고쳐 말했다. “누가 이 말을 했니?”

“누가 했든 상관 하지 마세요. 무슨 뜻 이예요?”

난쟁이인 왕이 거만하게 팔짱을 껴다. “너는 네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우리한테 아주,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왕의 말에 깜짝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도 저 애들 중 하나처럼 걸어 다녀.” 왕은 손을 들어 지나가는 백인 학생 몇을 가리켰다. “하지만 너는 재들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우리들도 아니야.”

빅터가 난장이를 팔로 쿡 쳤다. “조용히 해.”

나는 빅터와 난쟁이 사이에 팔을 들이 밀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내가 난쟁이에게 말했다.

“알고 싶지 않을 거야. 네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빅터가 재촉했다.

나는 빅터의 안경에 비친 나의 작고 일그러진 모습을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그건 ‘잡종’이라는 뜻이야.” 난쟁이가 만족스러워 하는 말투로 그 뜻을 통역했다.

“말 그대로 하면…….” 빅터가 말하며 도움이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진짜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 나는 팔을 내렸다. “영어로는 혼혈이지. 중국어로도 영어만큼 모욕적인 말이야?”

“조금 더.” 빅터가 말했다. “미안해.”

“우리 모두가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말하고는 돌아섰다.

## 4장

나머지 시간 내내, 나는 학교를 마치 꿈속에 있는 듯이 걸어 다녔다. 시끄러운 벨소리조차 그 주문을 깰 수는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낄낄거리는 것처럼 생각 됐다. 아무 뜻 없는 몇 마디 대화에서조차,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혼혈....., 그 말이 뼈격거리는 바퀴처럼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평생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작은 환상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지나치게 중국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만일 내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운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지나치게 미국인처럼 보일 것이었다. 분명히 누군가는, 난쟁이처럼 나를 잡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수업시간은 나에게 재앙이었다. 나는 계속 수업에 집중하는 듯이 행동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과서를 펴면, 나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는 칠판을 쳐다보고 있는 척 했지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쓰고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역사수업시간이 올 때까지는, 간신히 대부분의 시간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수업 중간쯤에 나는 어렴풋이 김슨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손가락들 사이에 분필하나를 쥐고서, 칠판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걸까? 이건 꿈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들이 진짜 일리가 없기 때문에..... 나는 힘을 들여

내 입술을 움직였다. “네?”

“왜 마그나 카르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조바심 내며 말했다.

보통은 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선생님은 나에게 대답하도록 시킨다. 역사과목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 중에 때때로 김슨 선생님과 나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농담을 즐기는 공모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내 주위를 둘러싼 모두의 얼굴이 나를 뚫어지고 보고 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다. 모두들 나의 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나는 선생님을 쳐다보며,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질문해달라는 무언의 부탁을 했다.

하지만 김슨 선생님은 집배원의 맛있어 보이는 다리에 이빨을 박아 넣은 불도그 같았다. “저번 시험에서 아주 좋은 답을 썼었잖아.”

나는 내 자신이 투명인간이라도 되길 바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모두의 능글맞고 고소해 하는 눈길을 느꼈다.

“여기, 여기.” 선생님이 분필로 칠판을 탁탁 쳤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얼굴에 어릿광대의 마스크를 덮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마스크는 나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아냈다.

“모르겠어요.” 모든 일들이 빨리 끝나길 바라며 내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선생님은 칠판을 떠나, 책상들 사이의 통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무슨 문제 있니? 어디가 아픈 거야?”

선생님의 관심을 나에게서 떼어내려 노력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저는 괜찮아요.” 내가 확고하게 말했다.

“너 답지가 앓구나.”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제발, 제발, 제발, 그냥 다른 애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마치 내가 자신의 머리를 뜯어내려고 하는 악어인 것처럼, 나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선생님이 뒤로 물러섰다. “베벌리.” 선생님이 나에게 눈길을 고정시킨 채로 베벌리에게 말했다. “스테이시 좀 도와주겠니?”

선생님이 베벌리를 시켜 나를 양호실로 데려가도록 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겁에 질렸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지 베벌리가 나에게 답을 말해 주길 원했을 뿐이었다. 베벌리가 더듬더듬 설명을 해 나가자, 다행히도 선생님은 나에게서 돌아 섰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눈길을 거두었다.

마지막 종이 칠 때까지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종이 울리자, 마치 로켓처럼 빠르게 교실을 빠져 나왔다. 가방은 이미 등에 매고 있었으므로, 나는 곧장 집으로 향할 수 있었다.

“스테이시, 기다려.”

돌아서자, 카렌이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 애의 뒤로 다른 아이들이 밀물처럼 교실에서 빠져나오는 광경도 보였다. 나는 절대 그 무리의 중간에서 잡혀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걸었다.

“나 좀 봐.” 카렌이 헉헉 거렸다. “집에 갈려고? 나는 네가 실비아 네랑 놀러 갈 거라고 생각 했는데.”

정말이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화약 상자위에 앉아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다.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다가, 잘 못 들이마신 깊은 숨 한 번에도, 잘못 움직이면 학교 전체가 폭발 할 수 있었다. “뭘 좀 생각 할 게 있어서.....”

카렌이 자전거에서 몸을 세워, 두 팔을 돌려 백 팩의 어깨끈에 쫘다. “나도 그래.” 카렌이 서둘러 말했다. “같이 걸어가자.”

“그래 좋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는 손가락 하나를 내 입술에 갖다 대었다.

카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치 입에 지퍼를 닫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그었다. 그리고는 약속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옆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밀며 보조를 맞추었다.

드디어 우리의 집에 도착 했을 때, 카렌은 자신의 멍세를 깨며 입을 열었다. “숙제 같이 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았니?”

나는 흥춘을 찾아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 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흥춘을 돌보는 것은 내가 위해서 시작 한 게 아니었다.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일이었다. 어쨌든 그 애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카렌 네 잔디밭을 지나가며, 나는 길게 자란 풀들이 내 발목을 잡고 당기는 것을 느꼈다. 현관에 서니, 문 뒤에서 나는 엄청나게 큰 텔레비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카렌이 허둥대며 주머니를 더듬거렸다. “나 열쇠를 잊어버렸나 봐.” 카렌은 말하고 나서 현관 벨을 뺀히 보았다.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말하네.”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셔. 아빠는 정리 하고 되셨고, 엄마는 야간 근무를 하고 계셔.”

나는 카렌이 자기 엄마를 깨울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너 네 엄마,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지?”

“아……, 아니야. 보통은 오후가 되기 전에는 일어나서.” 하지만 여전히 카렌은 현관 벨을 응시하고만 있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도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카렌의 얼굴에 나타난 괴로운 표정을 보고는, 나는 현관 벨을 누른 걸 후회했다.

퍼스키 아저씨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우리를 노려보았다. “들었어, 들었다고.” 아저씨는 셔츠 칼라의 단추를 풀고 그 위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있었는데, 마치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 모형 같았다. 양복바지는 입고 있었지만, 아저씨의 발은 맨발이었다. 한 때는 아저씨도 콧수염 없는 찰스 브론슨처럼 남성답게 잘 생겼었겠지만, 지금은 늙은 불도그를 더 닮아 있었다.

아저씨의 뒤로 큰 소리로 게임을 틀어놓고 있는 텔레비전이 보였다. 폭신한 안락의자의 맞은편에는, 전자레인지에 덥힌 음식이 놓여 있는 텔레비전 테이블이 있었다.

카렌네 가족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동안 잊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려고 애썼다. “안녕 하세요, 퍼스키 아저씨.”

아저씨가 나를 무시하고는 카렌을 노려보았다. “무슨 일이야? 바보 녀석. 또 열쇠를 잊어버린 게냐?”

카렌은 결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이였는데, 나는 아저씨가 그 애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왜 그런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저씨랑 다투어 봤자 좋을 게 없었다.

카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그맣게 구겨진 모양이 되었다. 나는 카렌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었다. 아저씨를 지나쳐 지나가는 카렌의 뒤에서 내가 미소를 지었다. “저희가 방해가 된 건 아니죠?”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 퍼스키 아저씨는 더 혼란스러운 듯 보였는데, 그건 마치 아저씨가 사람들을 자기 집의 현관에 붙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잘 알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저씨가 우리 뒤에서 쿵 하고 문을 닫았다. 재미있게도 나는, 흥분해서 지껄여대는 스포츠 아나운서의 목소리 위로 바이올린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바보 같은 벨크로 신발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신발 끈도 못 매니까요.”

퍼스키 아주머니는 아저씨의 안락의자로부터 오 피트 정도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오로지 또 다른 텔레비전 수상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두 개의 텔레비전은 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가 컸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내가 소리쳤다.

퍼스키 아주머니는 나를 향해 축 늘어진 손을 들었다가 무릎위로 도로 떨어뜨렸다. 카렌의 부모님은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적었다.

카렌의 집은 우리 집과 구조가 같았다. 카렌이 나를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자신의 방을 향해 어두침침한 복도를 내려갔다. 일단 우리 뒤로 방문이 닫히자, 카렌이 몸을 쪽 펴고 밝게 웃었다. 어찌다가 카렌이 미소를 지을 때면, 웃는 모습이 꽤 예뻐다. “네가 와서 정말 좋다.” 카렌이 말하고 나서, 작은 흑백텔레비전을 켰다. 바로 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바이올린 소리가, 그 애의 부모님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만큼 크게 울려 나왔다. 가족 모두가 귀머거리가 아닌 게 신기했다.

“소리 좀 줄여 줄래?” 내가 소리 질렀다. 그리고 볼륨 다이얼을 돌리는 시늉을 했다.

카렌이 겨우 내 말을 알아듣고는 텔레비전 쪽으로 가서 소리를 줄였다. 침대에 앉으면서, 나는 가벼운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며 물었다. “홍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카렌은 자신의 정수리를 긁었다. “개는 우리랑 달라.”

“그 애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내가 용기 내서 물었다.

“개는 너무 이상해.” 카렌이 이마에 주름을 만들어, 자신의 아빠와 닮은 혼란스럽고 불도그 같은 표정을 만들었다. “나는, 우리가 같이 숙제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내가 말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나란히 앉아 숙제를 했다. 마지막 책을 덮고, 나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폈다. “다 했어.”

카렌은 진심으로 나와서 헤어짐이 괴로운 듯 보였다. “안 갈 거지, 그렇지?”

나는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멀리 차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카렌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친구였다. 만일 내가 하루 저녁을 내내 그 애와 같이 보냈다고 해도, 그 애는 또 다른 하루를 더 요구할 것이다. 내가 왜 그 애의 집에 오는 걸 멈추었는지가 기억나기 시작했다. “집에 가야 해.” 내가 말했다. “밥 해 봐야 돼.”

나는 카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가방을 매고 있을 때 그 애는 그저 착하게 보고만 있었다.

카렌은 계단 까지는 나를 배웅해 주었지만, 부모님이 있는 거실까지는 내려오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퍼스키 아저씨는 채널 11을 틀어 놓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채널 8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두 명의 아나운서가 마치 서로 소리 지르기 대회를 열고 있는 것 같았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현관 쪽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두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둘 다 대답이 없었고, 나는 그 집을 떠나는 것이 기뻐했다. 카렌의 집에 사는 것은 마치 번개구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하늘을 보고,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됐음을 알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는, 나도 엄마 아빠만큼 잘못이 있었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죄책감은 분노로 변했다. 집 통로에는 엄마나 아빠의 차 모두 없었다. 무언가 우리 가족의 식사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진작 알았어야 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결국에는 부모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게 했는지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그 애를 위한 변명을 할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다.

엄마는 아마도, 만일 홍춘이 도둑이라고 해도, 그 애가 보석이나 집안의 은제품을 훔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할 것이다. 없어진 물건들은 그 주인들 말고는 누구에게도 값어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홍춘이 도둑이었다고 해도, 나는 그 애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바로우 선생님의 말처럼, 그 애가 가져간 각각의 물건들이, 그 주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다. 그러

니까 그 애가 흠친 것은 그 사람들의 작은 마음조각들이었다. 눈 감아 주기에는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내가 타이포우 할머니 방으로부터 복도 너머로 퍼져 나오는 텔레비전의 총소리를 들을 때 까지, 우리 집은 흐릿하고 조용하기만 했다. 좀 더 많은 총소리의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서로 화난 중국어로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작고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는 우리 집의 자동응답기로 갔다.

메시지 하나는 엄마의 사촌인 팜 이모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팜은 무언가 원하는 게 없으면 절대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좋지 않은 조짐이었다. 과연 그랬다. 두 번째는 아빠였다. 아빠의 목소리 뒤로 프린터가 종이를 내 뱉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조립공정에 큰 문제가 생겼단다. 로봇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왕 아저씨와 나는 같이 저녁을 먹을 수가 없겠구나, 미안하다.”

미리 예측하고 있었어야 했다. 가족으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면, 늘 무슨 일이 생기곤 했다.

다음 것은 엄마에게서였다. “좀 늦겠구나, 애야. 인텔 사장에게서 호출이 왔는데, 내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어. 아마도 그 회사의 새로운 인사 시험 만드는 걸 도와야 할 것 같아.”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인텔은 거대 실리콘 칩 회사였으므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들렸다.

다른 메시지들은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메모지에 그것들을 간단히 적어 내려갔다. 자동응답기를 처음으로 돌려놓고, 전기밥솥을 힐끗 쳐다보았다. 엄마가 작동버튼만 누르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나는 흥춘이 자기 엄마에게 저녁식사 약속이 없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 집으로 간 것을 떠올렸다.

부모님에게는 오늘도 역시 평소처럼 바쁜 하루 그리고 밤일뿐이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도망갈 수 없음을 우리 부모님도 진작 알았어야만 했다.

전기밥솥을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위층의 찬 그늘이 내 주위로 다가왔다. 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침대위에 앉았다.

내 방, 내 침대위에서 나는 내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그건 바로 캠프파이어 불 속에서 금방 꺼낸 감자 처럼 뜨거운 생각이었다. 너무 뜨거워서 계속 한 손에서 또 다른 한 손으로 던지고 있지만 버릴 수는 없는……. 그 생각은……,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모든 대답이 나로 하여금 그 어디에도 머물 수가 없게 했다. 마치 중간지대로 떨어진 것 같았다.

단지 그곳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없었고, 끝났다고 말 해주는 프로그램 진행자, 로드 설링도 없었다. 그것은 대본도 없이 회가 계속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역할이었다. 그런 척 가장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동안, 나는 직소퍼즐의 중심 조각으로서, 내가 편안하게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온 세상이 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사실 나는 밑바닥에 있었다.

## 5장

우리 집의 위층 나의 방에서, 나는 다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웅크리고 있었다. 꼬르륵 거리는 배가 나에게 요깃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는 있었지만, 어쩐지 전혀 식욕이 나질 않았다.

현관 벨이 울렸을 때, 나는 두 팔로 온 몸을 감싸 안으며 공처럼 몸을 웅크리려 애썼다. 다시 벨이 울리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만일 내가 나가지 않는다면 할머니가 내다봐야 할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복도로 발을 내딛었다. 시간을 끌며 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방문자가 그대로 가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끈질기게 벨을 누르며 우리를 불러대고 있었다.

방문객에 대한 온갖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떠돌았지만, 낯선 택시기사의 등장은 생각지도 못했었다. “무슨 일이시죠?”

“다행히도 영어를 할 줄 아는군요.” 택시기사가 말했다. “통역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왕 아주머니가 택시기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나를 보고 몹시 안심한 듯이 보였다. “스태이--시?” 아주머니는 한 손에는 이십 달러짜리 지폐를, 다른 한 손에는 말발굽 모양 장식이 있는 핑크색의 지갑을 흔들며, 많은 중국어를 한꺼번에 쏟아냈다. 두 사람의 뒤에는 노란 택시가 시동이 켜진 채 도로위에 세워져 있었다.

택시기사가 듬성하게 남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 아주머니에게 계속 이십 달러를 거슬러줄 잔돈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왕 아주머니는 이십 달러짜리 지폐를 택시기사의 손에 찢어 넣으려고 했다. 우리 둘 다 왕 아주머니가 하는 중국어를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자신이 화가 나 있음을 확실히 했다.

“요금이 얼마죠?” 내가 물었다.

“그러니까, 요금은 사달러 팔십 센트인데…….” 택시기사가 대답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늘 조금씩 더 주기는 하거든요.”

“돈 가지고 올게요.” 나는 부엌으로 뛰어가, 엄마가 급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둔 돈이 들어있는 서랍에서 육 달러를 들고 돌아왔다.

택시기사는 고맙다고 웅얼거리고는 황급히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기사 아저씨가 지나가자,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그를 향해 계속해서 이십 달러 지폐를 흔들더니, 택시기사가 차를 탄 이후에는 나에게 그 돈을 주려고 했다.

다행히도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가 광둥어로 무언가 얘기 했지만, 아주머니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머니의 손목을 쥐고는, 고집스럽게 그 돈을 다시 아주머니의 말발굽 무늬 지갑으로 집어넣도록 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분명, 두 사람이 서로 레슬링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재미있어했을 것이다. 나는 엄마가 식당 계산서를 두고, 자신의 사촌과 몸싸움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다. 한번은 진짜로 엄마와 팜 이모가 서로 한 쪽씩 쥐고 당기는 바람에 수표가 반으로 찢어지기도 했다. 나는 예의바르고 잘 차려입은 전문직 여자 둘 중에 하나가 그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어깨조차 탈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중에 내가 그 일에 대해 묻자, 엄마는 나에게 중국인들이 서로 계산하겠다고 다투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주머니와 타이포우 할머니 사이의 싸움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좀 더 젊고 힘이 센 왕 아주머니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할머니로 말하자면 이런 싸움의 백전노장으로서 온갖 전술을 다 가지고 있었다. 고질라와 더 큰 고질라의 싸움처럼, 할머니는 쉽게 왕 아주머니를 이겨 버렸다. 결국 그 싸움은 왕 아주머니가 계속 불만을 토해내는 한편, 지폐를 도로 자신의 지갑에 집어넣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 예비경기가 끝나고 나자,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집안으로 뒷걸음질하며, 나는 아주머니에게 들어오라는 제스처를 하며 예의바르게 물었다. “들어오시겠어요?”

할머니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오며, 아주머니는 할머니와 내게 물었다. “홍춘이는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크고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홍춘을 불렀다. “홍춘?” 아주머니는 왼쪽으로 돌아서며 다시 한 번 큰소리로 홍춘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팔에 손을 대자, 아주머니가 빙글 몸을 돌렸다. “홍춘이 아직 집에 안 왔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불안하면서도 겁에 질린 중국어가 내 바로 옆으로 흘러 나왔다. 현관문을 닫으며 할머니가 광둥어로 무언가 얘기했지만, 광둥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안정시킬 수는 없었다.

잠시 두 사람을 뒤에 남겨둔 채로, 아빠의 서재로 갔다. 내가 서재에 들어간 걸 알면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만, 위급상황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 방은 전형적인 아빠들의 서재로, 튼튼하고 실용적인 금속 책장과, 아빠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할아버지가 만드신 두꺼운 송판의 책상이 있고, 책상 위쪽에는 아빠가 명상의 목적으로 걸어놓은, 카우보이 팀을 누르고 자신의 홈 팀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즈를 첫 번째 슈퍼볼로 이끈 수비수의 이야기를 다룬 'The Catch'의 주인공인 드와이트 클락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은 엄마와 외할아버지인 바니의 사진이었다.

오래 된 형광등을 켜다. 자세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것 또한 아빠의 고등학교 시절만큼 오래된 것이리라. 아빠는 무엇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 그 등 옆에는 싸구려 카메라로 찍은 네모난 사진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들이었지만, 늘 스포츠머리를 하고 통통한 모습의 고등학생이었던 아빠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 사진들이 완전히 퇴색하기 전에 빨리 재촬영을 해야만 한다고 중얼거렸다.

주소록이 들어 있는 아빠의 플로텍스가 컴퓨터 모뎀 옆에 있었고, 플로텍스안의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왕 아저씨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아빠가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한 후로는 주소록을 손으로 직접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의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오래지 않아 내가 찾고 있던 왕 아저씨의 사무실 번호가 들어있는 파일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전화기의 버튼을 누르자 전화가 울리고 왕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저씨의 목소리는 몹시도 당혹스럽고 성급하게 들렸다.

아저씨는 아빠와 같은 업무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왕 아저씨, 아주머니가 여기 계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어요. 통화 좀 해보시겠어요?”

“물론이지, 아주머니를 바꿔주렴.” 아저씨가 조금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재 입구에서 나는 복도 아래쪽을 향해 소리쳤다. “할머니, 여기로 왕 아주머니 좀 모시고 오실래요? 지금 아저씨랑 통화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통역 해 주실 거예요.”

다음 순간 할머니가 왕 아주머니를 이끌고 복도로 들어왔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서재로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고, 수화기를 들고 자신의 남편임을 확인한 아주머니는 조금 더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전화에 대고 아주머니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딸을 위해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를 받으라고 나에게 손짓했다.

내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아저씨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아주머니가 홍춘을 위해 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홍춘이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 집에 있니?”

“아뇨,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저씨의 목소리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그럼, 어디 있는 거니?”

나는 불안해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를 힐끔거렸다. “홍춘이가 펜과 장난감 그리고 토끼 발을 훔쳤어요.” 그까짓 도난품들 때문에 누군가를 고자질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어째서, 내 딸이 그런 하찮은 물건들을 훔치겠니?”

아저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났다. “저도 몰라요 아저씨, 하지만 그 물건들이 홍춘이가 방에서 발견됐어요.”

오랜 침묵 끝에 아저씨는 길게 그리고 천천히 한숨을 내 쉬었다. “미안하구나.” 사과 의 말을 하는 게 아저씨에게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 미심쩍었다. “어떻게 홍춘이가 학교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말했다. “아주머니랑 나는 홍춘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걱정스러웠단다. 중국에서는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인기 있는 아이였단다. 친구도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오는 것이 그 애에게는 힘든 일이었을 거야.”

아저씨에게 왜 홍춘이 나를 잡종이라 부르며 모욕했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저씨는 완전히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알마텐에는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리는 네가 그 애랑 친구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단다. 너희 둘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랐어. 아주머니를 다시 바꿔주겠니.” 아저씨가 부탁했다.

내가 전화를 내밀자 아주머니가 받았다. 아주머니가 몇 마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저씨가 말을 막은 듯, 중간에 멈췄다.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더듬거리며 끼어들려고 했지만, 아저씨가 엄하게 아주머니를 질책하고 있었다.

마침내 타이포우 할머니가 불쌍한 아주머니에게서 수화기를 뺏어들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스터 왕, 스테이시 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아저씨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당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홍춘이를 찾아야 해요. 그 애가 갈만한 데를 아세요?”

잠시 후, 할머니는 왕 아주머니에게 다시 아저씨와 통화를 하도록 했다. 아주머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적인 의논을 시작한 걸로 보아, 아저씨가 이성을 찾은 듯 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넘겼다.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뇨, 물론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 애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찾을 거예요.” 아주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넘기고 나서,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차이나타운에서 일하는 아저씨의 사촌이 있다는 구나. 홍춘이가 거기로 갈려고 했을 거래. 하지만 왕 부인은, 홍춘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 기다려야 해.”

아주머니가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주소를 불러주며 나에게 적도록 했다. 그런데 아빠의 서재에 있는 모든 연필은 부러져 있고, 펜들은 잉크가 말라버려,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 주소를 되풀이해서 말해야 했다. 만일 아빠가 뭔가를 컴퓨터 안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필기도구를 사용할 이 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아빠의 책상 서랍에서 짧은 몽당연필 하나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그 주소를 메모지에 휘갈겨 썼다. 다 쓰고 나자, 할머니는 나에게 그 주소를 다시 불러보도록 했다. “제대로 썼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왕 부인이 통화를 마치면 택시를 하나 불러다오.”

내 눈이 휘둥그레 졌다. “샌프란시스코까지 택시로 가시려고요? 택시비가 엄청날 텐데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먼저 왕 부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지. 그리고 나서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거야.”

“그 애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물었다.

“그곳이, 그 애가 아는 사람이 있는 유일한 곳이야. 그리고 왕 선생 말이 홍춘에게 너랑 같이 쓰라고 돈을 줬다는 구나.”

여전히 할머니 혼자서 길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불안했지만, 할머니가 이토록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 혼자 시내로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주소를 적어놓은 메모지를 접었다. 할머니는 아마도, 만일 자신이 외위둔 주소를 잊어버리면 길가는 사람에게 메모지에 있는 주소를 읽어달라고 할 생각인 것 같았다. “나는 길을 알지만, 홍춘이는 모르고 있잖니, 그 애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해 보렴.”

한편으로는 나를 인간이하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둑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 애가 도둑질을 했어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 애는 완전히 혼자이었잖니.” 할머니가 지적했다.

그것은 마치 나로 하여금 적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 적을 용서하고 구해내라는 궁극의 시험과도 같았다. 그렇지만 홍춘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무슨 짓을 했든, 할머니 혼자서 먼 길을 떠나게 할 수는 없었다. 나 역시 할머니만큼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했다. “저도 같이 가요.”

그때, 엄마의 짜증난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스테이시 어디 있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저러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는 우리가 있는 쪽을 향해 복도를 올라오면서 계속 말했다. “아까 오후에 아빠랑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네가 홍춘이에게 못되게 굴었다면서?”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내가 알아낸 거야.” 엄마가 대답했다. 아빠가 나를 감싸려고 할 때면, 엄마는 곧잘 이런 식으로 사실을 캐내곤 했다.

엄마가 방문 쪽으로 들어 닥치자, 할머니가 나를 자신의 뒤로 당겼다. “지금 바로 왕 부인을 집으로 모셔갈 수 있겠니?” 할머니가 재빨리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부인을 내려 줘야해.”

겨우 예의를 차려 왕 아주머니에게 가벼운 미소로 인사하고 나서, 엄마는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내려주다니요? 어디 가지게요?”

할머니가 내 쪽을 가리켰다. “홍춘이 학교에서 뭘 좀 훔쳤어, 아마 장난으로 그랬겠지. 그리고 지금은 도망가 버렸어.”

내가 아주머니의 뒤통에서 통화를 마친 전화기를 받아 들었다. “맞아요.”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았다. “진짜니?”

나는 턱과 어깨사이에 가볍게 전화를 끼고 411을 눌렀다. “그 애가 훔친 물건들을 갖고 있는 걸 봤어.”

“네가 본 게 어떤 것들이었는데?” 엄마가 심각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전화 신호음이 울리자, 나는 천천히 말하면서 그 물건들을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그 애의 가방에서 펜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쳐다봤어. 그리고 다른 두 개는 그 애 가방 속에서 발견했고.”

“오늘 아침에 네가 자기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일부러 그런 것 일수도 있어.” 엄마가 말했다.

“왜 언제나 나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받아쳤다. “그 애가 먼저 무례하게 굴었을 수도 있잖아.”

“그 애는 손님이니까.” 엄마가 내 뺨을 때렸다. “네가 참았어야지.”

발신음이 끝나고, 기다리고 있던 전화번호 안내 기계가 말을 시작했다. “그 애가 나 보고 잡종이라고 말했는데도?”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 애가 그랬어?”

내 양 볼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말이 끔찍하게 부끄러웠다. 할머니와 엄마에게 홍춘이 나에게 했던 중국어를 되풀이 하고 나서 텃 붙였다. “우리들을 붙여 놓으려고 한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

“미안하구나.” 엄마가 팔을 둘러 나를 안았다. “엄마와 아빠는 네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내가 말한 중국어 단어를 듣고서, 아주머니가 북경어로 물어왔다. 그리고 엄마가 북경어로 더듬거리며 설명을 했을 때, 놀란 아주머니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나에게로 다가와 급하게 말을 시작했다.

“사과하고 계시는 거야.” 엄마가 나를 위해 아주머니의 말을 통역했다.

나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도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스스로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다. “여하간 그 애가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가 그 아이의 무지를 고쳐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엄마는 자신의 팔찌를 만졌다. 왕 아저씨 가족을 손님으로서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엄마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 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니?”

“사십 팔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찾지 않을 거야.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라는 프로그램

램에서 봤어.” 할머니가 말했다. “그 애를 찾아 봐야겠어. 그 애 할머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네가 그 아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보렴.”

내가 흥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한다고 해도, 낯선 길을 헤매게 둘 수는 없어.”

그때 전화번호 안내원이 연결되고 인사를 해왔다. “시내로 가지나요?” 안내원이 물었다.

내가 목적지를 말하고 나서 물었다. “택시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엄마가 급하게 수화기의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너는 늘 바쁘잖니.” 할머니가 말했다.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에 가 볼 시간이 없었고.”

엄마는 간신히 미소를 만들어 보였다. “제가 바쁘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가 조용히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바니가 생각이 나요, 특히 게임이 잘 풀렸을 때요. 아마 바니는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일 큰 시가를 샀겠죠, 그리고 며칠 동안은 모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짜로 주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박을 하셨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나는 언제나, 왜 엄마가 자신의 아버지랑 살지 않고 할머니랑 같이 차이나타운에서 살았는지가 궁금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물을 때마다, 엄마는 나중에 말해주겠노라고 했었다.

엄마는 뭔가 오래되고 비밀스러운 아픔을 있었던 듯, 열고도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두 입술을 꼭 다물었다. “너도 이제 알 만큼은 큰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도박 중독이었어.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할머니가 엄마를 감싸 안았다.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도박을 끊었잖니.”

“하지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죠.” 부끄러운 듯, 엄마는 팔찌의 작은 부엉이 장식을 만지작거렸다. 할머니는 자신의 친구인 제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보와 같은 모양의 장식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엄마에게 선물했다. 나는 그게 투박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는 이 장신구를 제일 좋아했다.

“최소한 나를 위해 조심하셨던 할머니는 계셨죠.” 갑자기 엄마가 머리를 흔들며 한



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인텔사의 사장님에게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 내일까지 미팅을 미루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미팅이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나는 엄마에게 이 일에서 빠질 것을 제안했다.

엄마는 마치 그 부영이 장식과, 그것을 선물한 할머니로부터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가끔은 더 중요한 일도 있는 법이죠.”

## 6장

하지만 엄마가 미팅을 연기하기 위해 통화하고 있을 때, 나는 엄마가 다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줄 알았다. 엄마는 얼굴이 벌게지고 화가 나 있었다. 통화하는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뭔가 얘기하려 했지만, 그 쪽에서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계속 팔찌의 부영이 장식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마침내 엄마가 말을 했다. “죄송해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광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가 물었다.

엄마는 힘들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이예요.” 엄마는 먼저 할머니에게, 그리고 나서 나에게 대답했다. “스테이시, 왕 부인의 주소가 어딘지 알아봐주겠니?”

나는 다시 아빠의 컴퓨터를 찾아 봐야만 했다. 재미있게도 그 주소지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로 하여금, 중국에 있었을 때 홍춘 가족의 생활이 이곳과 얼마나 달랐을 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아빠의 컴퓨터를 끄고, 나는 왕 아주머니, 그리고 머리서부터 스카프를 뒤집어 쓴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엄마가 바닥에서부터 트렁크까지 모든 옵션을 다 바꾼 자신의 차를 서둘러 닦아내고 있었다.

왕 아주머니가 차 뒷좌석의 다른 한쪽에서 타고 있는 동안, 나는 할머니가 차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차가 요동칠 만큼 세계 트렁크 문을 닫고 나서, 엄마는 내가 건네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았다. 내가 적은 곳을 보고 엄마는 얼굴을 찌푸렸다. “농담하는 거겠지.”

나는 앞좌석의 조수석 쪽으로 빙 돌아 걸어갔다. “아냐, 거기가 맞아. 어딘지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곳이 맞는다면, 차문을 잘 잠가야 할 거야.” 엄마가 경고했다.

엄마의 그 말로 인해 처음으로 나는, 홍춘의 중국생활이 사실은 그 애가 나에게 말하고자 의도했던 만큼 화려하지 못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애가 떠벌렸던 말이 떠올랐다. 이런 곳으로 온 것이, 그 애에게는 틀림없이 낙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우리를 태우고 데려간 곳은 패스트푸드 가게의 네온들이 켜져 있는 곳이었다. 갈수록 좀 더 오래되고, 작고, 낡은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꼼꼼하게 정돈된 집들도 가끔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지저분했다. 그리고 많은 집들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심지어는 ‘개조심’이라는 표지도 보였다. 우리가 탄 차가 보석보증인들과 전당포들이 들어찬 거리로 들어가자, 나는 엄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쓴 메모지에 있던 주소가 바로 이곳이야.” 엄마가 도로표지판을 가리켰다.

차가 그 표지판 아래를 지나갈 때, 나는 왜 홍춘이 미국에 대해 그토록 실망스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아파트 건물의 바깥에는, 피뢰뢰한 모습의 많은 사람들이 벽에 기대서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소변을 눌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오래된 극장도 하나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제일 빈곤해 보이는 다세대주택에서 우리가 찾던 주소를 발견했다.

“여기예요, 여기.” 아주머니가 우리 뒤에서 말했다. 아주머니가 일층의 창문들을 가리켰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모든 가구들은 마치 구세군에서 가져온 것처럼 서로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머니는 밝은 실크 조각들로 가구들의 헤진 부분을 가려 놓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열 마디도 채 하지 못했던 아주머니는, 아무래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편한지 계속 수다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는 아주머니와 함께 내렸다. “현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코트에서 열쇠를 꺼내들고, 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현관 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아주머니는 몸을 돌려 엄마의 팔을 잡았다.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가 아주머니를 안심시켰다. “따님은 우리가 찾을 거예요.”

할머니와 나는 밖에 남겨둔 채로, 아주머니는 엄마를 팔을 붙잡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엄마와 아주머니의 뒤로 문이 닫히자, 나는 타이포우 할머니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했다. 우습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는, 할머니 스스로에게 말을 하듯이

대답했다. “아주, 아주 무서웠지.”

나는 좌석등받이위로 두 팔을 올렸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머리를 시트에 기댔다. “골반이 나빠지기 시작한 최근 몇 년 동안만.” 필립 종조부 얘기를 할 때면 늘 그렇듯이, 할머니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 네 종조부인 필립은, 내가 옛 고향 친구의 집으로 거주길 원했지. 그 많은 옛날 물건들이라니! 그래서 필립에게 날 혼자 내버려 두라고 했지. 혼자 살아가려고 했어. 필립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집 울타리 장식이 내 오래된 물건들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

엄마가 아빠에게 말해, 두 사람의 침실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올 때까지, 할머니는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했다. 그 때 부모님이 할머니 때문에 다투었던 것이 떠오르자, 나는 자동차 시트커버의 늘어난 실밥을 만지작거렸다. “우리랑 같이 살게 돼서 미안하세요?”

“처음엔 무서웠어.” 할머니가 인정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아빠 역시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상 위에 늘어놓아야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삶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아빠가 곰살궂은 사람이라서 다행이었어.”

“그야 할머니께서는 늘 아빠 편만 드시니까요.” 그게 바로 할머니가 짧은 시간 안에 아빠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방법이었다. 지금이라면, 아빠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할머니와는 떨어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서둘러 차로 돌아왔다. 엄마는 차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다. “왕 부인이 홍춘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가라고 하네요.”

나는 그 사진 속 홍춘의 얼굴이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하진 않았다.

엄마는 다시 숨씨 좋게 운전을 하며 말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아마도 내 옆에 정신과 전문의인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듯했다.

“엄마 생각에는, 누군가 별로 가치도 없는 물건을 훔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물었고 엄마가 답했다. “그 물건을 중요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가치인거지. 여자

건 남자건, 그 물건들을 훔친 사람이 누구이든지, 탐욕보다는 비열함이 더 나쁜 것 같구나.”

“아마 그 도둑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엄마는 말하는 방법을 바꾸었다. “아마도 충동에 의한 도벽행위였을 거야.”

나는 시트에 몸을 기댔다. “가게물건을 훔치는 줌도둑처럼?”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차들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엄마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엄마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동차들의 흐름에 성공적으로 합류하자, 엄마는 내 말을 정정했다. “그 단어를 하찮은 도둑에게 쓰는 건 잘못된 것 같구나. 내가 말한 것은 진짜 도벽이 있는 환자를 말하는 거야. 많은 것을 찾고 있지, 예를 들면 안전,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용서, 심지어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까지.”

엄마랑 대화를 하다보면, 가끔은 더 혼란스러워 지기도 한다. 그게 요즘 내가 엄마와의 대화를 포기한 이유이다. “그래서 도벽 환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 교통뉴스를 틀었고, 나는 엄마의 얼굴에서, 내가 전에 ‘뮤지컬 슈퍼스타’에 대해 멍청한 질문을 했을 때, 아빠의 얼굴에서도 보았던 짜증스러움을 발견했다. “상징적으로는, 그렇지.”

엄마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을 보자, 나는 스스로 화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웃기게도 엄마와 나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둘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엄마는 마치 내가 실패작이라도 되는냥 행동했다. “됐어요.” 내가 내뱉었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고 나서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말을 이었는데, 아무래도 흥춘이 나에게 했던 말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했다. “미안 하구나, 애야. 많은 강박증 도둑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그들은 그걸 드러내 놓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것들은 몰래 훔치는 거야. 사랑이나 자긍심,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럴 권리가 생각하고 있는 듯 해.”

어쩔 도리가 없이, 내 생각은 다시 흥춘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저지른 일에 대해 방어적이야. 심지어는 독선적이기까지 하지.”

“그리고 몹시 배고파하지.” 할머니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나를 쳐다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도둑을 생각하고 있단다.”

“다른 도둑 누구요?”

“알고 싶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소극적으로 말했다.

할머니의 반응에 나는 조금 상처를 받았다. 할머니의 말에는, 내가 마치 할머니를 가구처럼 취급한다는 뜻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놀리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것처럼, 지긋이 나를 보았다. 나는 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할머니가 그토록 조용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는지 궁금해졌다. 친구들이 오면, 할머니는 진짜 가구의 나무토막이 된 것 마냥 행동했었다. “그저 옛날 얘기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옛날이야기를 듣기에 는 네가 너무 커 버렸지.”

“누가 그래요?” 나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재촉했다.

할머니가 팔꿈치로 슬쩍 나를 밀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어.”

처음에는 카렌이,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 내 생각에 성인(聖人) 스테이시는 마치 커다란 원양어선처럼 바다를 질주하며 그녀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작은 배들을 뒤집어엎고 있는 듯했다.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네가 어렸을 때였지.” 할머니는 평음을 내며 우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포르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후엔 네가 자랐지.”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언제나 할머니의 방에 머물렀고, 할머니의 텔레비전은 항상 켜져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좁은 침대에 누워서 누비이불의 냄새를 맡곤 했었다. 그 냄새는 강한 사향 냄새였는데, 기분 나쁜 냄새는 아니었고, 그저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었다. 크고 나서야 나는, 그게 약초로 만든 연고와 불단위에서 신을 위해 태우는 향이 섞인 냄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내가 할머니의 방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방의 텔레비전이 언제나 켜져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엄마가 할머니 방에 케이블 방송을 연결해 주어서, 할머니가 중국어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마도 할머니가 달리 할 일

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커서 나를 떠난 거야. 내 자식들도 그랬고, 내 손자들과 증손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았다.”

“저는 정말,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신건지 알고 싶어요.” 나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엄마는 교통 뉴스를 듣느라 바빴다. 목소리를 낮추며 나는 말했다. “엄마에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심리학 강의를 기초부터 들어야 할 거예요.”

편안한 자세를 위해 할머니는 신발을 벗어 던졌다. “마음도둑은 너에게, 네가 간절히 원하지만 좀처럼 가질 수 없는 것을 알려줄 거야.”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들봐주었을 때처럼, 나는 다시 작고 어린아이가 된 듯했다. 그때 나의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제프가 나에게 혀를 메롱 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나에게는 그게 충분히 큰 문제였다. “누가 마음도둑이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다른 한 쪽 신발을 마저 벗어버렸다. “너무 슬픈 이야기라 듣고 싶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이 중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얘기했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야”

“마음도둑에 대해 말해 주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두 발을 비비며 가벼운 마사지를 했다. “정말 듣고 싶은 거니?”

내가 다시 재촉하자,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조심성 없는 젊은이가 있었단다. 그 젊은이는 강이 내려다보이는 산비탈에 있는 아늑하고 작은 소나무 마을에 살고 있었지. 정말 좋은 곳이었단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렴.”

나는 장단을 맞추었다. “무엇을요?”

할머니가 두 눈썹 찌푸려 일자로 만들었다.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있지.” 할머니는 창문 옆의 자동차 불빛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 젊은이와 그의 친구는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언제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함으로서, 그들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젊은이의 가족들은 그의 장난을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금방 다시 지루해 했고 다시 낯은 수법의 장난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장난이 도가 너무 지나쳤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도 화가 났고, 그 둘은 숲 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크고 어두운 나무들 사이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혼자 자서 숲 속을 헤매던 젊은이는 작은 산에 다다랐고, 산 속에 동굴이 있었다. 동굴 속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돌기둥들은 바위로 만든 베일 같은 것도 있었고 리본 같은 모양도 있었는데, 분홍색, 갈색, 그리고 온갖 색깔이 다 보였다.

연못 옆에서, 젊은이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고, 바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젊은이가 물었다.

“귀찮게 하지 말아요.” 그 말을 하고, 소녀는 동굴 깊은 곳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젊은이는 돌기둥과 기이한 모양의 바위사이로 소녀를 쫓아갔다.

“동굴 안에서 그 남자는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었죠?”

“바위에서 빛이 나왔단다. 그리고 젊은이가 그 소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거대하고 파란 피부를 한 식인 거인이 앞에 나타났단다. ‘너는 누구냐?’ 하고 거인이 물었지.”

젊은이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거인이 젊은이의 옷깃을 움켜잡고 잡아 올렸다.

어, 어, 어떤 소녀를 보았어요.” 젊은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 왔어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매파를 여기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젊은이의 사지를 곧장 다 찢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에 거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큰소리로 꺄꺄 웃었다. “대답해 보거라, 나의 딸아. 내가 이놈을 사위로 삼아야 할까, 아니면 저녁거리로 만들어야 할까?”

소녀가 거인의 옆에 나타났다. 소녀가 미소 짓자, 더욱더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와 결혼하겠어요.”

거인이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와 결혼을 하려무나.” 그리고 젊은이를 자신의 발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어리둥절해 하는 젊은이를 거인자신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굴 깊숙한 안쪽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궁전에 입구에서, 거인은 젊은이와 자신의 딸에게 무릎을 꿇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숭배하도록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젊은이는 무릎을 꿇었지만, 그가 거인의 큰 딸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인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 너에게 내 딸을 주어도, 네가 그 애를 지킬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거인은 궁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거인을 따라 들어갔다. 그는 거대한 연회장 안에서 저녁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인의 큰 딸을 발견했다.

젊은이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다. 안으로 달려 들어간 그는 거인의 팔을 잡았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장난인가요?”

거인은 과리를 쫓듯이 가볍게 그를 뿌리쳤다. “그래, 나의 딸아, 말해 보거라. 내가 그를 사위로 맞이하라, 아니면 저녁거리로 삼으랴?”

“바보를 나의 남편으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젊은이에게 설명했다. “만일 당신이 나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베어 심장을 꺼낸다면, 당신을 죽이게 될 거요.” 젊은이가 고통에 차서 울부짖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바보이군요.” 거인의 큰 딸이 말했다. “내 심장은 내 몸 안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그럼 그 곳이 어디죠?” 젊은이가 물었다.

“네가 그 비밀을 알아내야만 해.” 거인이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달 안에 맞춰야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너를 저녁거리로 만들 거야. 그 때까지 너는 내가 먹기 좋도록 착실하게 살을 잘 찌워 놓아야해.”

“그렇다면 당신의 심장을 찾아 그 것을 가질 거요.” 젊은이가 약속했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원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해서 젊은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가도 좀처럼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거인에게 잡아먹히기 바로 전날,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궁전은 돌로 지어졌지만, 가구는 모두 나무였다. 그리고 그 곳에는 비싼 칸막이들과 그림들, 그리고 양탄자들이 있었다. 의자를 부순 후에, 그는 불을 붙였다.

연기가 방들을 한 칸씩 채워가기 시작하자, 거인의 가족과 하인들이 뛰어다니며 가장 귀중한 물건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거인의 딸만을 주시하다가, 그녀가 옷장으로 쓴 살같이 뛰어가 그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옷장 안에는 향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 향아리 안에 그녀의 심장이 들어 있었다. 그 향아리를 집어 들고, 거인의 딸은 연기로 가득 찬 궁전을 빠져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친 사이에, 똑똑한 젊은이는 옷장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았다. 옷장 한쪽이 숨어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커 보였다. 그래서 그는 옷장 안으로 들어가 맨 밑에 있는 선반에 자신을 구겨



넣었다.

하인 하나가 젊은이가 놓은 불씨를 발견하고 그것을 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화가 나있는 거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우리를 속여 저녁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했군. 그 놈이 도망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불을 놓았어. 이따위 속임수를 쓰다니.”

그리고 거인과 그의 하인들은 사람을 풀어 젊은이를 잡아오라고 시켰다. 거인의 딸은 옷장으로 먼저 돌아갔지만, 이불들과 옷감들의 무더기 뒤에 숨은 젊은이를 보지 못했다.

그녀가 옷장 문을 다시 잠근 후에야 젊은이는 간신히 항아리를 움켜쥘 수 있었다. 거인은 몇 시간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번에는 그 바보를 바로 잡아먹어 버릴 테다. 더 이상 저녁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어.”

옷장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거인은 깜짝 놀랐다. 그 옷장으로 가, 거인은 문들을 부수어 열었다. 항아리를 가지고 젊은이가 옷장 밖으로 나왔다. “제가 따님의 마음을 흠쳤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거인의 큰 딸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저 놀랄 뿐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은 정말 싫어요.”

거인은 애절하게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나 그는....., 인간 이예요.” 겁에 질린 거인의 딸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과 바깥세상이 반반씩 섞인 아이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만일 젊은이가 거인 딸의 심장을 흠쳤다면, 왜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생각하는 게 마치 미국인 같구나.” 할머니가 나의 팔을 토닥거렸다. “옛날에 중국인들은 심장이 몸을 지배한다고 말했지. 너의 모든 생각들은 너의 감정이 아닌 그 곳에서 나오는 거야.” 할머니가 자신의 불을 끄었다. “그건 미국인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더 가깝지.”

나는 보통, 할머니와 함께 중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피했는데, 그 이유는 할머니가 하는 중국에 관한 얘기가 엄마 아빠의 직업용어만큼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얘기는 나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각자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나

는 할머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마음은 뇌와 같아요.”

“옛날에 중국인들은 머리에 모든 생의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고는 했지.” 할머니가 설명을 하려 애쓰며 자신의 이마를 톡톡 쳤다. “장수의 신이 그렇게 커다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지. 그리고 심장엔 일곱 개의 눈이 있어. 만일 그 눈들이 밝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지.”

가끔은 할머니가 설명을 하면,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끊임없이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조르고는 했었다. 마치 아빠의 공상과학물을 볼 때처럼, 내가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무시했었다. 그 때, 내가 뭔가 재미있는 것들은 놓친 게 아닌가 하고 회의가 이제야 들기 시작했다.

“어쨌든요, 그 마음의 도둑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 거인은 딸을 꾸짖었고, 젊은이는 그녀에게 사정을 했지.” 할머니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 둘이 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

그래서 젊은이는 슬퍼하며 향아리를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의 약속을 되돌린 것처럼, 당신의 심장을 찾아가시오.”

자신의 딸이 약속을 저버린 것을 부끄러워하던 거인은 젊은이에게 금과 보석들을 내렸지만 그는 거절했다. 젊은이는 그 동굴에서 나와 숲속을 헤매다가 강에 다다랐다. “이장을 따라가면 소나무마을에 갈 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강둑을 따라 걷다가 숲 끝에 도착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길을 잘못 든 거야. 이곳은 우리 마을이 아니야.” 그는 자신이 어느 도시의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로 다가가 소나무마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다. 군인은 마치 바보를 보듯이 젊은이를 쳐다보다가 웃었다. “여기가 소나무마을이요.”

“하지만 소나무마을은 그저 작은 마을인데요.” 젊은이가 말했다.

“그건 옛날 얘지요. 지금은 중요한 도시로 발전했지.” 군인이 말했다.

“얼마나 오래 됐죠?” 젊은이가 물었다.

그리고 군인의 대답을 듣고서야, 젊은이는 자신이 수백 년 동안이나 떠나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죽고 없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의 심장을 훔치는 동안, 누군가는 내 세상을 훔쳐갔

구나.”

그래서 젊은이는 절망에 떨며 숲속으로 도망쳐 들어가 나무 밑에 앉았다. 모든 삶의 이유를 상실한 그는 쇠약해졌고 결국 죽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행상인이 젊은이의 유골을 보았다. 가없는 젊은이를 동정한 그는 구멍을 파고 유골을 한데 모아 구멍으로 넣었다. 그런데 행상인이 유골들 사이에서 짙은 녹색의 옥으로 된 심장을 발견했다. “이게 바로 선한 행동에 대한 대가로구나.” 행상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옥심장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왕국과 세상,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꿈에 대한 노래는 행상인이 눈물을 흘릴 때까지 계속됐다.

자신의 행운을 축복하며, 행상인은 그 심장을 남겨둔 채 유골을 묻고 마음도둑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옥심장을 자신의 바구니에 넣고 행상인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상인은 거인의 앞을 지나게 되었고, 거인은 노래하는 심장을 포함한 행상인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다.

거인의 가족은 빼앗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뭐지?” 거인이 자신의 딸에게 물었다. 거인의 딸이 옥심장을 꺼내들자, 심장이 갑자기 슬픈 사랑노래를 불렀고, 그녀와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서 그것을 버려라.” 거인이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흘린 눈물에 모두 빠져 죽기 전에.” “이 목소리는 내 심장을 훔치려고 했던 인간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인이 딸이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거인이 코를 훌쩍거렸다. “이건 바로 그 녀석이 남긴 것이 분명해.”

그리고 거인의 딸은 그 때 자신이 그를 거절했던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녀가 말했다. “제가 간직해야만 해요.”

거인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흔들며 자신에게서 멀어지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루 종일 울어대게 될 거야.”

“제 심장 옆에 두도록 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거인의 딸은 젊은이의 옥심장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갔으나, 그녀가 마음도둑의 소중한 심장을 그녀 자신의 심장 옆에 두자마자 옥심장은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옥심장의 대답 없는 사랑과 잃어버린 희망에 대한 노래는 거인이 딸이 눈

물을 쏟아낼 때까지 계속됐다.

“이제 그가 진짜 나의 마음을 훔쳐 갔구나.” 그녀는 애석해했다. “지금은 오로지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 없구나.”

할머니가 자신의 가방을 잡고 입구를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니?”

“거인이 젊은이를 다시 살아나게 했나요?”

“아니.” 할머니는 드롭스 사탕을 찾아 가방 안을 뒤졌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굳어진 할머니의 손은 드롭사탕 하나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옥심장은 마지막 음절을 노래 하고나서,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버렸단다. 그리고 마음도둑은 더 이상 없었어.”

내가 할머니의 가방 안에서 드롭사탕을 꺼내들고 첫 번째 사탕 하나를 꺼냈다. 파인애플 맛의 사탕이었다.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이야기를 슬프게 만들려고 지어내시는 것 같아요.”

머리를 흔들며 할머니는 사탕 포장지밖에 표시된 붉은 선을 가리켰다. “그 마음도둑이 집에 그대로 머물렀어도 그만큼 비참했을지도 모르지. 집을 떠나는 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심장을 훔쳤을 때, 잠시 동안이나마 그는 행복을 느꼈던 거야.”

나는 빨간색 사탕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장지를 벗겨냈다. “저는 아직도 할머니가 이야기의 끝을 바꾸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사탕을 받아들었다. “이미 다 컸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니.”

“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나는 파인애플향의 사탕을 입으로 넣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드롭사탕의 포장지를 다시 싸서 가방 안으로 넣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니, 예를 들면 원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야. 차이나타운에서는 언제나 보아왔던 일이야. 여기서도 봤지. 다만 알마덴에 사는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원하지.”

할머니는 엄마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엄마처럼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체프의 장난감과 실비아의 부적은 그 둘의 주인들과 연결된 영혼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체프에게는 사랑을, 실비아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그러나 내가 오늘 그 곳에서 발견한 잃어버린 물건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마음도둑이 죽은 이유는 거인의 딸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세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인이 딸은 그가 자신으로부터 훔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에게서 훔쳐간 거예요.”

할머니는 차의 통풍구에서, 마른 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흠칫 놀랐다. 할머니는 좀처럼 기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언제나 새로운 세상은 있기 마련이지.”

나는 잡종이라고 불렸을 때, 스스로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느꼈는지 생각했다. 그 도둑이 간신히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을 때 나와 같은 느낌이었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것들을 찾으셨어요?”

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이 할머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찾게 될 거야.”

할머니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 그 자신감이 부러웠다. 하지만 나는 이야기 속의 마음도둑처럼 혼자서 세상을 헤매고 있었다.



## 7장

우리가 101도로의 호스피탈 커브를 돌아, 도시가 보였다. 호텔과 사무실 빌딩의 창문들이 마치 별로 가득한 나무처럼 반짝거리고 있었고, 그 나무들의 뿌리 쪽에는 상자모양의 아파트들과 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숨을 멈추었다. 일부는 내 앞의 전망 때문에,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정 때문이었다. 비록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시간이 반나절정도 밖에는 안됐지만,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은 탓에 이 도시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자동차미등들로 만들어진 강 너머로, 엄마는 건물들 위의 스카이라인을 비평하듯이 훑었다. “해마다 빌딩들이 높아지고 있네요.”

할머니는 열망하는 아이들처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뻗었다. “차이나타운은 보이지도 않는구나.” 할머니가 불평했다.

“마지막으로 그 곳에 가셨던 때가 언제예요?”

그 질문은 할머니를 잠시 멈칫하게 했다. 엄마와 할머니가 8년여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내는데 몇 분정도 걸렸다.

할머니가 자신의 눈꼬리 쪽을 톡톡 쳤다. “하지만 내 머리 속에서는 언제나처럼 생생하게 차이나타운을 볼 수 있어.”

나는 엄마를 흘깃 쳐다보았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차이나타운을 보셨던 때가 언제예요?”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엄마는 입술을 오므리면서 말했다. “다섯 살 생일에 널 데리고 도시로 왔던 때인 것 같아.”

“기억나요.” 그 나이에는 모든 것이 영화 촬영장처럼 신기하고, 재미있고, 다채롭게

보였다.

“하지만 그때 너를 데리고 간 곳은 그랜트 에비뉴였고, 오늘은 진짜 차이나타운을 보게 될 거야.” 고속도로를 떠나 자동차의 물결에 합류하면서 엄마가 약속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너무도 다른 데였다. 알마덴에서는 모든 것이 넓게 퍼져있고 낮았다. 이곳의 모든 빌딩들은 언덕의 경사를 따라서 뺨뺨하게 모여 있었다. 몇 군데에서 잔디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저 작은 조각들일 뿐이었다.

우리차가 달리고 있는 모든 도로들이 가파르고 높아서, 엄마가 아파트건물을 쳐다보기 위해 우리가 달리고 있는 도로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자 나는 불안해졌다. “지브롤터는 문을 닫았어요.”

“잘됐구나.” 할머니가 웅얼거렸다. “나는 그 매니저가 너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어.”

“그 사람은 모든 신문배달부가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했다.

내가 놀라서 돌아앉았다. “신문배달도 하셨어요?”

엄마는 나로부터 놀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듯이 불편한 눈으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항상 쉽게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무거운 신문 한 묶음을 들고 서있는 것은커녕, 이곳의 가파른 언덕조차도 나에겐 좀처럼 익숙해질 수 없었다. “이 언덕길을 걸어갔어요?”

내가 놀려대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엄마는 조금 편하게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거리로 차를 움직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자루의 신문이었지.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매고.”

무거운 짐이 없어도 이런 언덕길을 오르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일 것이다. 나는 엄마의 격식 있는 정장바지를 쳐다보았다. “엄마 다리는 틀림없이 야생염소처럼 튼튼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때 같으면 나한테 견어차이는 걸 무서워했을 거야.”

그때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내가 물었다.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빠가 세계 곳곳의 군부대에서 살았던 것은 알고 있는데, 엄마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들킨 듯이 엄마는 입을 꼭 다물었다. “모든 게 다 옛날 얘기야. 들으면 웃을걸.”

나는 엄마의 말에 상처받았다. “엄만 내가 꼭 괴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고 나서, 방금 자신이 했던 말을 농담인 것처럼 만들려고 애썼다. “지금 나한테, 자기 딸들한테 십 몇 킬로미터씩 눈길을 걸어 다녔었다고 자신的高생담을 떠벌이는 엄마가 되라고 하는 거니?”

나는 절망감에 대시보드를 움켜쥐었다. “나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탄 차가 가로등 아래를 직진해서 달리자 그 부드러운 불빛이 더욱 깊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엄마가 내뱉었다. “다만, 전에는 한 번도 내 말을 듣고 싶어 한 적이 없었잖니.”

“엄마가 말씀하실 때는 항상 잔소리가 따라오니까 그렇죠.” 내가 설명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자, 뭔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할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자동차 유리에 밀착시켰다. “저길 보렴.” 할머니가 놀라면서 말했다. “저 가게에서 중국음악을 파는구나.” 중국가수의 포스터가 가게 유리창에 붙여져 있었다. “왜 저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지?”

“차이나타운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천으로 만든 애기포대로 아이를 업은 나이 든 중국여자 때문에 엄마가 깎하고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출렁하고 흔들렸다. “행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도서관에 있던 책 중 하나에, 중국인들이 계속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었어.” 내가 말했다.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듣기에 민망한 소리를 냈다. “그 사람들이 이사 나가고 싶어도, 차이나타운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는 집을 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공정 주택법이 그걸 바꿔 놓았지. 내 친구인 타일라 추가 그 첫 번째야. 그녀는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갔고, 이제 그곳의 주민은 대부분이 중국인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 할머니가 말했다. “차이나타운은 사람들로 폭발해 버릴 지경이었지.”

“그 사람들이 이민법을 바꿔 놓았단다.” 엄마가 나에게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민 할 당제는 결국 공정한 것이었어.”

할머니가 내 좌석의 뒷부분을 잡았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결국에는 함께할 수 있게 되었지. 내 친구인 제씨는 삼십년 만에야 마침내 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단다.”

“제씨 아저씨의 부인은요?” 내가 물었다.



“부인은 그 사이에 죽었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와 비슷한 많은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가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하자, 나는 바위협곡을 따라 만들어진 오래된 차이나타운을 훑어보았다. 개구리 혀바닥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서리를 가진 녹색과 붉은색의 지붕들, 그리고 뱀처럼 휘어진 중국 글자로 된 간판들. 그리고 언덕의 아래쪽에는 은색과 검은색으로 된 슬래브 지붕을 가지고 있는 고층빌딩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이국적인 장난감 블록들을 언덕 밑으로 굴려서 철과 유리로 된 벽에 부딪히게 해 놓은 것 같았다.

교외지역에 비하면 도시속의 차이나타운은 달의 한 단면처럼 이상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도둑이 처음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심정이었으나, 할머니에게 그곳은 집이었다. “차이나타운은 여전히 차이나타운이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는 차이나타운이 나에게 생소한 곳 이듯, 할머니에게는 알마텐이 그만큼 생소한 곳인지 궁금했다. 그것에 대해 할머니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언젠가는 스테이시를 데리고 이곳을 죽 둘러보면서, 오래된 우리의 동네를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엄마의 그 제안에 즉각 흥미를 보였다. “스테이시와 함께 사라네 생강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야겠구나.”

“생강이라고요?” 나는 내가 맞게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할머니가 내 어깨를 툭 쳤다.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와 얘기하기 위해 앞좌석에 몸을 기댔다. “셀레스티얼의 권푼을 기억하고 있니?”

“권푼은 돼지고기를 구워서 온갖 종류의 재료를 넣고 찐 다음 자른 것이란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걸 파인트로 사서 신문 배달집합소로 가는 길에 먹곤 했지.”

“그만.” 할머니가 투덜거렸다. “너희들이 나를 배고프게 하는구나.”

엄마가 입맛을 다셨다. “제가 내려서 좀 사면 어때요?”

나는 붐비는 거리를 쳐다보았다. 자동차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막혀있어서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차를 세울 곳이 있다면 다행이죠.”

“내가 주차된 다른 차 옆에 잠시 서있는 동안에 네가 뛰어가서 사올 수 있을 거야.”

엄마의 그 생각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내가요? 중국어도 못하는데요?”

“몇 마디만 연습해 두면 돼.”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다른 한손으로 지갑을 찾기 위

해 가방을 뒤지며 권푼을 사기위해 필요한 중국어를 되풀이해 말했다.

자동차가 도로변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충실하게 그 문장을 연습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어두운 빌딩을 지나자, 나는 궁금해졌다. “문을 열었을까요?”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웃었다. “셀레스티얼은 일주일 내내 밤새 장사한다.” 엄마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평생 동안 나의 세계에서 할머니를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세계에 속해있는 할머니를 보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짧은 시간동안 잠시 들여다본 세상이었다.

“바로 여기란다.” 할머니가 흥분하여 손가락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준비하렴.”

그러나 그 상점의 유리진열장에는 스펅글이 번쩍거리는 티셔츠와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더 이상 장사하지 않나 봐요.” 엄마가 실망스러워 하며 말했다.

사라의 카페도 마찬가지로였다. 그 곳은 보석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도대체 사람들은 디저트로 뭘 먹고 있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침통하게 들렸다.

우리가 좀 더 차이나타운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엄마와 할머니 모두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장소들이 하나둘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다.

하지만 우리가 스톡튼을 지날 때야말로 두 사람의 실망은 가장 고조에 달했다. 엄마는 망연자실하며 한 곳을 가리켰다. “청정도 없어졌어요.”

나는 유리진열장과 문 너머로 무거운 쇠창살이 있는 가게를 쳐다보았다. 진열장에는 오로지 텅 빈 붉은색 벨벳만 보일 뿐이었다. “저 보석가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게는 원래 만화방이었어.”

“네 엄마는 청정에서 몇 시간씩이나 있곤 했었지.” 할머니가 설명했다. “그 곳에는 온갖 종류의 만화책이 있었는데.”

나는 엄마를 응시했다. “나에게는 만화책이 마음을 유혹하는 사탕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가로등에서 비추는 푸르스름한 불빛아래에서, 나는 엄마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래, 맞아. 엄마가 한 실수를 네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어.”

전에 차이나타운에 왔을 때는 낮이었다. 밤에 다시 와보니 어쩐지 음침하게 조용했다. 문 닫은 가게들을 하나씩 지나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무 곳도 문을 연

데가 없어요. 여섯시면 장사를 마치는 것 같아요.”

“길가는 사람도 하나 없구나.” 엄마가 말했다. 엄마와 할머니는 서로 광둥어로 얘기했다.

“제가 못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항의했다. “나만 따들리는 것 같아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사과했다. “나는 그저 할머니에게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어.”

할머니는 마치 정신을 잃은 듯, 계속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겠어. 지금이라면 차이나타운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겠어.”

그 마음도둑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시간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을 알았을 때 지금과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졌다. 엄마와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들의 집에 쳐들어 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흥춘의 사촌이 살고 있다는 주소의 골목으로 들어갔다. 거리의 흐린 불빛이 좁은 골목으로 비춰 들어왔다. 할머니는 우리 자동차불빛이 비추는 건물 벽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보기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아는 건물이야. 나의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익숙한 곳을 발견한 할머니는 안심한 듯이 보였다.

엄마가 차의 전조등을 끄자, 우리는 어둠에 휩싸였다. “건물 호수는 못 알아보셨죠?”

“호수는 모르지만, 건물은 알아볼 수 있어.” 두 손을 앞좌석 뒤쪽에 얹어놓으며 할머니가 말했다. “그 친구들은 모두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우리가 필요한 걸 모두 알려줄 거야. 수 부인은 오페라를 좋아해. 모든 가사를 다 알고 있지. 다만 노래는 못해. 정말 끔찍해. 하지만 그녀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리고 어빙은 미용사야.” 할머니가 킁킁 웃었다. “그런데 그녀 자신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 지금은 가발을 쓰고 있어야 하지.”

“차이나타운은 작은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나에게 설명했다. “그게 좋은 점도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나쁜 쪽으로 더 발달이 됐지.” 할머니가 혀를 찼다.

“아무래도 전조등을 다시 켜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엄마의 눈은 흐릿한 빛 안에서 거리를 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를 불안하게 살펴보았다. “그래야겠구나.”

강렬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자, 나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의 좌석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집에서라면, 할머니는 무엇이든 혼자서 다 해내고, 심지어는 내가 지나치게 세심하게 배려하면 오히려 분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골목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나에게 내민 할머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와다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리는 동안, 나는 팔을 내밀어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는 집에서 지팡이에 의지할 때보다 더 무겁게 나의 팔에 기댔다. 내 생각에 할머니는 어두운 곳에서 넘어져 다시 다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한발 한발 할머니는 아파트 주택을 향해 발을 끌며 내려갔다.

문에 다다르자, 할머니는 이미 메모한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우편함에 호수만 있고 이름은 없구나.” 할머니가 불평했다.

“홍춘의 사촌을 찾아 보거라.”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우편함 위의, 금이 가고 더러운 버튼을 눌렀다.

무거운 붉은색 문 너머로, 집안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에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뭐예요?” 한 여자가 물었다.

“저희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엄마가 종이를 한 번 훑음 보고나서 홍춘의 사촌이름을 얘기했다.

여자는 빠른 어조의 중국어 대답했고, 나는 엄마를 보았다. 하지만 엄마역시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홍콩 사투리야. 말이 너무 빨라.” 엄마가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내가 하마.” 할머니가 엄마의 팔을 툭툭 두드리고 나서 자신 있게 우편함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에 귀를 붙이고 듣고 난 후, 할머니도 역시 짜증스럽게 얼굴을 찌푸렸다. “나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털어놓았다.

아래쪽의 알마덴은 따뜻했지만, 도시는 추웠다. 차이나타운의 날씨에 맞게 옷을 갖춰 입은 것은 오직 할머니뿐이었다. 엄마는 부르르 떨며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감쌌다. “차이나타운에서 통역이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가 주장했다. 우편함들을 쭉 훑어본 후, 우리가 미처 말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아무 벨이나 눌렀다. 다른 사람이 목소리가 들려오자, 할머니는 뭔가 커다랗고 푹푹한 중국어로 묻고 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귀를 나무문에다 들이

떨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는 거의 충격을 먹은 상태로 몸을 일으켰다. “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구나.”

“몇 년 사이에도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 거군요.” 내가 말했다.

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다. 소설 속에 나오는 립반링클처럼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변해 있었다면 분명 견디기 힘들 것이다. 엉뚱한 장소와 시간에 와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아니었다.

“변한 건 그저 몇 군데하고 몇 사람일 뿐 이에요.” 내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잖아요.”

많은 옷을 겹쳐 입었음에도, 할머니가 몸을 떨었다. “알고 싶지 않구나. 더 이상 보지 않는 게 낫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전의 차이나타운으로 기억하고 싶어.”

“홍춘이는 어떻게 하고요?” 엄마가 상기시켰다.

할머니가 어깨를 폈다. “그래, 난 정말 바보 같구나.” 실망감은 잠시 내려놓고, 할머니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이고 문 너머로 얘기했다. 이번에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고향 말을 할 줄 아는 다른 이웃사람 하나가 나온다고 하는구나.”

잠시 후에,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파트 문이 열렸다. 납작한 니트 베레모를 쓴 몸집이 작은 여자가 우리를 수상쩍게 쳐다보았다.

할머니가 고개를 까닥하며 인사를 건네고는 미소와 함께 엄마가 건넨 홍춘의 사진을 보여주며 재빨리 얘기했다. 여자가 돌아서서 계단위의 일층 세입자에게 소리쳤다. 몹시도 투박하고 큰 소리였다. 자고 있던 사람들이 깬 듯, 통로의 위아래에서 계속 등이 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입술을 오므리며 할머니가 우리에게 통역했다. “저 여자가 말하기를, 여기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구나. 오래전에 이사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홍춘이 왔었나요?” 엄마가 질문을 재촉했다.

할머니가 큰소리로 세 마디를 외치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말했다. “어떤 낯선 여자가 왔었는데, 그 애가 오로지 영어와 북경어밖에 할 줄 몰라서 아무도 그 애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구나.” 그러니까, 홍춘은 여기 차이나타운에 있었다.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홍춘이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애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크고 어두운 도시에서 길을 잃은 홍춘에게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도시는 나에게 그런 것처럼, 이제 할머니

니와 엄마에게도 거의 외계 세상과 같은 곳이 되었고, 흥춘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었다.

## 8장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제씨를 만나야만 해. 그러면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를 옛날 집으로 데려다주렴.”

나는 이일에 할머니를 끌어들인 것이 미안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할머니가 또 다시 실망하실까봐 두려웠다. “제씨 아저씨가 그 곳에 계신 것이 확실한가요?” 내가 물었다.

“우리는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 하지만 꽤 오래전이야.” 할머니가 내 팔에 불안하게 기대었다. 지금까지, 할머니는 내 팔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할머니의 체중을 떠받치게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친 골반 때문에 발을 끌며 걸어야 했지만, 평소에는 움직임에 힘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서 골반 뼈보다 더 강한 할머니의 의지에 대한 인상을 남겼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할머니의 나이 하나하나를 느끼듯이, 느리고 무겁게 차로 향했다. 나도 만일 한 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역시 그곳이 그대로이길 기대했을 것이다.

나는 다른 쪽에서 할머니를 지탱하고 있는 엄마를 건너다보았다. 엄마 역시도 우리의 차로 돌아가는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생각에 잠긴 듯이 보였다.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안한 채로, 엄마는 차를 빼서 세크라멘토가로 몰았다. 산길이 너무 가팔라서 엄마는 차의 기어를 저단으로 놓아야 했다. 우리 앞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의 금빛 탑이, 호텔의 야외 엘리베이터가 흰빛의 차가운 기둥을 올라감에 따라 머리위로 높이 솟아 있었다. 놀이터의 잠긴 문 옆으로 대여섯 명의 소년들이 빈둥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침대들이었는데, 머리를 깃털처럼 높이 세워 올리고, 소매를 걷

어 올린 비싼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상한 수도사들처럼 보였다. 우리차가 지나가자, 그 십대 소년들이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엄마가 익숙한 곳인 듯 또 다른 골목에 주차하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할머니를 위해, 나는 제씨 아저씨가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기를 바랐다. “어느 집이 할머니 집이었어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아래쪽 창문위에 쇠창살이 있는 녹색 빌딩을 가리켰다. “제씨가 내 집을 인계 받았지. 다른 모든 노인들과 함께 사는 걸 지겨워했어. 지금은 자신만의 부엌을 갖게 되었지.”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거울 쪽을 가리켰다. “거울을 보여 나오.”

“제씨 아저씨가 있을지도 몰라서요?” 나는 할머니를 위해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 뒤에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카프를 매만지고, 손가락으로 입술을 눌렀다. “케이시, 립스틱 가지고 있니?”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예뻐요, 할머니.”

“거짓말.”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게 보여요.” 엄마도 할머니를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자신의 립스틱을 건넸다.

할머니가 준비를 마치자,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하고는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차문을 잠그는 동안, 할머니는 그 곳을 둘러보았다. “전혀 페인트칠을 하지 않았구나.” 빌딩 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할머니가 말했다.

“여, 귀여운 아가씨, 담배 있어?” 한 소년이 물었다. 어깨너머로 나는 그들이 코트를 입고 있던 소년들임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무례한 태도와 고양이 같은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담배 안 피워요.” 엄마가 말했다.

다른 소년들이 골목에 한 줄로 늘어서는 동안, 한 소년이 계속 다가왔다.

“가방에 뭘 가지고 있는데?” 소년이 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듯이,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차이나타운에서.”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방을 그 소년에게로 내던지며 말했다. “가지고 가, 됐니?”

그는 뽀족한 신발로 가방을 툭 건드리고는 내 쪽으로 고개를 획 움직였다. “너도 분

명 뭔가 가지고 있겠지.”

나는 할머니를 부축하지 않은 손으로 지갑을 꺼내 엄마의 가방 옆으로 던졌다. “여기 있어.”

그는 한 쪽으로 고개를 느리게 기울였다. “아마도 재미있는 걸 찾은 것 같은데.”

할머니에게 이 일은 오늘 밤의 마지막 수모였다. 이제는 분노에 차서, 할머니는 나와 엄마를 뿌리쳤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중국인들은 서로를 보호해왔어. 자기 동족에게 강도짓을 하지는 않아.”

소년은 오른쪽 손을 자신의 왼쪽 주먹위에 올리고는 할머니에게 조롱의 목례를 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켰을 때, 웃음은 경직되어 칼날처럼 날카로운 곡선이 되어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있죠, 이모?”

“아무것도.” 할머니가 내 뺨을 때렸다. 이토록 화가 난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토록 무모한 모습도. “그리고 난 너의 이모가 아니야.”

“대꾸하지 마세요.” 엄마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의 모든 실망이 할머니를 베틀로 내몬 듯 했다. 오히려 모든 두려움과 분노를 풀 수 있는 대상을 만나 기쁜 듯이 보였다. “내가 왜 이런 개새끼를 무서워해야 하지?” 할머니가 물었다. 그리고 나서 광동어로 장황한 연설을 시작했는데, 소년의 얼굴은 처음에는 붉어졌다가, 후에는 분노로 굳어졌다. 그리고 뒤쪽에 있던 소년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말하는 내내, 엄마는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내가 속삭일 때까지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저들이 엄마를 해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얼른 내 생각에 동참했다. “스테이시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어느 정도 이성을 찾았다. “그렇다면, 됐다.” 그리고 경멸스럽게 자신의 가방을 소년에게로 던졌다.

소년은 바로 가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엄마가 앞으로 나섰다. “스테이시, 가서 모든 현관 벨을 눌러. 내가 막고 있을게.”

나는 너무 무서워도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분노에 들끓고 있었다. “차이나타운은 이제, 그저 개 우리일 뿐이구나. 사람의 아이들은 노인들을 놀리거나 강도질하지 않아.”

“나에게 명령하지 마.” 소년이 소리쳤다. “명령은 내가 해.”

골목 입구에, 손에 쇼핑백을 든 덩치 큰 남자가 나타났다.

“꺼져.” 남자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소년은 꺾렁거리며 돌아섰지만,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미스터 제.”

소년의 친구들은 이미 뒷걸음치고 있었다. 소년은 신발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미끄러졌다가 다시 몸을 곧추세우고는 도망쳤다.

엄마가 서너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길버트?”

남자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케이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잠시 증 삼촌을 뵈러 왔는데.”

“머리가 좀 빠졌구나.” 엄마가 웃었다.

“네가 더 심한데.” 남자가 말하고는 엄마와 악수했다.

“차이나타운이 바뀌었어.” 엄마가 할머니의 가방과 내 지갑을 도로 주우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일 뿐이야. 요즘 차이나타운에 사람이 많아져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지.” 길버트가 엄마의 가방을 집어 건넸다. “우리 아버지 기억나지? 영화보고 늦게 돌아오시다가 노상강도를 당하셨어.”

“아…….” 엄마가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다치셨니?”

“팔이 부러졌어.” 길버트가 자신의 팔뚝을 치며 설명했다. “아버지의 상처를 보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집에 계셔야 하지만,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전히 극장을 다니셔. 만일 낮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면, 설령 저녁식사를 건너뛰다고 해도 택시를 불러 네 블록을 왔다 갔다 하시지.”

“우리 모두 좀 더 조심해야만 해.” 엄마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으며, 할머니는 회의에 차서 말했다.

길버트는 소년들이 사라진 방향을 내려다보았다. “기필코 아까 그 놈들을 내 자동차 수리 반에 데리고 와야겠어.”

“그 애들하고 차이나타운의 아이들 절반은 그래야 할 거 같은데…….” 내 지갑을 건네며 엄마가 말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남자를 응시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놈들이 미스터 제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이분이 할머니 친구분이에요?”

길버트가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좋구나. 하지만 나는 네 할머니 친한 친구의 증 조카란다.” 손에는 여전히 모든 쇼핑백을 든 채로, 그는 팔을 들어 아파트 건물을 가리켰다.

“예전에 머리카락이 정말 많았었는데.” 할머니가 반가움의 표시로 길버트에게 얘기했다.

길버트가 벗겨진 머리로 손을 뻗으며 사람 좋게 말했다. “어때요? 검은색으로 칠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발을 써야할까요?”

“이대로 보기 좋아.” 엄마가 웃었다. “내 딸, 스테이시야.”

우리가 악수할 때 나는 길버트의 손톱에 까만 테가 낀 것을 보았다. “아까 애들이 아저씨를 보고 정말 허겁지겁 도망갔어요.”

“아마 길버트가 자기들을 알아보았을까봐 무서웠을 거야.” 엄마는 낮은 계단을 올라가, 작은 현관 쪽으로 갔다.

“옛날이라면 진짜 나를 무서워했을 텐데.” 길버트가 투덜거렸다. “단 꽤거리 녀석들.” 그는 아마도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수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계단 왼쪽에 얼룩지고 녹슨 우편함이 있었다. 이름을 쓰는 곳이 있었지만, 모두 비어있었다. 엄마의 오른쪽에 현관 벨들이 있었다. 늘어선 벨들을 즉 한번 쓸다가, 엄마는 9번 벨을 눌렀다.

거의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다. “내가 오는 줄 아셨을 거야.” 길버트가 말했다.

엄마가 문을 열자, 실크 카펫 같은 빛이 계단을 타고 쏟아져 내려왔다. 길버트와 내가 각기 한 쪽씩을 부축한 채로, 할머니는 골목을 가로질러 아파트의 출입구 쪽으로 갔다. 계단 밑에 이르러, 할머니는 길버트의 손을 놓고 철로 된 봉을 잡았다. 현관 출입구에서 엄마가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붙잡았다.

내가 모두의 뒤를 따라 어둑하고 좁은 복도로 들어가자, 저녁만찬의 음식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내가 맡을 수 있는 것은 튀김기름 냄새였지만,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알지 못하는 냄새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 맛있는 냄새에 내 위가 반응하며 꼬르륵거렸다. 그리고 보니 점심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중국음악이 위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제씨 아저씨가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이든 남자가 밑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국어로 무엇인가를 얘기했다.

“삼촌.” 길버트가 계단통로 쪽으로 소리쳤다.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제 아저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위쪽을 향해 뭔가 소리를 지르더니, 자신의 스카프를 세심하게 앞으로 당기며, 광둥어로 엄마에게 무언가 얘기했다. 엄마는 고분하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 콤팩트를 꺼내고는, 할머니가 집안 불빛 아래서 꼼꼼하게 단장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다. 엄마와 할머니는 마치 둘만의 비밀스러운 게임이라도 하는 듯이 계단수를 세었다. 나와 길버트는 뒤에서 두 사람을 따라가며, 할머니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활기차게 걸어가는 곳마다 불빛은 충분했고, 불편했던 곳은 단하나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구석뿐이었다. 할머니는 한 창문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뜬 채, 잠시 멈춰 섰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에 우리는 옆 건물 지붕위에 있는, 오래된 45년도 스니커즈 광고를 알아볼 수 있었다. “오래된 쓰레기는 여전히구나.” 그 이상한 이정표가 할머니를 안도시키는 듯했다.

제 아저씨는 출입구에 서 있었다. 금방 빛은 듯이 아저씨의 머리는 바짝 서있었고, 회색 정장 바지와 새하얀 셔츠 위에 파란색 니트 조끼를 입고 있었다. 홍춘과의 첫 만남이후, 중국인의 색채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만나면 경계심이 생겼다.

하지만 아저씨는 엄마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가씨와..... 작은 아가씨. 다음 번에는 미리 얘기해줘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저씨가 한손에 들고 있던 살구 맛 과자를 한 묶음 내밀었다. 먼저 나에게 하나를, 다음에 엄마에게 다른 하나를 주었다. “틀림없이....., 이 과자 좋아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애에게.” 아저씨는 길버트만 빼놓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과자 한 줄을 그에게 주었다. “자, 이제 모두 들어와요.”

우리 모두가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자, 아저씨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다. 대 여섯 개나 되는 빗장과 자물쇠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 사이에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와 할머니가 살았던 집은 좁았다. 원룸 형 아파트는 잘해봐야 150평방피트 정도였다. 아파트 출입구 옆의 벽 쪽에 좁은 침대가 세로로 길게 붙여져 있었다. 부엌으로 이어진 문 옆의 벽 가까이에 오래된 레코드들과 함께 낡은 레코드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다. 박스들이 신문과 잡지 더미 옆에 차례로 뿔뿔하게 쌓여 있고, 그 옆에는 빨간 국화꽃 무늬의 청록색 테이블보가 덮여있는 식탁을 위한 작은 공간이 있었다.

아파트의 창문하나가 채광용으로 열려 있었는데, 그 곳을 통해서 위 아래층의 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엄마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엄마와 할머니, 두 사람에게는 물론 제 아저씨 혼자 지내기에 도 작아 보였다.

그 사이에 할머니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우며, 제 아저씨가 무언가 이야기했다. 아저씨의 말이 할머니를 더 화나게 한 듯,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고는 엄마에게 중국어로 무언가 얘기했다.

“안됐네요.” 동정어린 목소리로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나에게 할머니의 친한 친구 몇 분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우리가 집밖에서 겪은 일을 듣고 화가 난 아저씨는, “조심하셔야죠.” 마치 할머니가 나와 엄마를 위협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할머니를 나무랐다.

“차이나타운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할머니의 코트를 받아들이고, 아저씨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우리 둘도 틀림없이 변했어요. 나는 주름이 더 늘었고, 머리는 더 빠졌어요.” 아저씨가 옷걸이에 할머니의 옷을 정리해 다시 벽에 있는 못에 걸었다. “차를 좀 만들게요.”

길버트의 오리그림이 있는 쇼핑백에는 쌀과 다른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먹어대는 양이 너무 많아,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온 목적에 대한 얘기를 듣자, 길버트는 젓가락을 밥그릇위에 놓았다. “몇 개의 식당을 빼고는, 차이나타운은 지금 퐁퐁 잠겨있어. 그 애가 이 근처에 있다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아까 그 놈들이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기를 바라요.” 엄마가 말했다.

“너는 좀 쉬도록 해라.” 제 아저씨가 과자 한 줄을 엄마의 무릎위에 놓았다. “나에게 말하고 저녁이나 먹도록 해라, 사탕도.” 그리고 전화로 다가가 다이얼을 눌렀다.

따스함과 불빛, 그리고 익숙한 회사의 광고판이 정신을 살어나게 한 듯, 할머니는 아저씨에게 무언가 얘기했다. 아저씨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기쁜 듯이 자신의 무릎을 쳤다.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문을 연 식당들 중에 그 애가 있는 지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하는구나.”

“보셨죠? 여기 많은 친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아저씨는 전화에 대고 빠르게 얘기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 보았다. “어떻게 생겼니?”

엄마가 가방을 열어 왕 부인에게서 받은 사진을 꺼냈다. 잘 보이지 않는 듯, 아저씨가 사진이 있는 손을 자신의 눈으로부터 멀리 뺐었다. 첫 번째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다시 다이얼을 돌렸다. 할머니가 광동어로 질문하자, 아저씨가 대답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였다. 그래서 나는 팔꿈치로 엄마를 툭 찼다.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길버트가 설명해 주었다. “지금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밖을 좀 내다보라고 하

고 있어. 모든 구역의 사람들에게 밝을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이곳에 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산등성이의 보초병들처럼 거리를 감시하고 있을 그 모든 노인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우리가 흥춘을 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야…….” 할머니가 제 아저씨를 가리키며 활짝 웃었다. “예전 차이나타운과 똑 같군.”

할머니가 마음의 눈에 대해 어떻게 말했었지? 할머니는 마음의 눈이 깨끗하기만 하면 무엇인가가 괜찮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눈이 떠진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내 머리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 9장

열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아저씨는 수화기를 놓고 사진을 집어 들었다. “이제 산책을 나갑시다. 시내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팩스로 이 사진을 전송해야겠어요.”

나이 들어 은퇴한 사람이 팩스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좀 이상하게 생각됐다. “팩스기계가 흔히 있는 건가요?”

아저씨가 팔로 커다란 원을 그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든 중국인 가게는 대부분이 팩스를 가지고 있단다.”

“네가 만약 광둥어를 하는 사람인데, 북경어를 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전화하는 것보다 편지를 하는 게 쉬울 거야. 광둥어든 북경어든 한자는 같으니까.” 길버트가 설명해 주었다.

“문 연 곳이 있을까요?” 할머니가 초조해 했다. 할머니와 엄마의 말 속에는, 얘기할 수록 점점 길버트하고 아저씨와 닮은 억양이 살아났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열려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에요.”

길버트가 덧 붙였다. “여기 몇 군데가 문 닫았다고 해서 도시의 다른 곳도 전부 닫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도 팩스기계는 계속 켜져 있으니까요.” 나는 할머니가 기운을 차린 게 기뻐다. 길버트와 제 아저씨는 할머니에게 필요한 강장제였다.

제 아저씨는 할머니와 거의 비슷한 수의 많은 조끼와 스웨터를 껴입었다. 코트를 입을 때까지 안에 너무 많은 옷을 껴입어서, 코트 단추를 잠글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일층으로 내려가며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제 아저씨는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길버

트만큼이나 편하게 움직였다.

재미있게도 차이나타운에서는 할머니도 나만큼 이방인이었다. 중국약초가게를 지날 때, 할머니는 커다란 유리 항아리에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보기위해 멈춰 섰다. “새로운 가게네. 그리고 저걸 좀 봐.” 그리고 할머니는 중국어로 아저씨에게 무언가 말했다.

아저씨는 자신이 마치 가게 주인인 양, 자부심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미국의 법이 바뀌어서 약초와 향 모두 제대로 된 물건으로 살 수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군요.” 이름을 기억하려는 듯 할머니는 가게를 응시했다.

길버트는 우리보다 한 보 앞서서, 주위 깊게 한 눈은 우리를 보고 다른 한 눈은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그리고 가족들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저씨가 코웃음 쳤다.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오지 말았어야 했어.”

아저씨의 그 말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가족들과 여기에서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할머니의 팔꿈치 쪽에 가까이 서 있었다. “그 때는 언제나 가족들만 생각했지. 만나면 서로 뭐라고 할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 모두 행복할거라고 생각했지.”

엄마가 심리학 전문가의 말투로 말했다. “그래서 다시 합쳐진 것이 아저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나요?”

아저씨가 어느 정도 수긍했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들들은 철이 없었어. 나에게 왜 이 집이나 다른 곳의 가격이 쌀 때 사지 않았느냐고 묻더군.”

“그 때에, 누가 돈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동정했다.

아저씨는 넋더리난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들에게, ‘너희는 중국인들 틈에서 자라났다.’고 말했죠. 그 애들은, 여기서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너희들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못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돈 버는 일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라고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저씨가 할머니의 동의를 구했다.

“모든 게 변했어요. 사람도 변했죠.”

“틀림없이요.” 우울한 아저씨의 목소리는, 그게 더 나은 쪽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말하는 ‘그 아이들’이 예순이 넘었다는 걸 알아두렴.” 길버트가 나에게 속삭였다.

아저씨는 자식들과의 다툼이 오래된 일이라는 듯이 툭툭거렸다. “어린애들이야. 아는 거라고는 사고, 사고, 또 사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개들의 아이들은 더 해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저씨는 몸서리쳤다.

아저씨가 자신이 아들들보다 증 조카인 길버트와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나에게서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길버트도 아저씨와 같이 오래된 차이나타운 사람이었다.

길버트는 자신의 친지들인 아저씨의 아들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편이었다. “가족 중에 어떻게 돈을 버는 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쁘진 않지.”

비탈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우리는 보도가 고르지 않거나, 지하로 뚫려있는 평평한 철문이 가까워지면 할머니에게 알려주었다.

우리의 느린 보폭은 대화하기에 안성맞춤이었는데, 몇 걸음씩마다 두 사람의 친구들이 살았거나 가게가 있었던 곳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나는, 네 사람이 하는 얘기를 쫓아갈 수가 없었다. 내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내가 들었던 것은, 너무도 많은 이름들과 장소들이었다. 알마덴으로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와 엄마로부터 좀 더 작은 용량의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놀이터를 지나갈 때,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서 나는 깜짝 놀랐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가속도에 밀려 내가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겼고, 그 덕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네 할머니는 스포츠클럽 회관 밑의 코트에서 농구를 하곤 했었지.”

엄마가 들떠서 우리 쪽으로 바짝 다가왔다.

“어머니가 농구를 하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칠조망 울타리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글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뒤로 높은 콘크리트 빌딩이 보였다. “저 곳에 스포츠클럽 회관과 탁구테이블이 있었단다.”

길버트가 우리의 어깨위에서 그 곳을 응시했다. “건물 안에 아직도 농구코트가 있어요.”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딸을 보고 있는 듯이 잠시 울타리에 매달려 있었다. “저기에서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만났지.”

“낭만적이에요.” 내가 말했다. 외조부모가 옛날에 차이나타운에서 농구를 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언덕 아래 골목어귀에 있는 아파트 건물 하나를 가리켰다. “저 집은 그때 네 조부모 친구의 것이었지. 아파트가 비기만 하면, 모두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추었다.”

“창피한 춤이었어.” 제 아저씨가 할머니를 놀리며 폴짝하고 뛰었다. “그때 당신이 추는 것도 보았어요.”

“지금 그 춤을 봐야만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아, 그 사람이름이 뭐였죠?”

“집 주인은 내 삼촌인 셔먼이었어요.” 길버트가 말했다. “십년 전에 홍콩회사에 팔아서 지금은 임대료가 세배가 됐어요.”

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나는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창문 블라인드에서 나의 조부모가 경충거리기도 하고, 뱅뱅 돌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실루엣이 비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할머니에게 아직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여러 종류의 아파트와 가게의 임대료에 대해 얘기하느라고 바빴다. 세 사람에게는 가고 없는 세상을 다시 방문하고, 과거의 순간들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새로운 홍콩 집 주인은 한 달에 삼천달러를 원해요.” 제 아저씨가 말했다. “삼천 달러라니. 얼마나 많은 볍음 면을 팔아야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계산하느라 눈알을 위로 굴렸다. “한 육천 그릇인가?”

제 아저씨가 진저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니 식당이 비어있지. 욕심만 부리는 바보.”

할머니가 놀이터에서 돌아서며 팔을 내밀자, 내가 잡았다. “……가 이전에는 식당이었어.” 나는 할머니가 말한 식당의 중국이름을 못 알아듣고 놓쳤다. “나이트클럽이었지. 네 조부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친구들과 함께 그 클럽을 빌렸어. 그리고 모두 멋지게 차려입었지. 오, 모두가 너무 멋있고 예뻐단다.” 할머니는 한숨을 뱉 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떠나버렸어.”

“그래요.” 아저씨가 수긍했다.

할머니의 다른 한 쪽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엄마를 보았다. 차이나타운에서, 엄마보다는 외조부모님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있었다. “이곳에서 살 때 어땠어요?”

“나는 아주 좋았어.” 엄마가 온화하게 대답했다.

길버트가 그걸 보면서 웃었고, 엄마의 그 모습에 아저씨와 할머니조차 미소를 지어

야 했다. “레프트 크로스와 흑이 있었지.” 길버트가 복싱 자세를 취했다. “아무도 네 엄마를 건드리지 못했단다.”

나는 놀라움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이 분이 바로, 너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톰과 제리’ 만화도 못 보게 하신 그 분인가요?”

엄마가 짜증스런 눈으로 길버트를 한 번 노려보았다. 만일 내가 그 곳에 없었다면, 엄마는 자신의 깊고 어두운 비밀을 폭로한 이유로 길버트에게 레프트 크로스과 흑을 날렸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자랄 때 몇몇은 그랬어, 스테이시.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 엄마가 말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다녀.” 길버트가 말했다. “너는 너에게 강도짓을 하려는 무리들과 싸우지 않을 만큼 똑똑하지. 나는 너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

“무슨 말이야? 너도 선생님이잖아.” 엄마가 길버트를 북돋아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길버트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 기회에, 나는 창문 맞은편에 커튼이 달려있는 가게를 가리켰다. “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 엄마가 설명했다. “안에는 여자들이 천 조각들로 미국식 옷을 만들고 있어. 셔츠, 블라우스, 드레스. 어떤 것들은 비싼 가게에서 팔리고 있기도 하지.”

“저런 곳들도 이제는 거의 차이나타운 밖으로 이사 갔어.” 길버트가 말했다.

“어디를 가도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숨이 막힐 거야. 주인은 같으니까.” 엄마가 파란색과 노란색 물방울무늬가 있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곳을 가리켰다. “핑키가 여전히 주인이야?”

“아니. 오래전에 팔았어. 딸이 뉴욕에서 크게 성공한 디자이너이거든.”

“왜 그 사람을 핑키라고 불러요?” 엄마에게 물었다.

“그게…….” 엄마는 웃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새로 고용한 직원들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했거든. 나는 청소하는 거 외에 다른 이상한 일들도 했었던단다.”

한 때 엄마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원룸 아파트를 생각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도박을 했었다는 건 몰랐다. 어린 시절이 마냥 행복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을 엄마의 성격과 대비하는 것은 쉬웠

다. 아마도 그게 엄마로 하여금 종종 짜증내는 사람으로 만든 이유였을 것이다.

“신문배달 후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엄마는 계속 얘기했다. “옷감을 조각으로 자를 때, 옷감더미에 특수한 톱을 사용하곤 했지. 그러면 많은 조각을 한꺼번에 자를 수 있어. 내가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소리치며 손을 들었지.” 자신의 손을 들어 엄마는 네 손가락을 보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 손가락이 잘렸으니 나에게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손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꿇어 살폈지. 그리고 나서 나는 새끼손가락 비슷한 걸 발견했어. 그러자 그가 나에게 접촉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고 손가락을 다시 붙이도록 했지. 내가 그렇게 하자, 그의 손가락이 다시 붙었어.” 엄마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 가짜 새끼손가락은 미국소시지였다고 생각해. 심지어 그걸 따뜻하게 덥혀놓기까지 해서 완전히 속았어. 핑키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렸어.”

기억을 떠올리며 웃는 엄마의 얼굴은 몇 년이나 더 젊어보였다. 그건 내가 이 도시에서 어린 시절 경험했던 짧은 여행 동안은 물론, 이전에도 본적이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엄마 역시도 차이나타운에 속한 사람이었다. 중년의 전문직 여성, 케이시 영 팔머박사, 결혼질 한 번과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사람을 꿰뚫어볼 수 있는……, 그 것만이 내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엄마의 말은 여전히 나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신문배달 말고 다른 일도 견뎌냈군요.”

엄마는 사랑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꼭 안았다. “어려울 때였지만, 할머니는 나에게 대학을 가기위한 돈을 저축하도록 했지.”

할머니는 사랑과 확신이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나는, 설사 엄마가 그 길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니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바느질은 나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네가 아니라.” 할머니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에게 지금의 자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다. 엄마가 왜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음에 나의 태도에 대해 엄마와 ‘토론’을 할 때가 오면, 나는 오늘의 이 일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단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그렇게 하듯, 누군가 열렬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원할 뿐이었다. 나는 나의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길 원했다.

“다른 일은 어떤 걸 했어요?”

“정직하게 별수만 있다면 뭐든지.” 엄마는 소심하게 어깨를 구부렸다. “진짜 듣고 싶지 않을 거야. 지루해 할 거고.”

할머니와 함께 같은 거리를 걷고 있는 어린 소녀가,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가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어.”

엄마를 대학으로 이끌고, 그 이후의 일도 성취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더 얘기해줘요.”

엄마는 의아스럽다는 듯이 눈썹을 모았다. “알마텐에서는 내가 차이나타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했잖니. 네가 그걸 뭐라고 불렀었지?” 그 구절을 생각해내고는, 엄마는 천천히 발음했다 “내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모임.”

두 볼이 벌게지는 게 느껴졌다. 내가 투덜거리며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은 게 분명했다. “그 전에는 이곳을 몰랐잖아요.” 나는 거리를 한번 둘러보았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에,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거리를 살피며 엄마는 내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너와 너의 아빠가 나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잊고 있었어. 이곳에서, 나도 진짜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단다.”

“엄마도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 만한 나이 때까지, 나도 여기서 살지 않았어.”

보통은 나를 또 하나의 분석 자료로서 엄마에게 내 보이는 일은 피해왔지만, 오늘은 엄마와 얘기하고 싶었다.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재미있고요. 하지만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엄마는 입을 오므리고 살짝 웃었다. “우리 사이의 다른 점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모든 걸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나도 인정해야만 했다. “나도 또 다른 내 자신에 대해 몰라요.”

엄마가 자신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나야말로 따분한 사람이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네 엄마는 따분한 괴짜가 아닌 거지?” 엄마가 수줍게 물었다.

“엄마의 말투만 빼고요.”

“나도 전에는 운동복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었어.”

“정말요? 하지만 옷이랑 보석, 모두 고상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엄마보다 더 멋있게 차린 엄마는 본 적 없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나의 본모습을 알아차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를 차이나타운으로 돌려보낼 것만 같아.”

“내가 사람들에게 엄마의 일을 말할 것 같아요?”

한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엄마는 내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네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

코끝이 찡해 오는 게 느껴졌다. “저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씩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재미있구나. 나도 너랑 똑 같은 생각을 했는데.”  
엄마와 나는 둘 다, 먼저 상대에게 팔을 내미는 걸 두려워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한 팔을 올렸고, 나는 다가가 안겼다.

엄마의 어깨 너머로, 나는 제 아저씨가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구나.” 아저씨가 엄마의 손목을 가리켰다.

내가 뒤로 물러나고, 엄마는 팔찌의 부적을 내 보였다. “이게 없으면 안돼요.”

둘 사이에는 뭔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는 듯 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 도시 근교에서의 부유한 삶보다 훨씬 더 많은 엄마에 대한 일을 알아낸다는 것이 슬프게 생각됐다. 비록 엄마는 이곳과 알마덴에 각각 하나씩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두 곳 모두에서 따돌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골목 입구에서 길버트는 잠시 멈춰 서서, 사고를 대비해 어두운 출입구를 살폈다.

앞 쪽에서 나는 문과 창문에 무거운 쇠창살들을 달아 가게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전한가요?” 그 녀석들이 생각이 나서 물었다. “밤이니까 너무 먼 곳까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길버트가 내 쪽으로 돌아섰다. “방금 일어난 일로 차이나타운 전체를 판단하지 말거라. 여기서는 늘 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해. 지금은 도시 전체가 그런 것도 사실이야.”

“사실 여긴 위험한 거리가 아니야. 저 가게들은 보석을 파는 곳이라서 그래.” 길버트가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갈 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비어있는 붉은 벨벳 천뿐이고, 보석과 금은 모두 감추어둔 상태였다.

“버저를 울리고 나서, 네가 돈이 있다고 생각되면 문을 열어줄 거야.” 제 아저씨가

엄지손가락으로 잠금단추를 누르는 시늉을 했다.

“모두가 요새처럼 변했어.” 길버트가 말했다. “심지어는 케이시의 옛날학교도 낮부터 뽕뽕 잠겨 있어.”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지 않아요.” 한 눈으로는 흥춘을 찾으려서 내가 말했다.

“아마도 내가 고집이 센가 보다.” 길버트가 결눈질로 나를 보며 히죽 웃었다. “아니면 내가 바보이든가.”

“아니야, 여긴 네 고향이니까.” 아저씨가 길버트에게 말하며 나를 향해 손짓했다. “낮에 오면 완전히 다를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식품을 사기위해서는 가게로 가지. 증조할머니와 함께 다시 나를 찾아 오거라.”

“아저씨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걸요.” 엄마가 할머니의 팔짱을 껴다. “네가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일거야.” 엄마는 팔을 휘둘러 큰 원을 대충 그렸다. “몇 걸음 못가서 다시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게 계속 되겠지. 오렌지 한 근을 사는 데도 두 시간은 족히 걸릴 거야.”

할머니가 엄마의 팔을 토닥였다. “지어내지 말거라.”

길버트가 웃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사실인걸요, 아주머니. 몇 걸음 건다가 말하고, 다시 몇 걸음 건다가 말하고.”

“그런 시절은 지났어. 많은 나의 친구들이 죽거나 떠났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많아요.” 제 아저씨가 주장했다.

길버트가 아저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삼촌이랑 함께 길을 걸을 때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아저씨가 조금도 주저 없이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네가 아주 예쁘다고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하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얘기하마. 나를 믿으렴.” 아저씨의 눈 속에서 빛나는 광채가, 그 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의 그 말은, 비록 좁은 인도를 걷고 있는 몇 사람에게 불과하지만, 내가 무언가에 속해 있는 것 같은 좋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 마음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었지? 하나의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를 찾게 될 것이다.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10장

제 아저씨는 웨딩숍 같은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광고 문구에는, 그 곳의 디자이너가 홍콩 전체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었다. 오렌지와 흰색의 텍시도는 정말 엉망이었고, 웨딩드레스는 더 끔찍했다. 그 중 하나는 은색 스팅글로 가장자리마다 온통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불쌍한 마네킹은 마치 금속 거품 속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다른 몇 개의 예복들은 마치 라스베가스쇼에서 조차 입을 수 없을 것처럼 더 번쩍거리는 옷들도 있었다.

“손자가 홍콩여자랑 결혼했어. 여기는 손부의 가게란다. 5달러를 주고 나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지.” 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찾으며, 아저씨가 설명했다. “그 애가 하는 중국어를 내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영어로 대화해.” 아저씨는 짤랑대는 열쇠꾸러미를 들어 가로등이 비추는 곳으로 팔을 뻗고는, 열쇠하나를 골라 문을 열었다. “들어와요, 들어와.”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아저씨가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우리는 마네킹들의 옆을 지나, 한 줄로 걸으며 어두운 가게로 들어갔다. 위에 걸친 예복들 때문에, 마네킹들은 거꾸로 선 꽃들처럼 보였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자, 아저씨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우리 모두를 옆걸음질로 지나쳤다.

“이쪽으로.”

어둠속에서, 내가 아저씨를 따라 가게 뒤쪽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내 팔에 의지했다.

아저씨가 불을 켜자, 우리는 사무실 안에 가득 찬 박스와 정리함들을 볼 수 있었다. 아저씨는 팩스 기계를 찾아서 책상위의 종이 더미들을 뒤졌다. “길버트, 그 쪽에 의자가 하나 있어.” 아저씨가 상자가 쌓인 곳을 가리켰다.

길버트가 미심쩍어 하면서도 상자들을 한 쪽으로 치우기 시작하니, 의자 하나가 나타났다. 길게 숨을 내뿔으며,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아저씨가 종이 위에 무언가 쓰는 동안, 할머니와 엄마는 길버트와 얘기를 나누었다. 테이프로 홍춘의 사진을 종이위에 붙인 아저씨는 그걸 기계 안으로 넣었다. 번호를 누르고 팩스를 보내려고 했지만, 사진이 기계에 걸리고 말았다.

투덜거리던 아저씨는 길버트에게 다른 박스들을 옮겨 작은 복사기가 보이도록 했다. 복사가 끝난 사진을 엄마에게 돌려주고, 편지를 쓴 종이와 사진을 복사한 종이를 다시 기계에 넣었다.

기계가 두 장의 종이를 받아들이자, 아저씨가 팩스 기계에 흐뭇한 칭찬의 말을 건넸다. 종이를 접어 자신의 포켓에 넣기 전까지, 아저씨는 같은 행동을 열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팩스를 보낼 거야. 이제 도시 모두가 그 애를 찾게 되는 거지.”

우리가 줄지어 팩스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가기를 기다려, 아저씨는 불을 켜고 나서 우리 앞으로 가 문을 열었다. 모두가 가게 밖으로 나온 후, 아저씨가 다시 문을 잠갔다.

“그 애를 찾을 거야, 틀림없어.”

아저씨의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세 번째 잔을 막 마셨을 때, 할머니와 아저씨의 친구 중 한명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홍춘이 자신의 집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빨리 그 곳을 찾기 위해, 우리는 차를 탔다. 할머니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아저씨도 자연스럽게 우리와 동행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 하는 길버트도 역시 함께였다. 차이나타운을 통과하는 동안, 차 안은 꽤 비좁았다.

우리를 태우고 그랜트 에비뉴를 향해 길을 내려가며, 엄마는 기념품 가게들로 둘러싸인 곳의 쇼윈도 진열품들을 힐끔 쳐다보았다. “내가 어릴 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네.”

하지만 길을 따라 가자, 중국인들은 훨씬 적어진 것 같았다. 대신에 카메라나 도자기인형 같은 멋진 조각상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다. “주인도 중국인이 아니야.”

“온통 여행객들뿐이야.” 길버트가 덧붙였다. “어부들의 부두’나 ‘다운타운’, 또는 ‘디즈니랜드’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기념품 가게가 차이나타운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게 다 뭐예요?”

“우리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들처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수많은 네온사인 밑을 지나갈 때, 나무라듯 할머니를 쿡 찌르는 아저씨의 얼굴에 무지개가 스쳐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봐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마텐에서만 살 수가 있죠?”

“거기도 중국인들이 많아요.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죠. 그리고 식당들도 여기만큼 좋아요.” 할머니와 아저씨는 어떤 연령에도 이처럼 활기가 넘치는 커플일 것이다.

“제가 집에 뭔가 사들고 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엄마가 말했다.

“네가 우쭐덜까봐 그랬지.”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꺼내며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스카프도 못 매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신이 없었다.

“당신도 차이나타운을 그리워하고, 차이나타운도 당신을 그리워해요. 돌아와요.” 아저씨가 할머니를 재촉했다.

잠시 동안 할머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에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알아차린 나는, 제발 우리 곁에 있어 달라고 할머니에게 빌고 싶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만일 할머니가 떠나버린다면, 내 인생에는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므로, 대신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숨을 꼭 참고 있었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나는 새와 나무, 그리고 꽃이 좋아요. 사위가 정원을 아주 잘 가꾸어요. 나중에 체리를 좀 가져다줄게요. 정말 예뻐요. 고약한 냄새가 없는 것만 빼고는, 중국에 있는 우리 마을의 풍경이랑 같아요.”

어깨에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머리로부터 스카프를 뒤집어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 내가 할머니의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드렸다. “고약한 냄새요?”

“농장이 있는 곳에는 거름이 있었지.” 엄마가 설명했다.

아저씨가 처음에는 할머니의 어깨를, 다음에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에 차이나타운을 간직하고 있어.”

할머니가 내 쪽으로 숙이자, 내가 스카프를 턱 밑에 매드렸다. “만일 차이나타운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나머지 인생은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는 경고하는 듯 모가 나 있었는데, 마치 감히 자신에게 반박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곳에 오기위해 커다란 바다를 건넜어요. 남쪽으로 몇 마일 더 가는 게 어때서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도 흥춘이처럼 행동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랬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흥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에는 할머니는 너무 개방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갈망이 너무도 컸다.

“저희 집에 한 번 오세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엄마가 제안했다.

“새와 꽃을 보러가기에는 너무 늙었어.” 아저씨가 실망감에 투덜거렸다.

길버트가 기대에 차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차 앞 유리 너머를 가만히 응시했다. “저기서, 천천히.” 그리고는 출입구 쪽의 하얀 형체를 가리켰다.

엄마가 차를 세우자, 눈부시게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손을 흔들며 인도 쪽으로 나왔다. 길버트가 앞 유리창을 내리는 동안, 남자는 주차되어 있는 두 차 사이를 비집고 다가왔다. 뒤 좌석의 아저씨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남자는 할머니를 보자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 남자는 당면해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 “가게 쓰레기통에서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고양이려니 생각했지. 그 아이였어. 저 모퉁이에 있어.”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다니……. 나는 흥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다. 공주처럼 살다가 갑자기 그런 처지가 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 애에게 되갚아주려던 마음이 싹없어졌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할머니가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너무 어두워요, 할머니.”

“나를 도와다오.” 할머니가 내 팔을 움켜잡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 쪽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남자의 가게에서 중국어 책과 잡지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가 쓰레기통의 음식을 못 먹게 했어야지.” 제 아저씨가 남자를 나무랐다.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읽고 있었어요.” 남자가 억울해하며 말했다.

“그랬을 거야.” 주차된 차들 사이로 발을 끌며 할머니가 속삭였다. “왕 선생이 말하길, 흥춘이 많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럼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니?”

“감옥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아니, 네 마음속에서.” 강하고 결단력 있는 발걸음으로 할머니는 인도로 올라섰다.

“말릴 수가 없어.” 엄마가 뒤에서 말했다. 엄마와 나는 커다란 원양어선을 항구로 인도하는 두 척의 예인선 같았다.

할머니가 어깨너머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네가 항상 가던 곳을 생각해 보렴.”

“미국 만화책을 읽었어요.” 잠시 후에 엄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중국 만화책을 찾으려고 했을 거야.”

“저한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홍콩 거예요.” 책가게 점원인 남자가 우쭐했다.

아니나 다를까, 홍춘은 입구에 쭉그리고 앉아 흑백 만화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로등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발밑에는 읽고 난 만화책들이 더 많이 있었다.

“홍춘아…….” 엄마가 부드럽게 불렀다.

머리를 번쩍 쳐든 홍춘은 나를 보자 입구에서 후다닥 일어섰다. 길버트가 그 애를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고 인도위로 넘어졌다.

엄마에게 할머니를 맡기고 뒤를 쫓았지만, 너무 빨랐다.

“홍춘, 기다려!” 혈떡거리며 내가 말했다.

헉헉대며 홍춘이 머뭇거렸다. 흑백 만화책이 그 애의 손에 들려있었다. 가로등에 비치는 그 책의 페이지를 보니, 로맨틱 만화인 것 같았다. “원하는 게 뭐야?” 홍춘이 미심쩍게 물었다.

그 애가 놀라서 다시 달아날까봐,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왔어. 너희 부모님이 몹시 걱정하고 계셔.”

홍춘이 도전하듯이 내 쪽을 쳐다보았다. “내가 도둑이라고 생각해?”

아직도 확신이 없어,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가 흠친 것도 아니니, 그 애가 도둑이어야만 말이 됐다. 나로서는 이제 그 애가 나에게 한 말에 대해 갚아 줄 시간이었다. “나를 그렇게 불러놓고, 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홍춘이 입을 꼭 다물었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나쁜 것은 잘 외워.”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그래서 너도 중국인인 거야.” 홍춘이 미안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 그리고 그 애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해. 여기는 많은 것들이 이상하고 낯설어. 너무 무섭고 화가 났어. 그래서 너에게 퍼부은 거야. 그렇지만 그 물건들은 내가 흠친 게 아니야.”

진심어린 사과에 그 애가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확신이 좀 더 흔들렸다. 홍춘이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만일 홍춘이 진짜 마음도둑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거지? 각각의 주인들에게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는 전혀

비밀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물건들을 훔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장난치길 좋아하는 제프일 수도 있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을 물건을 잃어버린 척 했는지도..... 하지만 어떻게 그 물건들이 내 사물함 가방에 있을 수 있지?

할머니라면, 이 상황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너는 도둑이 아니야.” 내 뒤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홍춘이 손에서 만화책을 떨어뜨리고는 내 옆을 지나,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홍춘은 그 팔로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리고 계속 할머니를 안은 채로 울음을 터트렸다. 나는 질투를 느끼며, 그 애의 손에서 떨어진 책과 바닥에 있던 다른 책들을 집어 들었다.



## 11장

차로 돌아가면서, 홍춘이 내 대신 할머니를 부축했다. 심리학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엄마였지만, 겨우 뒤에서 홍춘의 등을 토닥거릴 뿐이었다. “다 잘 될 거야.”

“어떻게요?” 홍춘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훔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훔친 거예요.”

너무 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자기편으로 만들더니, 지금은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다. “네 누명을 나한테 씌우려고 하지 마.” 내가 쏘아붙였다.

“홍춘이가 왜 너한테 그러겠니?” 엄마가 물었다.

“애 말고는 가방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야. 왜냐하면 그게 내 사물함에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기 전에 잠시 뜬눈을 들었다. “네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훔친 게 분명해.”

“어떻게 아세요?”

“너를 믿어.” 할머니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홍춘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리고 홍춘이도.”

개인적으로, 나는 할머니의 믿음이 절반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춘은 열렬히 동의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해요. 우리 둘 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홍춘에게로 다가갔다. “홍춘아, 너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

“무엇보다도 더요.”

“그렇다면…….” 일단 단단한 콘크리트 보도위로 올라서자, 할머니의 걸음이 빨라졌다. “뺏을 놓아라.”

“수사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엄마가 웃었다. “하지만 효과만 있다면 좋은 생각이네요.” 엄마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견해를 말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제안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홍춘아.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하자꾸나.”

홍춘은 감사하다는 말을 웅얼거리고는 차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버트와 제 아저씨는 아저씨의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엄마는 두 사람과 가게 점원에게 감사의 말을 여러 번 하고는 만화책도 돌려주었다.

그동안 나와 홍춘은 할머니가 차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할머니는 바쁘게 인사하는 엄마를 흘끗 보고는, 홍춘에게 속삭였다. “뺏을 놓아라. 진짜 도둑이 안심하고 다시 훔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학교로 돌아가야 해. 사람들이 쳐다보고 쭈군댈 거야. 견딜 수 있겠니?”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홍춘이 너무나 진심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애가 훔친 게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뒤 좌석에 폴썩 주저앉았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뺏에 미끼를 놓으려면 도움이 필요할거야.”

오히려 홍춘보다도 더, 나도 학교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홍춘은 절망에 차서 나에게로 향했다. “제발, 나를 도와줘.”

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쉬, 케이스가 온다.” 안전벨트를 매면서 할머니가 경고했다. “나중에 엄마가 없을 때 다시 얘기하자. 네 엄마는 똑똑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을 믿고 있어. 네가 말만 하면, 그들이 옳게 행동할 거라 생각하지. 사람들에게 뺏을 놓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운전석 쪽의 문을 열었다. 손에는 한 묶음의 만화책이 들려 있었다. “네가 가져도 된다고 하는구나, 홍춘아.”

운전대를 잡으며, 엄마는 홍춘에게 넘겨주라며 나에게 만화책을 건넸다. 앞좌석에서 뒤로 돌았을 때, 나는 할머니가 홍춘을 위로하기 위해 그 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어 다정하게 나의 팔을 꼭 쥐자, 나는 찌릿하고 퍼지는 또 다른 순간적인 질투를 억눌러야만 했다.

고속도로로 향해 가면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중국어 방송을 찾아볼게요.” 한 손은 핸들에 고정시킨 채, 엄마는 라디오 채널을 찾았다. 그러자, 팔찌의 부엉이 장식이 핸들의 플라스틱 부분에 부딪혔다.

뭔가 간절히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고 싶어 하는 듯이 보였던 홍춘이 주목했다. “중국 장식품 같아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제씨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야.” 장식품의 줄무늬를 볼 수 있도록 엄마가 팔찌를 들어 올렸다.

“무슨 돌이에요?” 홍춘이 궁금해 하며 물었다.

“이건…….” 할머니가 광동어로 말하자, 홍춘이 더욱 궁금해 했고, 할머니는 손을 뺀 어 앞좌석 등받이 뒤를 툭툭 쳤다. “그 단어가 뭐였니?”

“꿈의 돌이에요.” 엄마가 해석을 했다. “인장으로 쓰였던 거란다.” 엄마는 편지위에 인장을 누르는 시늉을 했다.

홍춘이 앞의 두 좌석사이로 몸을 기울이고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이예요?”

“부엉이야.”

홍춘이 의아해하며 자신의 머리를 긁었다. “하지만 부엉이는 행운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사악하고 경멸의 대상인데……. 왜 그걸 원하셨어요?”

부엉이가 움직이도록 엄마가 손을 흔들었다. “중국에서는 그럴 거야. 하지만 미국에서 부엉이는 지혜로운 동물이지.”

홍춘은 뒤로 물러나 앉으며, 자신은 미국과 중국, 둘 중에 어느 쪽의 신화를 믿을 것인지 결정했다. “저라면 차지 않을 거예요.”

라디오에서 중국말이 쏟아져 나오자, 엄마는 한 쪽 손을 마저 핸들에 고정시켰다. “네 생각에는, 너희 부모님이 네가 학교에서 도망가길 원했을 것 같니?”

“아니요.”

“그럼, 어느 면에서는 너의 행동이 부모님에게는 무례한 일이었을 거야.”

“네.” 홍춘이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래도…….” 엄마가 구슬렸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한테서 벗어난 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일에 있어서 한 행동이 똑똑할 수도, 무례할 수도 있는 거네요.” 홍춘이 사려 깊은 대답을 했다.

“그 일이 내가 이곳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누군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진심으로 돕고 싶어.”

“고마워요.” 홍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아주머니는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신고하기도 하시나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하다면.”

엄마의 말을 듣고, 홍춘이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그럼 교정을 받게 되나요?”

그 애의 말에는 뭔가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자신의 의자위에서 몸을 꿈틀했다. “교정? 네 마음속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데?”

“사회를 해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요.” 홍춘이 책에 쓰여 있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듯이 말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엄마가 차를 멈췄다. “육체적인 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하지만 너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니?”

홍춘은 지금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머니는 많은 기관과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가 차의 기어를 중립으로 놓았다. “나는 심리학자이지, 정부의 스파이가 아니야. 여기서도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어.”

홍춘은 오직 할머니만 믿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에게 물었다.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할 수 있지.” 할머니가 홍춘을 안심시켰다. “문제될 게 없다.”

“저희 부모님들은 정치적인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하세요.” 홍춘이 겨우 안심한 듯이 말했다. “그런 시대에 자라셨어요. 저희 아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돼지농장에서 5년이나 돼지 먹이는 일을 했어요.”

홍춘의 말이 나를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 뒤 좌석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게 언제서? 내 사촌은 버클리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학위까지 받은 뒤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오레곤에 가서 방직공으로 일하고 있어.”

홍춘은 한 쪽 입 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우리 아빠는 재교육을 받았던 거야. 홍위병들이 말하길 우리 아빠가 너무 똑똑해서 정련이 필요하다고 했대.”

물론 나는 공영방송의 중국관련 특집 프로그램들을 봐야 했지만, 그런 내용이 마치 전염병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을 피해 왔었다. “홍위병이 뭐야?”

누군가 이전에 복잡한 주제를 설명할 때 그랬던 것처럼, 홍춘은 잠시 멈췄다. “홍위



병이란 혁명의 순수함을 회복하려고 했던 젊은이들을 말해. 그들은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보 모자를 쓰고 거리를 행진하도록 했어.”

오늘 아침에 홍춘이 왜 그렇게 냉담했었는지 조금은 이해해 갔다. 만일 나도 그런 곳에서 왔다면, 나 역시도 모르는 사람들을 경계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원이 있는 큰 집에서 살았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일을 겪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거지.”

홍춘은 빨래를 너는 시늬를 했다. “큰 집에 살았어. 하지만 열 가구가 넘게 같이 지내야 했어. 과수원의 나무들은 빨감으로 다 잘리고 잡초만이 무성했지. 우리는 거기서 빨래를 말렸어.” 홍춘이 미소 지었다. “그런데 네가 그 곳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도록 말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 홍춘에게도 유머라는 게 있었다. “네 농담은 실비아랑 똑 같아.” 엄마가 빨간 신호에 멈춰 서자 내가 말했다.

자신의 안전벨트 잠금장치를 쥐고, 홍춘은 할머니 것은 어떻게 잠겼는지 골똘히 쳐다봤다. “실비아?”

그때서야 나도 내 안전벨트가 생각났다. “토끼 발을 가졌던 여자 애 말이야.”

홍춘은 자신의 벨트를 거칠게 잠갔다. “나는 개랑 완전히 달라. 개는 못됐어.”

나도 내 안전벨트를 매면서 실비아를 변호했다. “개네들은 홍위병이 아니야.”

“그건 모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자신의 벨트가 잘 잠겼는지 확인하며 홍춘이 말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내 가방에 있는 걸 보고, 나는 부모님이 겪었던 일이 생각났어.”

나의 아빠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나 역시도 오늘 오후에 도망을 쳤을 것이다. “부모님이라니, 엄마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집 현관 계단에 서있던 긴장한 여인이 생각났다.

홍춘이 두 손을 접었다. “우리 엄마는 시인이었어. 하지만 홍위병이, 엄마가 타락한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엄마의 모든 시집을 불태우게 했어. 그 후에는 두려움에 질려 어떤 시도 쓰지 않으셔. 만일 그들한테 적발됐다면, 진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엄마도 자신의 안전벨트를 땀다. “시 쓰기를 포기하신거니?”

“아뇨, 여전히 쓰셨죠. 하지만 머릿속에서만 썼기 때문에 적발되지는 않았어요. 어쨌

든 엄마는 무 뽑기 형벌에 처해졌죠. 무를 뽑는 동안 엄마는 자신의 시를 외우고 또 외웠어요. 후에 홍위병이 해산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그 모든 시를 다 써 내려 가셨죠.”

신호가 바뀌자, 엄마가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아마 내가 네 엄마의 시를 번역할 수 있을 거야.”

홍춘이 몸을 돌려 창밖을 쳐다보았다. “엄마의 시는 모두 중국에 남겨졌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상기시키니까요. 마지막 시까지 다 써 내려간 엄마는 다시는 쓰지 않았어요. 모든 시를 머릿속에 잘 간직했다가, 다시 그 모든 걸 홍수처럼 쏟아내니, 마음이 모두 말라버렸대요.”

“너무 슬프다.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어?”

홍춘이 창문에서 시선을 돌리자, 유리창에 입김 자국이 남은 게 보였다. “아니, 불행하게도. 하지만 엄마가 가장 좋아하셨던 시의 일부분은 기억나. 그……, 그걸 뭐라고 하지, 묻혀버린 도시를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사람을?”

“고고학자?”

“고고학자.” 홍춘이 음절을 음미하며 반복했다. “고고학자들이 이천년이나 된 고대 무덤을 발견했어. 안에는 전부 옥으로 만들어진 예복을 입은 여인이 있었지. 엄마가 그 여인에 대해 시를 썼어. 엄마가 말하길, 그 여인은 예복 속에서 아름답고도 차갑게 잠자고 있대.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채, 그녀는 깨어나길 기다리며 멋진 꿈을 꾸고 있대.”

“너희 엄마처럼.” 나는 한숨을 쉬었다.

홍춘이 내말에 응답했다. “슬픈 이야기야.” 이번만은 우리 둘이 무언가에 같이 공감했다.

“오늘 일에 대해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할거야?” 내가 궁금해 했다.

홍춘이 조금은 위엄 있게 말했다. “먼저 아빠에게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리고 둘이서 최대한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다시 말할 거야.”

“받아들이기가 힘들실 걸?”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곧잘 불안 해 하세요.” 홍춘이 덤덤하게 말했다.

나의 금세 홍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 애는 자신이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너는 틀림없이 외로웠겠구나.”

홍춘에게는 할머니와 같은 강인함이 있었다. “이미 익숙해 졌어.”

오늘 나에게, 외롭고 동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 시간이 있었다. 특히 차이나타운에서 더 그랬다. 결국 우리 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내가 잠시 동안 더 많은 중국인들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내가 중국에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마도 나는, 홍춘이 여기서 했던 것만큼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혹은 그보다 더. 나는 할머니가 옳았다는 생각과, 그 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주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나도 오늘 몇 가지 나쁜 얘기를 했어. 미안해.” 내가 인정했다.

“아니야, 잘못된 사람은 나야.”

설록 홈즈 영화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홈즈가 말하길, 만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만일 홍춘이 진짜 도둑이 아니라면, 나는 그 마음도둑이 어떻게든 내 사물함에 접근해서 홍춘의 가방에 그 물건들을 넣어 놓았다고 추정해야만 했다.

우리는 어찌면 영원히, 누군가 도둑의 정체를 밝혀주기를 기다려야만 할지도 몰랐다. 아니, 누군가 홍춘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한다면, 그 누군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해해 주지 않을 테니 말을 조심해야만 했다. 할머니의 말대로 엄마는 누군가에게 뺏을 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도둑이라고 해도.

“할머니가 부탁하신 일, 할게요.”

“그래, 착하다.” 할머니가 웅얼거리며 승낙의 말을 하고는, 슬쩍 엄마를 훑쳐봤다. 엄마는 온통 운전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안도한 할머니는 홍춘의 무릎을 만졌다. “내일 학교에 갈 거지?”

“물론이죠.” 희망에 찬 홍춘을 보며,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너무 친절하세요. 뭔가 제가 도울 만한 게 있을까요?”

“아냐, 내일 학교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단다.”

“그럴게요.” 홍춘이 열렬히 약속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마음도둑이 될 만한 다른 용의자들을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해내야만 했다.

## 12장

할머니의 요청으로, 엄마는 나와 할머니를 먼저 내려주었다.

“아무래도 부모님께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춘이 소심하게 말했다.

“길버트에게 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주고, 네가 안전한 걸 전해달라고 말했어.” 엄마가 말하고 나서 어깨너머로 홍춘을 잠시 바라보았다. “걱정 말아라. 내가 같이 들어가마.”

우리 집은 달빛 아래 누워 졸고 있는 야수처럼 보였다. 밝은 보름달이 비추는 지붕운곽위의 익숙한 형체를 보면서, 나는 내 침대가 그리웠다.

“아, 여보…….” 엄마가 아빠를 알아보았다. “역시 바람이 제대로 불고 있었구나.”

엄마가 자동차의 진입로로 들어가 아빠의 차 옆에 우리가 탄 차를 세우자,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일 년 중의 그 때가 금방 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어.”

엄마가 차의 시동을 끄고 전조등도 켰다. “아무도 나오지 말아요. 네 아빠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아직 양복에 넥타이 차림 그대로, 앞에 잘린 나뭇가지를 들고, 아빠는 경사진 지붕기와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홍춘이 앞 좌석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 “무얼 하고 계신 거예요?” 몹시 궁금해 했다.

“체리 나무를 수분(受粉)하고 있는 중이란다.” 엄마가 설명했다. “처음 여기 이사 왔을 때는 바람이 과수원에서 꽃가루를 날라 왔기 때문에, 나무 수분을 걱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집들을 짓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다 뽑아버렸단다.”

남자 체리나무와 여자 체리나무가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됐

다. 뭐가 틀린 건지 나는 모르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년 아빠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나무를 수분했다.

홍춘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했다. “그럼 왜 나뭇가지를 직접 나무위로 올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빠는 그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셔. 혹시 다른 사람의 뒤뜰에 숨겨져서 홀로 살아남은 체리나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좋은 분이시구나.” 강렬한 긍정과 함께 홍춘이 말했다.

아빠는 마침내 간신히 지붕위로 올라가는 데 성공했다. 아빠가 지붕 양쪽의 경사진 부분에 발을 올리고 서자, 달빛이 아빠의 흰 셔츠를 신비스러운 빛으로 빛나게 했다.

차 안에서 조용한 관중이 되어, 우리는 아빠가 나뭇가지를 머리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아빠의 조금 벗겨진 머리에 산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자, 머리카락이 황금 왕관의 뾰족한 점들처럼 위로 뻗었다. 바람이 세져서 나뭇가지의 꽃가루와 꽃잎을 치고, 작은 파스텔 각다귀들처럼 날아가게 할 때 까지, 아빠는 들고 있는 가지에 몰두했다. 달빛 아래에서, 꽃잎들은 마치 뿌연 먼지처럼 보였다. 신부님처럼 엄숙하게, 아빠는 의식을 치르듯이 정확한 움직임에 반복하며 처음에는 왼쪽으로, 나중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앞으로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아빠의 움직임에 따라, 꽃가루와 꽃잎이 은색의 흐릿한 구름이 되어 날아올랐고, 달이 있는 쪽으로 밤하늘을 오르면서 아빠의 형체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너무나 우아하게 보여. 마치 춤추는 것 같아.” 홍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돌며, 나뭇가지는 아빠의 주위에 꽃가루의 긴 띠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아빠는 네 방향으로 가지를 흔들며, 이웃을 위한 자신의 축복을 마쳤다.

“너희 집 체리는 분명히 맛있을 거야.”

“대부분은 새들이 먹어치워.”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많은 사람들에게 체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대개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걸로 마무리되곤 하지.”

지붕 위에서 아빠는 팔을 앞으로 뻗어 나뭇가지를 내 던졌다. 가지는 아직도 꽃가루의 리본을 만들며 뒤뜰의 테라스위로 떨어져 내렸다.

아빠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붕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 엄마가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다. “어쩔 때는 내 남편이 우리보다 자신의 체리나무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니면 한밤중에 목이 부러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할 리가 없어.”

아빠가 집 한쪽에 세워져 있는 사다리에 무사히 닿자, 엄마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

다. “내가 돌아오고 나서 얘기 좀 하자고, 아빠한테 전해주렴.”

“소용없을걸요.” 차에서 내리며 내가 말했다.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우리는 엄마가 전조등을 켜고 진입로를 다시 내려갈 때 까지 서있었다.

홍춘에게 마지막 손을 흔들고, 할머니는 내 팔을 잡았다. “서두르자. 너희 아빠와 얘기를 좀 해야 해.”

하지만 그 사이에 아빠는 이미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 아빠가 현관문에서 짠하고 나타났다.

아빠가 현관으로 나오자, 뜨겁고 신선한 팝콘 냄새가 뒤따라 나왔다. “도착 시간을 잘 계산했죠. 그래서 팝콘을 좀 데웠어요.”

“우리가 오는 시간을 어떻게 아셨어요?” 신선한 팝콘 냄새에 나는 거의 침을 흘릴 뻔 했다.

“엄마가 길버트를 시켜 나에게 전화하게 했지. 핫 초콜릿도 좀 타 줄까?”

정말 좋은 아빠였다. “좋아요.” 팝콘을 먹으며 내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아빠가 밤중에 지붕에 올라가신 것 때문에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상냥하게 말했다. 아빠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고집스러웠다.

아빠가 머그잔에 인스턴트 초콜릿을 다 탈 때 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팝콘 한 알을 먹고 난 할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다.

아빠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생각하는 게 엄마보다 훨씬 유연했고, 모든 종류의 게임을 다 좋아했다. 그리고 아빠에겐 이 일도 일종의 게임이었다. “체대로 된 덧이 필요해.” 김이 오르는 머그잔을 테이블로 나르며 아빠가 말했다.

할머니가 만족스러워 하며 아빠의 팔을 토닥였다. “자네가 찬성할 줄 알았어. 나에게 방법이 있어.” 할머니가 일어나 발을 끌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엄마와 할머니가 차이나타운에서 겪은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아빠는 그리운 곳이 있어요?”

“아니.” 아빠가 하품을 했다. 아빠는 자신이 사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의 귀가 떨어질 때 까지 얘기할 수 있다. 축구, 요리, 그리고 적절한 영양. 하지만 그 세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면, 오직 한 음절 대답만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아빠를 이 주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아빠를

쿵 찢렸다. “저는 심각해요.”

마치 내가 타오르는 숯불을 걸어가라고 한 것처럼, 아빠가 망설였다. “너는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그 말이 칭찬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부하셔도 소용 없어요.”

아빠는 머그잔을 내려놓고, 아까 내가 찢른 곳을 문질렀다. “웬 일이냐, 아빠가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걸 싫어했잖니?”

“그거야 아빠가 항상 슈퍼볼 게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나는 아빠의 머그잔에 손톱을 부딪쳤다. “저는 중요한 일이 알고 싶어요.”

아빠가 어깨를 으쓱했다. “할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곳을 이사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아빠에게는 집이 없었죠.” 다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아빠는 핫 초콜릿 표면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하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건 샌프란시스코였어. 그게 아마 내가 여기로 돌아와 학교를 다닌 이유일 거야. 그리고 엄마를 만났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어린 심문자를 낳았지.”

“하지만 아빠는 도시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빠가 배를 긁었다. “네 할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는 주둔지에 대한 기억밖에 없었지. 내 집은 여기야. 어릴 적 얘기를 하면 재미있어. 나는 언제나 뭔가 기를 수 있는 곳을 원했지. 다른 아이들은 전투기 조종사나 탱크를 운전하길 원했지만, 나는 농부가 되고 싶었어. 알겠니? 이 손으로 뭔가 기르는 거야.” 아빠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걸 먹는 거지.”

자신의 말 못하는 오래된 나무를 위해 아빠가 겪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체리나무가 here를 아빠의 집으로 만들었군요.”

“그래,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온순하게 킬킬거렸다. “바보 같지, 안 그래?”

“아니에요.” 사실 나는, 만일 내가 익은 체리들을 나무에다 붙여 놓는다면, 아빠가 자신이 풍작을 이루었다고 생각할까가 궁금했다. 아마도 카렌이 체리 붙이는 걸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다.” 밭을 끝머 돌아온 할머니가 진한 주황색의 작은 하트모양 핀을 건넸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트위에는 칠보로 만든 하얀 레이스까지 달려있었다. “네 이모인 팜이 아주 오래 전에 준 거야.”

“정말 적절하네요.” 내가 킁킁거렸다.

“내가 해 줄까?” 아빠가 편을 가져갔다.

아빠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체리나무나 그 외에 모든 것에. 아빠의 애정이 요란하지는 않지만 꾸준하다. 아빠라면 누구에게도 상처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빠 같은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부탁해요.”

아빠는 편을 더듬으며, 겨우 내 옷 칼라의 중간에 찢러 넣었다. 내가 아빠에게서 바늘 캡을 받아 편이 끝 부분에 덮었다.

잠시 동안 나도 그 상황을 즐겼다.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를 껴안았다.

내가 다시 자리에 앉자, 할머니는 자신의 머그컵을 집어 들었다. “부탁을 하나 해야겠네.”

“말씀만 하세요.” 아빠가 경쾌하게 대답했다.

“중요한 일이야.”

아빠가 작은 마시멜로 봉지를 들고 할머니의 머그잔에 몇 개 띄웠다. “말씀하세요.” “마시멜로를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케이시에게는 말하지 말게. 그 애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엄마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옛날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장난삼아 하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심각할 것이다. 한편으로, 아빠는 어리고 짓궂은 소년 같았다. 음모의 냄새만으로도, 아빠의 눈은 생기가 돌았다. “걱정 마세요.”

아빠의 대답에 대한 보답으로, 할머니는 내가 테이블위에 두었던 마시멜로 봉지에서 마시멜로 몇 개를 꺼내 아빠의 잔에 떨어뜨렸다. 아빠가 할머니를 양할머니로 생각한다면, 할머니는 아빠를 가장 아끼는 손자처럼 대했다. 사실 어떤 논쟁에 있어서도, 할머니가 아빠의 편을 든다는 엄마의 말은 맞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청장치 같은 것을 편에 설치해 놓고 그걸 추적하는 거야.” 내 생각에 할머니는 너무 많은 수사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았다. “자네는 모든 전자장치를 알고 있잖아. 만들 수 있겠나?”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만들 수 있는 도청장치는 오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뿐이에요.” 아빠가 나의 컵에도 몇 개의 마시멜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제 화학시간에는 꽤 유용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 볼게요.” 아빠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망가져도 상관없는 오래된 스웨터를 가지고 있니?”

“친선 단체에 기부할 스웨터가 하나 있어요.”



“내일 입도록 해라.”

“좋아요, 그런데 왜요?”

“그냥 그렇게 해라.” 말을 마치고 아빠는 일어나 내 볼에 먼저 키스한 후, 할머니에게도 했다. 종이 커피필터를 몇 장 가지고 아빠는 일 층의 욕실로 사라졌다.

내 마음의 준비를 제외하고, 흥춘과 내가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누군가 할머니를 실망시킨 친구가 있었나요?”

할머니는 뒤로 고개를 젓히고 입술을 내밀었다. “많았지. 그러나 그 친구들을 버린다는 또 다른 선택은 더 끔찍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를 용서해주길 원하는 것처럼, 너도 그들을 용서하도록 해라.”

나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받쳤다. “만일 그 사람들이,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는 게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걸 알았다면요?”

엄마라면, 그 사람들은 결국 너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을 테지만, 할머니는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다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뭔가를 하겠지.”

그렇게 길게 기다릴 만큼,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잘 알 정도로 나의 내면은 파괴돼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하실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할머니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그건 거짓으로 사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미소 짓자, 나는 의심쩍게 내뱉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미안한 듯, 할머니가 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는 네 나이 때의 할머니와 엄마랑 꼭 같구나. 진실인 수도 거짓일 수도 있지. 중간은 없어. 모든 일들이 진실과 거짓, 둘 다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상처받지.”

나는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와 얘기하는 것은 가끔 미끄러운 모래위에 있는 것같은 느낌이었다. “어떻게 한 가지 사실이, 동시에 진실과 거짓이 될 수 있죠?”

할머니가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다. “친구가 하나 있었지. 식당의 종업원이었어.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일을 마치면, 그 애는 또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갔지. 매일 두 곳에서 일했어. 하지만 너무 똑똑했던 그 친구는 좋은 부동산을 샀고, 진짜 큰 부자가 되었지. 내가 부영이 장식을 팔 때, 그 친구가 나보고 똑똑해져야 한다고, 그걸 팔아서 그 애처럼 투자하라고 했지. 그럼 나도 큰 부자가 되고, 큰 집도 사서 모두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한다고 나에게 말했지.”

나는 제 아저씨가 카피한 할머니의 가보가 떠올랐다.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엄마가 그걸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나에게 진짜 부엉이 장식을 보여주었다. 다섯 살이었던 나에게도 그건 꽤 인상적인 물건이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목 아래의 빈 공간을 무심코 마사지하자, 입술 한 쪽이 이상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네 할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했어. 다른 몇몇 식구들도 그랬고.” 할머니가 무형의 지폐를 나누는 시늉을 했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여기저기로 나갔지.” 할머니가 천정을 가리켰다. “집이 되는 대신에. 그래서 내 친구가 나를 바보라고 했단다.”

이번에는 내가 위로해야 할 차례가 된 듯, 할머니는 슬퍼 보였다.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위로를 받는 대신, 할머니를 위로하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다. 기분이 좋았고, 성숙해진 기분이었다. 상식이라고는 패션에 관한 것 밖에 모르는 학교 멧쟁이들이랑은 다른 성숙함이었다.

“그 친구는 바보예요.” 나는 할머니를 감싸 안고, 호랑이연고와 향냄새가 스며들어, 할머니만의 냄새가 나는 할머니의 옷을 같이 감싸 안았다. “할머니의 친구는 그저 이기적일 뿐이에요.”

할머니도 나를 마주 안았다. “그건 네가 중국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녀의 모든 미국인 친구들은 나를 바보 같은 늙은 여자라고 말해.”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돈을 가족을 위해 쓴 일을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익사하는 사람처럼 나는 계속 할머니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할머니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겠다고 할머니에게 약속했다.

“정말이니?” 할머니는 놀란 듯 했다.

“물론이죠.” 나는 분연히 대답했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단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커다란 슬픔이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언제나 무척 외로웠을 게 분명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모든 문제가 제대로 보였다. 나야말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할머니를 위로해 드릴 방법을 찾고 있는 사이에, 드디어 엄마가 돌아왔다. 나는 팝콘 그릇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팝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마는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의 혀를 찼다. “네 아빠는 팝콘 한 그릇으로 용서를 받

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 그리고 나서 코를 킁킁거렸다. “그래도 냄새는 좋구나.” 팝콘을 한 주먹 삼키면서, 엄마는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았다. “어쨌든 자연을 사랑하는 네 아빠는 어디계시니?”

“중요한 일을 하러 갔단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할머니의 거짓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방해하지 말거라.”

엄마는 더 이상 하품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쨌든 저도 너무 피곤해서 오늘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쉬는 게 좋겠어요. 짧은 아가씨도 마찬가지로야. 내일 학교가야지.”

나는 시계를 쳐다보고 나서 신음소리를 냈다. “말씀 안하셔도 알아요.”

내가 바로 뛰어 올라가 침대로 들어가자, 엄마의 표정이 경직되는 게 보였다. 그래서 엄마가 또 다른 설교를 늘어놓길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를 꾸짖는 대신 엄마는 억지로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했다.

엄마 역시도, 나에게 이미 차이나타운에서의 어린 시절, 즉 자신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라.” 말을 하고 엄마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엄마?” 엄마가 돌아서자 나는 엄마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깜짝 놀라며 엄마도 나를 마주 안았다. “너와 할머니가 밤새 버스 타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로 더 엄마에게 감사하려고 했다. 어린아이로서 신문을 배달한 것. 그리고 엄마의 다른 모든 노력들도. 차이나타운의 그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걸 이뤄냈다.

“아뇨.” 나는 격렬하게 말했다. “제 말은, 모든 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엄마는 의아해하면서 싱긋 웃었다. “너무 졸려서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는 나를 꼭 안았다

나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엄청난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달랐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조금 더 이해했고, 엄마도 그런 것 같았다.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다.

## 13장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나를 깨웠을 때,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빠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구나.” 할머니가 속삭였다.

아빠는 흰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주방에 앉아 아침으로 오트밀을 먹고 있었다. 아빠의 회사까지는 십 마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로와 고속도로는 알마덴의 대부분이 아직 과수원이었을 때 생긴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져서, 제시간에 직장에 도착하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만 했다. 비록 끔찍한 러시아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빠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다, 아가야.”

아빠는 자신의 수저로 병 하나와 몇 개의 면 봉을 가리켰다

“옛날에 만들었던 폭탄이야. 조심해라.”

나는 작은 병을 집어 들고 보랏빛을 띤 갈색 물체를 바라보았다. 안에 작은 통이 들어있는 것처럼 같았다. “이게 뭐예요?”

“고등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만들곤 했던 것.” 손가락에 있는 오트밀을 다시 그릇에 떨어뜨리며 아빠가 킬킬거렸다.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커피필터 종이로 걸러 낸 반죽이야. 그게 젖었을 때는 아무 것에나 다 바를 수 있지. 하지만 마르면 불안정해지고, 만졌을 때는 평하고 터지지.”

나는 병을 다시 테이블위에 올려놓았다. “위험한 거예요?”

아빠는 스푼 가득 오트밀을 뜨려고 했고, 그게 다시 그릇 안으로 떨어지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작은 것으로는 괜찮아. 그 면봉을 이용해서 핀의 표면에 발라 두어라.”

나는 수상쩍게 병을 노려보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아빠는 스푼을 다시 오트밀 안에 담갔다. “도둑이 그걸 잡았을 때 평하고 터지면서 손을 찌르는 거지. 거기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남기지. 강력한 세정액으로도 지워지지 않아.”

“완벽하다.” 할머니가 선언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아빠가 우쭐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생선비린내가 났다. “잠깐만요, 많은 커피필터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죄지은 작은 소년처럼 아빠가 몸을 꼬았다. “확실한 것을 만들기 위해 몇 번을 연습해야 했단다, 애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싱크대에 버리셨어요?”

아빠가 불안하게 나를 힐끔거렸다. “진짜 점점 엄마를 닮아가는구나……. 아냐, 회사로 가지고가서 내 생활의 활기를 좀 돋울 거야.”

내가 한숨을 내 쉬었다. “자신을 날려버리지만 마세요, 아셨죠?”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빠가 유쾌하게 말했다.

아빠가 떠나고,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할머니와 오트밀을 먹으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했다. “저는 스웨터를 이렇게 입을 거예요.” 나는 스웨터를 등 위로 씌우며 팔 부분을 목에 두르는 시늉을 했다. 하트 핀은 이미 옷 위에 꼽아 놓았다. “그러면 모두가 하트를 보게 될 거고, 아빠가 만든 걸 칠한 후에 어딘가에 둘 거예요.”

할머니가 격려의 말을 중얼거렸다. “잘해 보거라.”

점심을 챙기기 위해 일어서면서, 나는 할머니의 볼에 키스했다. “아빠와 할머니 중에, 누가 더 이 일을 즐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을 뿐이야.” 할머니가 장담했다. 가방을 메어야 했기 때문에, 학교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스웨터를 입었다. 밖에서 만난 카렌의 날카로운 눈이 즉시 옷 위의 핀을 보았다. “새로운 거네.”

나는 재킷의 옷깃을 매만졌다. “누가 특별히 준 거야.”

카렌의 입이 떡 벌어졌다. “말도 안 돼.” 그리고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자신의 자전거 시트에 털썩하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상자안의 용수철 인형처럼 몸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누구야?”

“그래, 누구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가오면서 제프가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할머니의 계획에 있어 하나의 결점은, 내가 아직 방안에 숨고 싶을 때에도 모든 사람의 이목을 주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예전의 스테이시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 내가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핀의 옆쪽을 만져 광을 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와도 바꾸지 않을 거야.”

“운이 좋은 놈이네.” 제프가 말했다.

“신디와는 어때?”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다.

“영원히 끝났어.” 제프가 우울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채갔어. 토론 클럽에서 만난 젊은 공화당원.”

“그리고 오십 달러짜리 이발을 하는 사람.” 내가 놀렸다.

이번에는 우리 반 광대도 웃어넘기지 못했다. “그래, 개 때문에 오랫동안 머리를 길렀어.”

학교로 가는 나머지 시간 동안, 카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계속 주절댔을 것이고, 그건 진짜 그 애의 문제였었다. 따뜻한 애이기는 했지만, 너무 수다스러워서 모두가 그 애를 피했다. 재미있는 것은 제프 역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핀을 알아볼지 예상하지 못했었다. 나는 보석 같은 건 해 본 적도 없었고, 남이 한 것에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실비아가 그 핀을 보고는 (그 애만의 사과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나에게 물어왔다. 어젯밤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해둔 대로, 나는 실비아에게 그 핀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얘기했다.

온 학교에 내가 한 핀에 대한 소문이 나고, 우연히 그걸 전해들은 트리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누가 준거야?”

“내 친구가.”

실비아가 제프를 쿡 찮았다. “개새끼, 신디한테 버림받고, 바로 마음이 바뀌었구나.” 트리쉬가 실비아의 힌트를 눈치 채고는 나를 놀렸다. “제프가 네 타입 인 줄은 몰랐어.”

“제프가 준 거 아니야.”

“그……, 그렇겠지.”

만일 트리쉬가 뭔가를 안다면, 학교 전체가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애가 핀에 대한

얘기를 퍼트려주길 원했다. 하지만 제프는 계산에 넣지 못했다. 이 작은 뒷에, 나 역시도 걸려 있었다. 제프에게 이 뒷은, 나와 친구사이 이상이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핑계거리가 된 것 같았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데, 제프가 내 팔을 잡았다. “신경 쓰지 마.”

“사실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어.” 트리쉬가 제프에게 말했다. “개가 학교로 돌아왔어.”

제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개?”

트리쉬는 말을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용기를 주어야 했다. “홍춘을 말하는 거니?”

트리쉬가 핀을 자세히 살폈다. 그래야 나중에 소문을 퍼뜨릴 때, 그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 “바로 그 애. 상상이나 가니? 뻔뻔하기도 하지. 온 학교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

하릴없이 제프는 스케이트보드의 바퀴를 돌렸다. “경고해줘서 고맙다. 조심할게.”

“그 애를 조심해야하는 건 스테이시지.” 트리쉬는 떠나면서 의미심장하게 핀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제프가 씩 웃었다. “분명 신디를 자극할 거야.”

그래, 좋다. 제프가 나를 이용해 신디를 찾으려 한다면, 나는 도둑을 잡기위해 그 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점심 어때?” 제프가 손가락 끝을 세웠다.

나도 나의 손가락 끝을 그 애의 손가락에 눌렀다. “좋아.”

카렌에게 뭔가 얘기하기 위해 내가 돌아섰지만, 그 애는 이미 가고 없었다.

가방을 사물함에 넣으면서 스웨터를 벗고 그걸 등에 걸쳤다. 트리쉬이든, 아니면 보석을 자랑하는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든, 모두 나에게 핀 얘기를 했다. 심지어 아놀드 선생님까지도 모든 학급친구들 앞에서 내 핀을 가리켰다. “네가 어깨가 아닌 소매에 하트를 달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두가 나를 돌아보는 걸 느끼며, 얼굴이 붉어졌다. 핀을 다시 고쳐 달며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휘파람소리와 야유에, 다시 이 뒷에 대한 회의가 들었지만, 나는 끝까지 해냈다. 그러나 내 속의 무언가가 점심시간을 두렵게 만들었다.

남은 오전시간동안 나는 아이들의 놀림을 견디어 내야만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홍

춘이 자신의 사물함에 서있었다. “그 핀, 정말 예쁘네.” 그리고 눈썹을 움직여 소리 없는 질문을 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대답했다. “선물 받았어. 오늘 어땠어?”

“힘들어. 하지만 해낼 수 있어.” 홍춘은 할머니만큼이나 강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왜 둘이 잘 통하는 지 알 것 같았다. 점심을 챙겨들면서 나는 뒤에서 트리쉬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학생 화장실 안에서 조심스럽게 핀에 약품을 바르고, 스웨터를 등 위로 걸쳤다.

약품이 들어있던 병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며, 나는 핀이 마르는 데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다. 그저 내가 스웨터를 입고 그 핀을 차고 있는 동안은 마르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밖으로 나온 나는 제프의 사물함으로 향했는데, 그 애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아직도 같은 생각인거지?”

“뭐라고?” 우리의 계획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제프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다.

제프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점심 말이야.”

“그럼.” 안도하며, 내가 대답했다.

“어디서 먹을까?”

“애들이 많지 않은 곳, 하지만 눈에 띄는 곳.”

“그럼 운동장으로 가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끼며, 구름처럼 많은 애들을 뚫고 운동장 관중석으로 갔다. 자리를 잡고 나서 식당 근처를 지나갈 때 피자라도 샀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점심으로 좀 괜찮을 걸 갖고 왔길 바라. 내 건 온통 토끼풀 뿐이야.”

점심이 들어있는 봉투를 열며, 제프는 과장된 몸짓으로 트윈키 케익의 포장을 꺼냈다. “봐봐.”

나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초콜릿으로 코팅된 도넛과 다른 불량식품들이 들어 있었다. “우리 엄마랑 너희 엄마를 바꾸면 안 될까?” 내가 물었다.

제프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우리 엄마가 무얼 싸 주셨는지 알고 싶지 않을 걸. 학교 오는 길에 세븐일레븐에 들렀지.”

나는 제프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너는 정말 생각이 깊구나.” 나는 스웨터를 벗어 벤치에 걸어 놓으며, 제발 제프가 도둑이 아니길 빌었다.



“실비아가 나에게, 어제 그 녀석이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해줬어. 진짜 미안하다고 느꼈대. 우리 모두가 그 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야.”

제프가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도 그 애에게 물어보는 게 옳다고 생각됐다. “하지만 나를 처음 봤다면 어떻게 생각 했겠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건데?” 제프가 자신의 머리를 손 등으로 짚었다. “과도타기나 하는 놈팡이?”

“우리 모두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 같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 생긴 모습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놀려댈 것이다. 마치 내가 주근깨가 많은 사람을 놀렸듯이. 결국은 나도 홍춘에 대해 나만의 추측을 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추측이 돌에 글자를 새기 듯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 홍춘을 알게 되자, 나도 그런 추측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몇몇 일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나도 그런 편협한 인간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버릴 작정이었다. 대부분의 그런 인간들이, 사실은 진짜 괴물들이 아니라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다. 예를 들면 편협한 인간도 개에게는 잘할 수 있다. 아마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이 있어야 할 그들의 영혼 속에는 구멍만이 존재한다.

제프가 아직도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런 놈들이 존재할 것이고, 다만 제프같은 애들이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많기를 바랄 뿐이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나는 손가락 마디로 제프의 이마를 쳤다. “아니, 돌이 아니라 나에게서 단단한 나무로 들려.”

“마디가 많은 소나무가 더 명확하게 눈에 띄는 법이지.”

제프가 봉지에서 또 다른 냅킨을 꺼내 식당의 웨이터처럼 자신의 팔에 걸쳤다. “오늘의 특별요리는 맥주 땅콩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여자를 응석받이로 만드는지 잘 알고 있구나.”

열린 내 점심 봉투를 보고, 제프가 맛없어 보인다는 듯이 찡그렸다. “건강에는 좋겠네.”

사실 점심시간이 다른 때처럼 즐겁지는 않았다. 아마도 내가 조금 많이 스스로를

의식한 듯 했다. 억지로 자신을 북돋우며 제프에게 디저트로 뭐가 있는지 물었다.

“이걸로 먹은 걸 소화시켜 봐.” 제프가 봉투에서 오렌지 맛 물총을 꺼냈다. “내 사물함에 또 하나 있어.” 제프의 조준은 타이밍만큼이나 정확했다. 첫 번째로 물을 쏘았을 때는 정확히 내 입안으로 들어왔다. 콧속거리며 내가 주저앉자, 물줄기가 내 얼굴로 날아왔다.

“이건 친구에게 비밀을 가진 대가야.” 제프가 속삭였다.

“그만해.” 입에 가득 고인 물을 뱉어내며 내가 말했다. 물총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제프가 벤치에서 일어나 피했다.

“누가 준거야?” 제프가 내 머리에 계속 물총을 쏘아대며 있으므로, 지금 나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다. “말해.” 제프가 재촉했다.

물 때문에 눈을 깜빡이며 내가 몸을 일으켰다. “이 새끼.”

운동장 관중석에서 뛰쳐나가며, 나는 제프를 쫓기 시작했다. 당연히 눈이 보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제프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얼굴만을 쏘아댔다. “오케이, 오케이. 복수에 성공했어.” 마침내 제프가 말했다.

나는 축축한 소매로 눈을 닦았다. 제프가 나에게 대한 자비심으로 물총 쏜기를 멈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이 없지?”

제프가 물총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조준해 총구를 당겼다. 물 한 방울이 특하고 흘러나왔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관중석으로 뛰어갔다. “봉투에 냅킨이 더 있어?”

“많이 집어왔지.” 제프는 나를 따라오면서도, 내가 걸어찰 수 있는 범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관중석으로 돌아가 봉투에서 냅킨을 꺼내들고 얼굴을 닦았다. “이래서 어떻게 교실로 돌아가니?”

제프가 내 스웨터를 집어 나에게 내밀었다. “이걸 입어.”

나는 제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게 너무 분한 나머지, 내가 그 곳에 간 목적을 거의 잊고 있었다. 핀은 이미 없었다.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제프에게 소리치느라 바빠서 평하고 터지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다.

“미안해, 스테이시. 핀을 찾을 수가 없어.” 뭔가가 떠오르자, 제프가 몸을 일으키며 내게 물었다. “그 도둑이 또 훔친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눈을 아래로 하고 제프를 훔쳤다. 만일 제프가 핀을 가져간 거라면, 손가락에

얼룩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애의 손가락은 깨끗했다. “찾을 수 있어. 만일 네 손에 뭔가 묻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겠니?”

“씻겠지.”

“만일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들어준다면, 네가 방금 했던 행동은 용서해 줄게.”

“좋아.”

“남학생 화장실에서 손에 묻은 얼룩을 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찾아봐줘. 그 사람이 도둑이야.”

“그런 거군.” 사정을 이해하게 되자, 제프가 손을 들었다. “내 손가락을 먼저 살폈지?” 비난과 상처가 제프의 목소리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살면서 나는 엄마에게서 말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책략을 배웠다. “왜 화가 난 거야? 내가 널 의심해서?”

내 물음에 제프는 놀란 듯 했다.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제프가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챘다. “우리는 친구야. 의심은 친구로 하여금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극복하게 하는 거야.”

“정신과 의사의 딸과는 다음에 다투도록 하지.” 제프는 행복의 뜻으로 두 팔을 들었다. “그동안 너는 뭘 할 건데?”

“여학생 화장실을 살펴야지.” 나는 전속력으로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갔다.

## 14장

나는 체육관의 여학생 화장실로 숨어들어갔지만, 그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들어오고 나가는 학생들을 피하며, 그리고 그 애들이 내 젖은 옷에 대해 말하는 것을 무시한 채로, 나는 학교 동 쪽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옷차림에 관심이 많은 학생 중의 하나인 트리쉬가 그 곳에 있었다. 그 애는 자신의 메이크업 붓을 들고, 다른 물건들은 심장이식을 준비하는 외과 의사처럼 앞에 늘어놓고 있었다.

자신의 손을 응시하는 나를 보고 그 애가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손이 깨끗했다.

다급한 마음이 커지면서, 나는 식당 옆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을 뚫고 달렸다. 강당으로 가는 문을 잠겨 있었고, 뒷문으로 가기 위해 강당 옆을 질주했다. 뒷문은 열려 있었다, 강의실을 어두웠지만,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듬거리며 여자화장실까지 갔다.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멈췄다. 갑자기 문을 뚫 열어젖히면서도, 나는 안을 들여다보기가 싫었다.

실비아였다. 나를 본 그 애가 필쩍 뛰었다. “스테이시, 깜짝 놀랐잖아.”

나도 그 애만큼 어색했다. “여기서 다른 사람 못 봤니?”

자신의 팔을 뒤로 한 채, 그 애는 개수대를 가리려고 애썼다. “아니, 나 혼자야.”

“뭐하고 있어? 씻고 있니?” 내가 목을 길게 늘였다.

“아니,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 나를 향한 채로 실비아가 개수대로부터 옆걸음을 치다가 바로 멈췄다. “아!”

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다. 나는 발을 움직여 캔을 멈추게 했다. 내가 허리

를 숙이자 실비아가 내 손목을 잡았다. “조심해. 무지 뜨거워. 그래서 내가 떨어뜨린 거야.”

신발을 들어 나는, 뛰어다니는 작고 파란색의 동물이 있는, 밝은 색깔의 요란한 라벨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것은 스머프 상표의 스파게티였다.

멋쩍어하던 실비아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언제나 나는 이걸 좋아했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몰래 여기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덥히고 있어.”

실비아의 손은 너무도 깨끗했다. “욕구가 어떤 건지 나도 잘 알아.” 내가 수궁했다. 실비아가 절망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훑었다. “네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보상을 할게.”

내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갈게.” 내 입술을 잠그는 시늉을 하며 강조했다.

실비아가 안도하며 어깨를 늘어뜨려 긴장을 풀었다. “브라우니는 어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잖아?”

브라우니라면 그렇게 나쁜 놈을 아닌 것 같았다. “파티를 하자.” 나는 킁킁거리며 실비아를 죄의식이 갖든 기쁨에 빠지도록 놔두고 떠났다.

강당 밖에서 머뭇거리며, 아빠가 자신이 만든 물건을 건네며 한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렸다. 보통의 비누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아빠는 사실 강력 세척제를 애기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도둑은 이미 그런 종류의 세척제를 찾고 있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다시 관리 빌딩을 향해 달렸다. 쓰레기 처리장을 지나 백 야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학교 수위들은 소각장이 있는 네모난 하얀 빌딩에 사물함을 가지고 있었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 창문들이 작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올라가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 때는 모든 수위들은 교내를 둘러보기 위해 나가 있을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의 뒤처리를 했던 경험으로, 걸레와 청소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앞 쪽에서 금속 개수대 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었다. 양동이 안에 들어 있는 대 걸레 위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문을 벌컥 열었다. 그 곳에서 미친 듯이 손을 문지르고 있던 사람은……, 카렌이었다.

땀에 젖어들게 만든 것에 대해, 나는 어느 정도 미안함이 느껴졌다. 카렌 역시 나의 친구였다. 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이 느껴졌다. 마치 마음도둑처럼.

“카렌, 왜?”

두 손을 뒤로 한 채 카렌이 뒤돌아섰다. “뭐가 왜야?”

개수대 옆, 뚜껑이 열린 세척제 캔에서 나오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실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있잖아…….”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네가 도둑이었어.”

카렌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결백한 듯이 행동하려 노력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손을 보여줘.” 내가 다가갔다.

“나한테 명령하지 마.” 카렌이 벽 쪽으로 물러섰다.

“너한테 명령하는 거 아냐.” 싱크대 옆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훔쳐간 사람을 찾고 있을 뿐이야.”

“빠빠마른 중국 친구한테나 가서 얘기 해.”

내가 손바닥을 내 보였다. “더 이상 감추려고 하지 마.”

반항의 의미로 카렌이 자신의 턱을 쳐들었다. “내가 왜? 너와 네 소중한 친구는 나한테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카렌은 너무 화가 나는지, 뒤로 감췄던 손을 당겨 두 주먹을 쥐었다. “나를 알아보지 마. 나도 눈이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 어차피 개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언제나 나랑 같이 등교했었는데 그 중국 애랑 가버렸어.”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를 더 오래 알았잖아.” 카렌의 목소리에는 그 애가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있었다. “그런데 그 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버렸어.”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지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애를 함정에 빠뜨린 거니?”

“아니야.” 카렌이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흔들었다. “도둑은 그 애야.” 다시 손을 뒤로 하고는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다. “네가 그런 거 알아.”

카렌이 벽에 붙어 몸을 꼬았다. “그 물건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업자득이야. 모두들 자신들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들 중의 일부분일 뿐이야. 네

가 그들에게서 하나를 가져가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지. 마치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것처럼.”

“실비아는 말을 못되게 하지. 그리고 제프는 장난이 심해. 하지만 바로우 선생님은?”

“선생님은 공평하지 못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무지 노력 했는데도……, 선생님은 그 사람의 부모들에게 당신들의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그건 정말 불공평하네.” 동정심을 느끼며 내가 수긍했다.

카렌은 거의 울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제프가 너에게 편을 주었으니까. 이제 나를 모른 척 할 거야.”

“그래서 결국 내 것도 훔쳤구나.”

카렌이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다.

“네 손을 보여줘.” 나는 손바닥을 뒤집어 카렌을 향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어서 보여줘.”

카렌이 두 팔을 뒤로 모아 오그렸다. “싫어.”

“카렌. 네가 무엇을 했든 나는 계속 너의 친구일 거야.” 그 말의 모순을 느끼면서 나는 재빨리 왼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다. “맹세할게.”

아무 말 없이 카렌이 자신의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그 애의 주먹 쥔 손을 돌려 손가락을 폈다. 손가락 끝에 열은 보라색 얼룩이 있었다.

“다른 물건들은 어떻게 홍춘의 가방에 넣어 놓은 거야?”

카렌이 손을 내렸다. “사물함 문을 열 때 너는 열쇠번호를 감춘 적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거야.”

“내 마음을 돌려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카렌은 오른손을 청바지 주머니로 가지고 갔다.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작은 마음을 돌려받았다. 아빠의 약품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안전했다. “말해야 해, 카렌. 사람들이 홍춘을 핍박하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카렌이 불쑥 내뱉었다.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그리고…….”

“……. 눈덩이처럼 커졌지.” 내가 그 애의 말을 끝냈다

카렌은 소리 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니까 제발 말하지 마. 제발, 제발.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잘 알잖아.”

어릴 때 들어서 지냈던 모든 좋은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나는 목이 메었다. “내가 도울게. 우리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갑자기 카렌은 울음을 터트리며 나를 안았다. “괜찮을 거야.” 그 애의 등을 토닥이며 내가 말했다.

“이봐!” 우리가 몸을 돌려 수위장인 해롤드를 쳐다보았다. 그는 회색 작업복에 A라고 쓰여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

“죄송해요.” 어미 닭이 병아리에게 하듯 내가 카렌을 감싸 안아 데리고 나왔다.





## 15장

카렌의 사물함에는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카렌을 바로우 선생님에게 맡기고 나서, 나는 모든 물건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면서 진짜 도둑이 누구였는지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홍춘이 실비아, 그리고 다른 몇 여학생들과 정답게 얘기하는 걸 봤다. 비록 추가 잘못된 곳으로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는 홍춘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 홍춘도 그 애들과 어울리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육상 팀에 입단하는 테스트 받을 거니?” 루이사라는 여학생이 물었다.

“아마도.” 홍춘이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춤추기 전에 다리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을 걸.” 실비아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어떤 춤을 추는지 몰라.” 홍춘이 부끄러워했다.

“내가 보여줄게.” 루이사가 말했다.

“네 춤은 괴상해.” 미란다가 루이사를 놀리며 홍춘에게 약속했다. “내가 더 나아.”

재미있게도 홍춘과 나의 위치가 바뀐 듯했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었다. 내 사물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백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를 보고 홍춘이 미안해했다. “스테이시.”

“응?” 사물함에서 내 가방을 꺼내며 대답했다.

“고마워.” 홍춘이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잊어버려.”

“그럴 수가 없어. 마치 나쁜 꿈을 꾸는 거 같아. 하지만 네가 바로 잡아 주었어.”

나는 책들을 내 가방 속에 넣기 시작했다. “너도 어느 정도는 잘못했어.”

“알고 있어. 중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너무 무서웠거든.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나 다르니까. 바꾸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가방을 땀다. 홍춘이 자신의 방어막을 걷어내자 꽤 괜찮은 아이였다. 아마 언젠가는 그 애와도 친구가 될 것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네.

“고마워. 그런데 너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다. “카렌을 용서해줘.”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애의 친구가 되어줘.”

잠시 홍춘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망설임이 미소 지었다. “너의 도움은 값진 것이었어. 하지만 나는……, 네 친구도 되기 위해 노력할게.”

나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카렌에 대해 추측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홍춘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좋을 거야.” 나는 사물함을 잠갔다.

내가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마침 운 좋게도 엄마도 한가한 참이었다. “정말 안됐구나.”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얘기했을 때 엄마가 말했다.

서로 겨루는 텔레비전들이 있는 이상한 그 애의 집을 생각했다. “개네 부모님이 그 애를 죽이려 들 거예요.” 물론 그 말 뜻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그 애에게 어떻게 할지 대충 상상할 수 있었다.

엄마도 알고 있었다. “내 생각에 카렌의 진짜 문제는 자존감이 낮다는 거야. 정신과 의사는 필요 없어. 단지 가정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그건 모든 가족을 의미해. 좋은 가정 상담사를 추천해 줄 수 있어. 데이비한테 부탁하면 무료상담도 해줄 거야. 문제는 우리가 카렌의 부모님을 상담사한테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며 전화기를 귀에 밀착시켰다. “바로우 선생님이 그분들에게 말하도록 하면 어때요? 카렌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말을 들을 게 분명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도 제법 영악하구나. 알고 있니?”

“엄마!” 내가 싱긋 웃었다. “정신과 의사의 딸인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친구를 위한 작은 희망이었지만 카렌의 부모님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지 않는 한, 변하는 건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집의 진입로에 이상한 차가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름을 잡아먹는 구식 캐딜락의 하나였는데 고래처럼 커 보였다. 하얀색의 차 뒤쪽에는 흙받이까지 달려 있었다. 차를 한 바퀴를 빙 돌며 나는 누구의 차인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부모님의 친구 어느 누구도 그 차와 매치되지가 않았다. 뒷좌석 유리창의 오른쪽 아래에는 오렌지색과 보라색의 사자머리 스티커가 있었다. 여전히 궁금한 채로 나는 현관문으로 갔다. 두꺼운 나무판이었음에도 그 너머로 나는 크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당혹한 나는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중국어로 즐겁게 얘기하고 있었다. 한 여자가 할머니에게 대답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

“여기에 있어.”

나는 소리를 따라서 거실로 갔다. 70대의 중국인들 사이에 제 아저씨가 있었다. “잘 있었니?” 아저씨가 말했다.

엄마의 핑크색 카드테이블을 펴놓고, 그 위에는 할머니의 마작세트가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와 엄마가 나와 같이 마작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나는 마작의 규칙이 카드 게임의 일종인 진러미와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었다. 사람들은 마작 패를 맞추기 전에, 패보다 두 배정도 높은 사각형 틀 안에서 패들을 섞기에 바빴다. 카드를 섞고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할머니가 마작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패 섞는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할머니가 즐겁게 패들을 쓸어 골고루 섞이게 했다. 패들끼리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손님들이 와 계신단다.”

제 아저씨가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그 다음에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당신이 차이나타운에 오질 않으니 차이나타운이 당신에게로 온 거죠.” 아저씨의 손이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여기는 내 사촌인 셔먼이고 저기는 그의 부인인 설리란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그만 돈세는 걸 멈추고 여기로 데려다 달라고 했지.”

셔먼 아저씨는 뚱뚱하고 머리숱이 적은 남자였다. 입에는 불이 붙지 않은 시가를 물고 있었는데 말을 하려면 그걸 손으로 잡아 빼야 했다. “로우 여사님을 보려면 뭐든 해야죠. 그런데 여사님은 너무 자애로우신 분이래 저에게 게임을 양보하실 거예요.”

“우정은 우정이고, 마작은 마작이야.” 할머니가 쳐다보았다.

제 아저씨가 자신의 방문 목적에 나도 포함시켜 주니 기뻐다. 하지만 다른 두 사람

은 어떤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예의바른 격식에 맞춰 인사했다.

셔먼 아저씨가 나를 한 번 힐끔 쳐다보았다. “네가 케이시의 딸이구나. 엄마를 닮았어.” 그가 자신의 아내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아, 여보?”

셜리 아줌마가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하지만 친근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내 생각에는 네가 더 예쁘구나.”

어제 이후로 내가 기대할 것은 공치사밖에 없었다.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 애만큼 좋은 점원이 없었지.” 아저씨가 자신의 시가로 공기를 갈랐다. “뭐든 다 팔았지.” 옛날을 회상하며 그가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 오빠가 우리에게 말한 한 다스나 되던 석영(石英) 매미 생각나?”

“두 다스였어요.” 아줌마가 바로잡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던져놓고 간 사람은 당신 형인 파라젯이었어요.”

“어쨌든.” 아저씨가 잘 생각나지 않는 듯 시가를 흔들었다. “그 애가 중국인들이 그걸 어디다 쓰는 지 찾아내기 전까지는 그 빌어먹을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디다 쓰는 거냐고 물었을 때 나는 행운의 돌이라고 했어. 하지만 케이시가 우리에게 중국인들은 옥으로 매미를 조각하여 죽은 사람의 혀에 올려놓는다고 얘기 해 주었지.”

엄마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아직도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정말요?”

“아주 옛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옥이 깨끗함을 유지시켜 주고 부패를 막아준다고 믿었지.” 셜리 아줌마가 패를 한줌 쥐고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미는 부활의 상징이었어. 왜냐하면 진짜 매미는 주기적으로 땅에서 나오니까.”

그게 신호라도 되는 듯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앞에 마작 패로 벽을 짓기 시작했다.

“어쨌든. 너희 엄마가 손님에게로 가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나조차도 그걸 사고 싶을 정도였지. 가망만 보이면 그 애는 손님을 물고 늘어져 도저히 떨칠 방법이 없었어. 불도그 같았지.” 아저씨가 엄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대학으로 가버린 이후는 매출이 이전 같지 않았어.”

엄마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하는 일만큼이나 매미를 파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장난이 아니었네요.”

“케이시는 대학원을 다닐 때도 우리와 함께 있었어.” 아줌마가 아저씨의 말을 정정

했다.

“어쨌든.” 아저씨가 상냥하게 말하고는 다시 시가를 물었다.

할머니가 손짓으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오늘 어땠니?”

“땃이 효과가 있었어요. 도둑은 카렌이었어요.”

할머니는 내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지 이해했다. “안됐구나.”

나는 가방을 어깨에서 빼 바닥에 던졌다. 마치 내 영혼이 느끼는 것처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떨어졌다. “제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그 애에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땃을 놓고 그 애가 걸려들게 했어요.”

할머니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면서 손님들에게 말했다. “실례할게요. 나 빼고 계속하세요.”

“네.” 서면 아저씨가 말했다. “이번에는 아마도 내가 이길 거예요.”

“괜찮아요. 손님들과 함께 계속요.”

할머니가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았다. “아니다. 얘기를 좀 하자꾸나.”

우리는 복도로 들어가, 아빠의 서재를 지나 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할머니의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있어서 가는 동안 내내 복도를 울리는 중국 미스터리 방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늘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단다.” 반 컵 정도 남아있는 차가 할머니의 안락의자 옆 텔레비전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 보다 더 힘들었다.

“세상 전부를 책임지려고 하지마라.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할머니의 농축된 냄새가 배어있는 이 방에는 오랜만이였다. 방의 구석 쪽에는 수많은 할머니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증 손주들의 사진이 여러 중국 신들의 조각상들과 뒤섞인 단이 있었는데 마치 파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각상 하나는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손에는 꽃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살찌고 머리가 벗겨진 행복해 보이는 남자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였다. 그 곳에는 또 여덟 개의 작은 조각상들이 그룹으로 모여 있었는데 들고 있는 것이 각자 달랐다. 하나는 칼, 다른 하나는 부채 등등. 또 하나의 대머리 남자는 머리에 커다란 지붕을 이고 있었다. 몇몇 조각상에 대해 물어보려고 나는 머릿속으로 나 자신에게 메

모를 남겼다. 대머리에 뚝을 이고 있는 조각상의 바로 앞에, 열 살 때의 나와 부모님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그 사진은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것으로, 웃을 때 이빨을 보이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불빛이 내 치아교정기에 반사 돼 번쩍거렸다.

“만일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요?” 그 곳에 선채로 나는 나의 안전한 작은 우주가 부서지는 걸 깨닫고 내 관절과 사지가 동정어린 고통으로 아픈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우주이든, 아니면 내 안의 것이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엄마는 나를 분석하려고 할 것이고, 아빠는 나를 데리고 나가거나 물건을 사주는 것으로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나를 지극히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하구나. 너는 너무 빨리 자라야만 했어. 내 아이들이 빨리 자라는 것도 봤지. 내 손주들은 더 빨랐어. 그리고 증 손주인 네가 가장 빠르구나.” 할머니는 일초마다 자라는 식물을 훑내 냈다. “너무 빨리 자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구나. 왜냐하면 나는 바깥 세상에 온갖 끔찍한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를 보호하고 싶어. 그래도 너는 자라겠지.”

할머니가 내 손을 놓고 텔레비전으로 다가갔다. “제니가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싶었지.” 제니는 할머니의 딸이자 나의 외 할머니였다. “어미가 자식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지.”

내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셨잖아요.”

“케이시가 왔어.” 할머니는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도.”

나는 다시 흥춘과 쓰레기처리장 직원들을 생각했다. “비록 제가 잡종이어드요?”

“속 좁은 인간들의 말은 듣지 마라.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인간들이야. 그들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거야.”

“셔먼 아저씨랑 설리 아줌마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머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껐다. “그럴 리가 없지. 딸이 좋은 미국남자랑 결혼했어.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예쁜 손자가 있지. 그때는 그런 결혼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아졌지.”

제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났다. “저랑 같이 차이나타운을 걷게 되면, 창피해 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할머니가 내 손가락에 각지를 껐다. “모두에게 너를 자랑할 거야. 너는 너무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야. 만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굳이 제씨의 도

움이 필요하지는 않아.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이든, 또 무엇을 하든 할머니는 나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할머니를 껴안았다. 겹겹이 입은 옷들 속에서 할머니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홍수가 닥쳐도 할머니의 곁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도시가 없어지고 나라가 산산이 부서져도 할머니의 마음에 기댈 수만 있다면 나는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인, 미국인이라는 딱지를 넘어선 어떤 것이었다.

아마 나는 차이나타운 같은 고향은 절대 갖지 못할 것이다. 어찌면 아빠처럼 고향이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만든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벽돌이 되고 사랑은 시멘트가 된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나는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제프 같은 오랜 친구가 있고, 제 아저씨와 길버트 같은 새로운 친구도 있다.

밖에서 설리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다. “핑!”

셔먼 아저씨가 격분하여 중국어로 커다랗게 떠들어댔다. 그리고 셔먼 아저씨와 제 아저씨가 동시에 자신들이 뽑은 패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얘기해댔다.

“가자꾸나. 네 손님들은 아마도 잠시 쉬면서 따뜻한 초콜릿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방 밖으로 나오며 할머니를 부축했다.

“아이스크림 선디가 더 좋겠구나.” 내 뒤에서 발을 끌며 할머니가 말했다.





## 감사의 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화경, 화정, 그 외의 모든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